

순천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최종보고서



연구수행기관



제 출 문

순천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순천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차 례

I. 연구 개요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2. 연구 내용과 방법	13
II. 순천시 주요 현황과 지역 분석	15
1. 일반 현황	16
2. 순천시 재정 현황	34
III. 순천시 도서관 현황	43
1. 공공도서관 현황	44
2. 순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52
IV. 순천시 도서관 사업 내용과 평가	57
1. 2012 ‘순천시 책읽기 혁명 프로젝트’ 제안	58
2. 순천시의 주요 도서관 사업	60
3. 순천시 도서관의 과제	67
V. 순천시 도서관정책 환경분석	73
1.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	74
2.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19 ~ 2023)	79
3.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 ~ 2023)	82
4. 종합 분석	85
VI. 순천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87
1. 순천시 도서관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88
2. 5대 정책영역 및 세부과제	90
VII. 중장기 발전계획의 세부과제	91
1. 독서문화진흥	92
2. 교육 지원	120
3. 복지 지원	127

4. 산업 지원	132
5. 생태환경 지원	139
VIII. 신대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방향	141
1. 건립 지역 분석	142
2. 면접조사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 및 제안사항	147
3. 건립 기본방향 제안	151
4. 설계 추진 시 고려할 사항	154
5. 참고사례	158
부록	165
1. 신대도서관 시민참여단 1차 회의 회의록	166
2. 신대도서관 시민참여단 2차 회의 회의록	177
3. 신대도서관 시민참여단 3차 회의 회의록	198
4. 안문수 과장 인터뷰	207
5. 순천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자문회의	217

표 목 차

<표1> 순천시 연혁	16
<표2> 순천시 기후 현황	18
<표3> 순천시 읍면동별 면적과 구성비	19
<표4> 순천시 인구 현황	21
<표5> 행정구역별 인구 변화와 증감률	22
<표6> 연령별 인구 현황	25
<표7> 순천시 출산율 비교	26
<표8>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27
<표9> 전라남도 시·군 고령 인구 비율 (2018)	27
<표10> 순천시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	28
<표11> 순천시 연령별 가구소득 분포 (2018)	28
<표12>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29
<표13>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30
<표14> 산업별 사업체수	30
<표15> 순천시 일반 가구 및 주택 현황	32
<표16> 순천시 교육기관 현황	33
<표17> 순천시 재정규모 및 구조	34
<표18> 유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비교 (2019)	35
<표19> 순천시 일반회계 세입결산	35
<표20> 순천시 일반회계 세출결산	36
<표21> 순천시 본예산 (2019)	37
<표22> 소멸위험지수에 따른 소멸 위험 정도	41
<표23> 연도별 소멸위험 시군구 수	41
<표24> 연도별 순천시 소멸위험지수	42
<표25> 순천시 공공도서관 시설 규모	45
<표26> 지역단위별 공공도서관 현황 비교 (2018)	46
<표27> 인구 30만 명 내외 도시 공공도서관 지표 비교 (2018)	46
<표28> 순천시 공공도서관 인력 현황 (2019)	47
<표29> 순천시 공공도서관 연도별 장서 현황	48
<표30> 순천시 공공도서관 연도별 도서구입 예산	48
<표31> 순천시 정보취약계층별 인구 (2019. 9)	49

<표32> 순천시립도서관 대체자료 보유 현황 (2018)	49
<표33> 순천시 공공도서관 연도별 이용자수 및 대출권수	50
<표34> 5세 인구별 순천시립도서관 회원 비율 (2019. 10)	51
<표35> 순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2018)	52
<표36> 작은도서관 유형별 현황 및 2012년 대비 증감	54
<표37> 순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54
<표38> 순천시 작은도서관 연도별 운영 현황	55
<표39> 2012 ‘순천시 책읽기 혁명 프로젝트’ 제안 내용	59
<표40> 순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비교	60
<표41> 순천시 원 시티 원 북 연도별 선정도서	63
<표42> 순천시 북스타트 운영 현황 (2018)	64
<표43> 순천시 연도별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현황	65
<표44> 순천시 연도별 전체 도서관 이용자수 및 대출권수	67
<표45> 덕연동 인구 변화	71
<표46> 문화시설 전망	78
<표47> 순천시 공공도서관 현황	92
<표48> 순천시 신청사 건립 개요	94
<표49> 순천시 도서관 인력 현황 (2012. 11)	97
<표50> 순천시 도서관 인력 현황 (2019. 10)	97
<표51> 순천시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업무 분장	98
<표52> 순천시 공공도서관 기본 인력구성안	100
<표53> 순천시 도서관 필요 인력 산출	100
<표54> 연도별 사서 확보 계획	101
<표55> 순천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주제 및 방향	111
<표56> 순천시 연도별 0세 인구수	127
<표57> 순천시 장애인 단체 현황	128
<표58> 용인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참여서점 (2019)	136
<표59> 신대지구 연령별 인구 변화	142
<표60> 신대지구 학교 현황 (2019)	145
<표61> 설계 공모 관련 규정	155
<표6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 설계공모 관련 내용	155
<표63>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설계공모 방식	156

그림 목 차

<그림1> 순천시 인구 변화	20
<그림2> 2011년 대비 읍면지역 인구 증감률	23
<그림3> 2011년 대비 동지역 행정구역별 인구증감률	24
<그림4> 순천시 인구 피라미드 (2019. 8)	25
<그림5> 순천시 출산율 비교	26
<그림6>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27
<그림7> 연도별 소멸위험지수 변화	40
<그림8> 순천시 도서관 이용자수 및 대출권수 변화	67
<그림9> 기적의도서관과 연향도서관 이용자 변화	70
<그림10> 상위 계획 등을 통해 선정한 순천시 도서관의 중장기 목표	89
<그림11> 순천시 도서관정책의 5대 영역	89
<그림12> 순천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권역 및 건립 필요 지역	93
<그림13> 선평리 일대 아파트 단지별 세대수와 예상 인구	96
<그림14> 도서관 수서 업무시 고려할 사항	99
<그림15> 순천시 도서관 지도	102
<그림16> 순천시 동지역 도서관 지도	104
<그림17> 순천시 초등학교 지도	106
<그림18> 순천시 작은도서관 지도	107
<그림19> 순천시 작은도서관 및 초등학교 지도	108
<그림20> 군포시 독서진흥정책 홍보 사례	119
<그림21> 상생충북에서 제작한 동네서점 홍보 포스터와 서점 지도	133
<그림22> 용인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135
<그림23> 신대지구 연령별 인구 분포도 (2019. 8)	143
<그림24> 신대지구 내 학교 위치	145
<그림25> 신대지구 내 도서관 위치	146
<그림26> 설계공모 방식별 주요 특징	156
<그림27> 헬싱키 중앙도서관 ‘오디’ 외관	158
<그림28> 헬싱키 중앙도서관 ‘오디’ 3층	159
<그림29> 좌) 다카토브라리를 활용한 야외 워크샵	162
<그림30> 우) 다카토브라리 어플리케이션 스크린샷	162

I.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I.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03년 11월 순천기적의도서관이 개관한 이후 순천시는 지속적으로 도서관 정책을 펼쳐왔으며, ‘도서관 도시’로 도서관 관계자, 독서문화 진흥 정책 담당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사회적으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고,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매체와 콘텐츠 이용에도 큰 변화가 진행 중임.
- 정부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 ~ 2023)과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 ~ 2023)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도서관·독서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순천시 내부적으로는 신대지구, 오천지구 등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및 읍면지역 인구 감소에 따라 주민생활권 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 및 새로운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시점임.
- 순천시 내부 변화 및 사회적·정책적 변화를 고려할 때 순천시 도서관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최선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순천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순천시 책읽기 문화 확산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그간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5년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19년
 - 계획연도 : 2020년 ~ 2024년
- 공간적 범위 : 순천시 전 지역
- 내용적 범위 : 순천시 공공도서관 전반

2) 연구 내용

- 순천시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 순천시의 인구학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 등 기반 조사
 - 국·내외 공공도서관 동향 및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순천시 도서관 운영 실태 진단
 - 순천시 도서관 및 독서정책 평가
 - 공공도서관 운영 분석(프로그램, 장서, 인력 및 정책 등)
 - 도서관 서비스권역 분석
- 순천시 도서관 중·장기 정책 제언
 - 정부 정책 및 사회 환경 변화 등 도서관 관련 여건 분석 및 전망
 - 순천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제시
 - 공공도서관 확충 대상 지역 및 인력 확보 계획 제언
 - 공공도서관 특성화 및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방안
-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 대상지 분석 및 건립 방향 제시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인구특성, 기반시설 등 지역조사
 - 확충 대상지의 입지 및 여건 분석
 - 관련 법령,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어린이, 청소년, 여성, 직장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도서관

에 대한 필요 및 요구 파악

- 지역 및 시민요구 분석을 통한 도서관 건립 방향 및 규모·기능 제시
- 시청 신청사 내 도서관 설치 방안

3) 연구 방법

○ 문헌 조사

-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도시계획 등 조사 및 분석
- 순천시 도서관 관련 정책 및 도서관별 운영계획, 운영현황 등 분석
- 정부 정책(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독서진흥기본계획 등)
- 국내·외 문헌 및 통계, 사례 조사
- 관계 법령 검토

○ 현지 조사

- 순천시 각 공공도서관 현장 방문 조사
- 신규 도서관 건립 예정지 답사 및 분석
- 국내 참고 기관 방문 조사

○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집단별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등
- 주요 인사 및 시민 인터뷰
- 전문가 자문회의

Ⅱ. 순천시 주요 현황과 지역 분석

1. 일반 현황
2. 재정 현황

II. 순천시 주요 현황과 지역 분석

1. 일반 현황

1) 연혁

- 순천시는 산천이 아름답고 물산이 풍부하여 인심이 순후하고, 조계산 도립공원과 주암호, 상사호가 어우러진 풍광이 수려한 전원도시임. 전남 동부권의 교육, 교통, 산업, 금융의 중심도시이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을 갖춘 정주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음. 많은 문화유적과 유물, 뛰어난 자연생태 경관을 지닌 문화, 관광의 도시로 알려짐. 또한 수질 1급수 동천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랍사협약에 전국 최초로 등록된 순천만이 있는 청정 환경도시임.

<표1> 순천시 연혁

삼한시대	마한에 속함
삼국시대	백제에 속함, 감평군이라 칭함.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757)에 승평군이라 칭함 - 해읍현(여천), 여산현(돌산), 회양현(광양)등 영치
고려시대	태조 23년(940)에 승주로 승격 충선왕 2년(1310)에 순천부로 강격 - 순천이라는 이름 처음 등장
조선시대	태종 13년(1413)에 순천도호부로 개칭 고종 32년(1895)에 순천군으로 됨 - 남원부 관할 15개군중 제일군
민족 저항기	1931. 11. 1 순천면이 순천읍으로 승격
1949. 8. 14	순천읍이 도사면 9개리와 해룡면 일부(왕지, 조례, 연향)를 편입하여 순천부로 승격하고 그 외 지역은 승주군으로 개칭 동월 15일 순천부가 순천시로 개칭
1995. 1. 1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새로운 「순천시」로 발족, 1읍 10면 16개동으로 운영
1998. 10. 12	용수·영옥·행금을 향동으로, 대평·덕흥·인안을 도사동으로 통폐합. 1읍 10면 12개동으로 운영
2003. 10. 20	왕조동을 왕조1동, 왕조2동으로 분동. 1읍 10면 13개동으로 운영

출처 : 2018 순천시 통계연보

2) 위치

- 대한민국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간 약 38km, 남북간 약 39km로 시의 주변에는 동쪽에서 북-서-남쪽으로 돌아가면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화순군, 보성군, 여수시가 접해있고 남쪽의 일부는 바다에 면하여 있음. 순천만과 광양만 해안선의 총연장은 36km임.
- 순천시는 국토계획공간구조상 광주전남권중 광양만권에 속해 있고, 주요 도시와의 공간적 거리는 순천시청에서 직선거리로 광주광역시와 70km, 목포시와 126km, 여수시와 37km, 광양시와는 12km에 이름.
- 여수시와 광양시에 진입하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과 경상남도를 연결하는 거점이 되고 있음. 동측으로는 광양시, 서측으로는 화순군과 보성군, 남측으로는 여수시, 북측으로는 곡성군, 구례군과 접하고 있음.
- 주요 도로는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순천~완주간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국도 2호선(목포~부산)과 국도 17호선(전주~여수)이 통과하며, KTX 순천역을 지나는 전라선과 경전선을 통해서 여러 도시와 연결된 교통 중심지임. 또한 여수공항이 근처에 있어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음.

3) 지형/지세

- 동측으로 노령산맥의 지류인 백운산맥에 속한 봉화산과, 서북으로는 소백산맥의 자락인 조계산, 비봉산, 남산 등의 크고 작은 산악이 발달한 분지형 도시이며 토질은 화강암, 편마암으로 토심이 깊고, 중성토양으로 침엽수 생육에 적합함.
- 순천만과 접해있는 남쪽지역의 평야는 대체로 비옥한 편이나 평균해수면과 불과 4m 정도의 표고차를 나타내는 저지대로 홍수 시 침수의 위험이 큰 지역임. 산지의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대소 하천의 유역과 해안지역에 발달한 평야는 비옥하며 토심이 깊고 잘 가꾸어져 있어서, 각종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기후

- 순천시의 기후적 특성은 한반도의 남부 내륙에 위치하고 순천만과 인접하고 있어 내륙성기후와 남해안의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음. 연중 온난한 기후분포를 보이며 6월부터 9월까지의 고온다습한 해양성기후를, 동절기에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한랭 건조함.
- 순천시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기온은 12.8℃이며 8월 평균기온이 25.6℃로 가장 높고, 1월 평균기온이 -0.6℃로 가장 낮음. 순천시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강수량은 1,608.7mm이고 7월이 399.6mm으로 가장 높고, 12월이 19.0mm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순천시는 다우지역에 속하나 연간 강수분포가 매우 불규칙하고, 집중강우, 태풍 등에 의한 피해가 큰 지역임.

<표2> 순천시 기후 현황

기상상태	2013	2014	2015	2016	2017
기온-평균 (℃)	12.7	12.6	13.2	13.9	12.7
강수량 (mm)	1,280.4	1,910.8	1,331.5	1,614.7	883.4
상대습도-평균 (%)	69.8	71.0	70.7	68.1	69.9
평균운량 (%)	4.9	5.2	3.2	5.2	4.2
일조시간 (kg/10a)	2,314.3	2,096.7	2,151.6	2,082.9	2,381.8
최심신적설 (cm)	2.0	6.9	...	-	0.4
풍속-평균 (m/s)	1.9	1.8	1.7	1.7	1.8

출처 : 순천시 통계연보 (2018)

5) 행정구역

- 순천시의 행정구역은 총 910.98km²이며 1읍 10면 13개의 행정동과 33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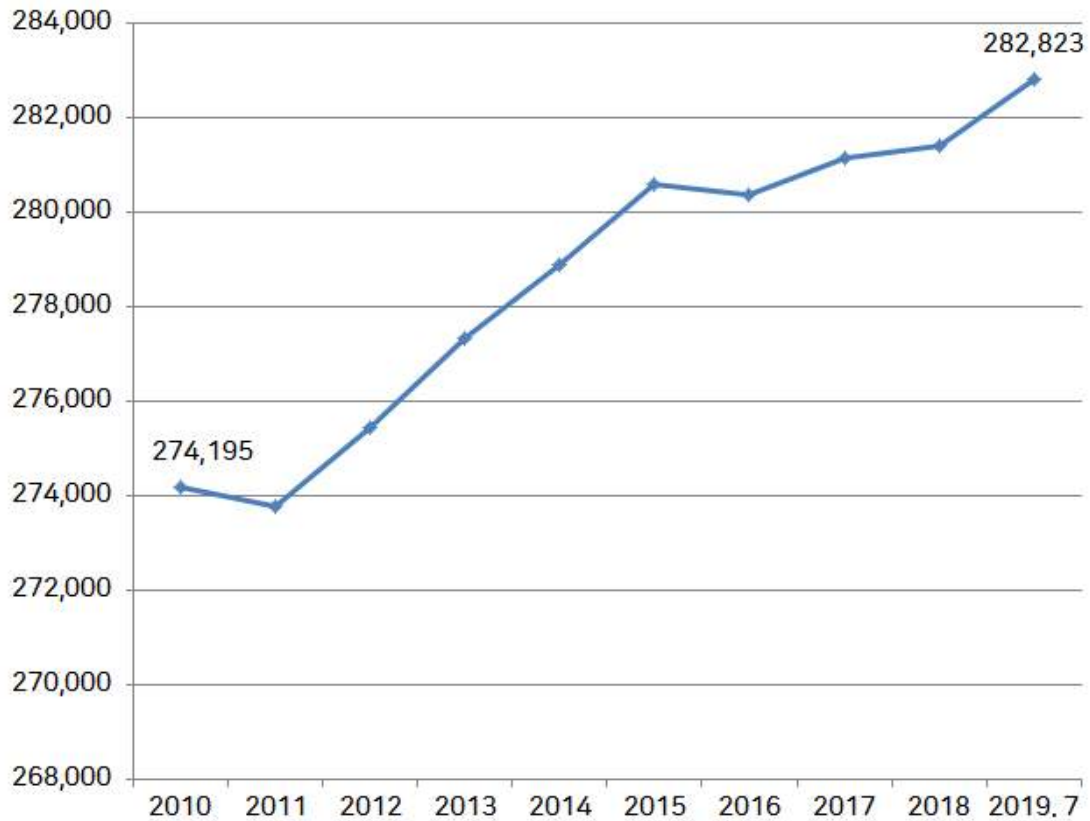
<표3> 순천시 읍면동별 면적과 구성비

행정구역	면적 (km ²)	구성비 (%)
송주읍	93.04	10.21
주암면	93.82	10.30
송광면	109.85	12.06
외서면	35.43	3.89
낙안면	63.1	6.93
별량면	69.65	7.65
상사면	60.31	6.62
해룡면	50.46	5.54
서면	103.56	11.37
황전면	98.82	10.85
월등면	44.28	4.86
향동	18.68	2.05
매곡동	1.43	0.16
삼산동	17.71	1.94
조곡동	2.15	0.24
덕연동	5.11	0.56
풍덕동	2.95	0.32
남제동	2.55	0.28
저전동	0.97	0.11
장천동	0.47	0.05
중앙동	0.49	0.05
도사동	25.47	2.80
왕조1동	9.42	1.03
왕조2동	1.29	0.14
합계	910.99	100.0

출처 : 2018 순천시 통계연보

6) 인구

<그림1> 순천시 인구 변화



자료 : 2018 순천시 통계연보

- 2019년 7월 기준 순천시의 총인구는 282,82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읍면별로 해룡면 신대출장소가 28,425명 9,270세대, 해룡면 상삼출장소가 18,956명 6,942세대 순으로 인구와 세대가 많고, 동별로 덕연동이 46,248명 17,247세대, 왕조1동 41,048명 16,201세대 순으로 많음.

<표4> 순천시 인구 현황

(단위 : 명, 세대)

구분	합계			내국인				외국인		
	인구			세대	인구			인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0	274,195	136,927	137,268	100,273	272,620	136,321	136,299	1,575	606	969
2011	273,805	136,711	137,094	101,471	272,201	136,084	136,117	1,604	627	977
2012	275,451	137,468	137,983	102,713	273,798	136,833	136,965	1,653	635	1,018
2013	277,353	138,333	139,020	104,507	275,668	137,674	137,994	1,685	659	1,026
2014	278,903	138,997	139,906	105,841	277,188	138,325	138,863	1,715	672	1,043
2015	280,594	139,928	140,666	107,871	278,766	139,163	139,602	1,829	766	1,064
2016	280,397	139,729	140,668	109,650	278,548	138,959	139,589	1,849	770	1,079
2017	281,176	139,987	141,189	111,677	279,331	139,167	140,164	1,845	820	1,025
2018	281,402	140,045	141,357	113,942	279,389	139,114	140,275	2,013	931	1,082
2019. 7	282,823	140,858	141,965	115,890	280,735	139,871	140,864	2,088	987	1,101
읍면계	90,537	45,447	45,090	37,912	89,795	45,023	44,772	742	424	318
승주읍	2,823	1,393	1,430	1,530	2,795	1,384	1,411	28	9	19
해룡면	52,281	26,249	26,032	18,607	52,039	26,110	25,929	242	139	103
(해룡면)	(4,900)	(2,561)	(2,339)	(2,395)	(4,752)	(2,460)	(2,292)	(148)	(101)	(47)
(상삼출장소)	(18,956)	(9,374)	(9,582)	(6,942)	(18,885)	(9,347)	(9,538)	(71)	(27)	(44)
(신대출장소)	(28,425)	(14,314)	(14,111)	(9,270)	(28,402)	(14,303)	(14,099)	(23)	(11)	(12)
서면	12,538	6,341	6,197	5,789	12,400	6,257	6,143	138	84	54
황전면	3,082	1,537	1,545	1,678	3,053	1,524	1,529	29	13	16
월등면	1,911	916	995	1,000	1,885	896	989	26	20	6
주암면	3,329	1,680	1,649	1,836	3,249	1,630	1,619	80	50	30
송광면	1,650	870	780	890	1,589	816	773	61	54	7
외서면	918	438	480	540	909	435	474	9	3	6
낙안면	3,407	1,665	1,742	1,745	3,355	1,644	1,711	52	21	31
별량면	5,743	2,907	2,836	2,907	5,691	2,885	2,806	52	22	30
상사면	2,855	1,451	1,404	1,390	2,830	1,442	1,388	25	9	16
동계	192,286	95,411	96,875	77,978	190,940	94,848	96,092	1,346	563	783
향동	3,885	1,913	1,972	1,929	3,867	1,908	1,959	18	5	13
매곡동	5,040	2,549	2,491	2,459	4,760	2,383	2,377	280	166	114
삼산동	24,355	11,903	12,452	9,739	24,185	11,837	12,348	170	66	104
조곡동	6,630	3,324	3,306	2,913	6,602	3,317	3,285	28	7	21
덕연동	46,248	22,947	23,301	17,247	46,034	22,849	23,185	214	98	116
풍덕동	7,977	3,971	4,006	3,660	7,933	3,959	3,974	44	12	32
남제동	9,446	4,806	4,640	4,442	9,362	4,771	4,591	84	35	49
저전동	3,003	1,465	1,538	1,416	2,983	1,457	1,526	20	8	12
장천동	2,572	1,318	1,254	1,557	2,554	1,313	1,241	18	5	13
중앙동	3,324	1,696	1,628	1,753	3,301	1,685	1,616	23	11	12
도사동	18,593	9,384	9,209	7,457	18,442	9,319	9,123	151	65	86
왕조1동	41,048	20,203	20,845	16,201	40,808	20,129	20,679	240	74	166
왕조2동	20,165	9,932	10,233	7,205	20,109	9,921	10,188	56	11	45

출처 : 순천시 시정주요통계 (20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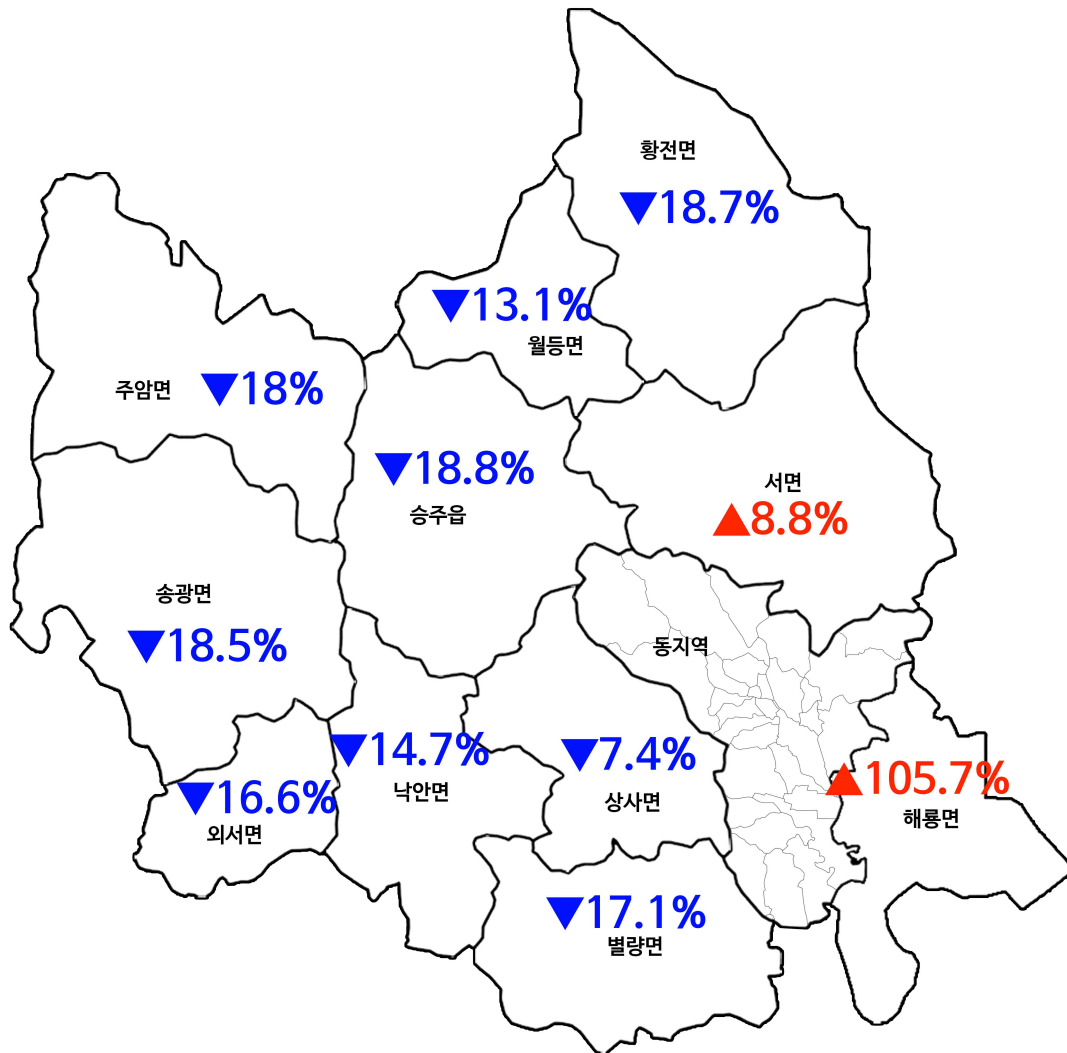
<표5> 행정구역별 인구 변화와 증감률

(단위 : 명, %)

행정구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0	2011 대비
승주읍	3,419	3,310	3,183	3,112	3,039	2,983	2,922	2,825	2,776	-18.8
해룡면	26,285	8,936	13,695	22,533	27,499	28,401	4,917	4,789	4,751	-81.9
(상삼 출장소)	-	19,864	19,516	18,326	18,482	18,593	19,280	18,989	18,567	-6.5
(신대 출장소)	-	-	-	-	-	-	24,202	27,788	30,747	27.0
서면	11,347	12,457	12,986	12,604	12,295	11,988	12,374	12,492	12,350	8.8
황전면	3,730	3,620	3,532	3,445	3,338	3,262	3,153	3,080	3,031	-18.7
월등면	2,152	2,105	2,089	2,031	1,986	1,930	1,927	1,889	1,870	-13.1
주암면	3,944	3,794	3,713	3,642	3,563	3,480	3,422	3,319	3,235	-18.0
송광면	1,932	1,855	1,776	1,721	1,708	1,683	1,640	1,609	1,574	-18.5
외서면	1,085	1,062	1,033	1,011	970	953	936	915	905	-16.6
낙안면	3,901	3,758	3,743	3,628	3,596	3,550	3,485	3,384	3,329	-14.7
별량면	6,800	6,564	6,380	6,243	6,102	6,044	5,907	5,775	5,636	-17.1
상사면	3,072	3,055	3,025	3,017	2,974	2,929	2,883	2,828	2,846	-7.4
향동	5,347	5,233	5,026	4,723	4,564	4,346	4,124	3,922	3,844	-28.1
매곡동	6,940	6,852	6,775	6,371	5,605	5,314	5,064	4,936	4,754	-31.5
삼산동	23,458	23,351	23,556	23,759	23,603	23,393	23,270	22,755	24,216	3.2
조곡동	7,800	7,669	7,650	7,388	7,080	7,035	6,810	6,664	6,555	-16.0
덕연동	51,694	51,651	50,835	49,176	49,530	48,434	47,652	46,446	45,500	-12.0
풍덕동	9,881	9,620	9,375	9,159	8,747	8,553	8,267	8,050	7,887	-20.2
남제동	11,685	11,360	11,214	10,907	10,506	10,065	9,809	9,438	9,308	-20.3
저전동	3,804	3,662	3,520	3,423	3,317	3,207	3,148	3,068	2,982	-21.6
장천동	3,355	3,274	3,235	3,061	2,875	2,815	2,723	2,640	2,542	-24.2
중앙동	4,401	4,286	4,120	4,040	3,906	3,739	3,513	3,332	3,252	-26.1
도사동	9,744	9,572	9,380	9,208	10,795	14,086	17,146	18,359	18,422	89.1
왕조1동	42,813	43,257	42,958	42,155	41,024	40,486	40,021	39,801	40,703	-4.9
왕조2동	23,612	23,631	23,353	22,505	21,661	21,279	20,736	20,296	19,952	-15.5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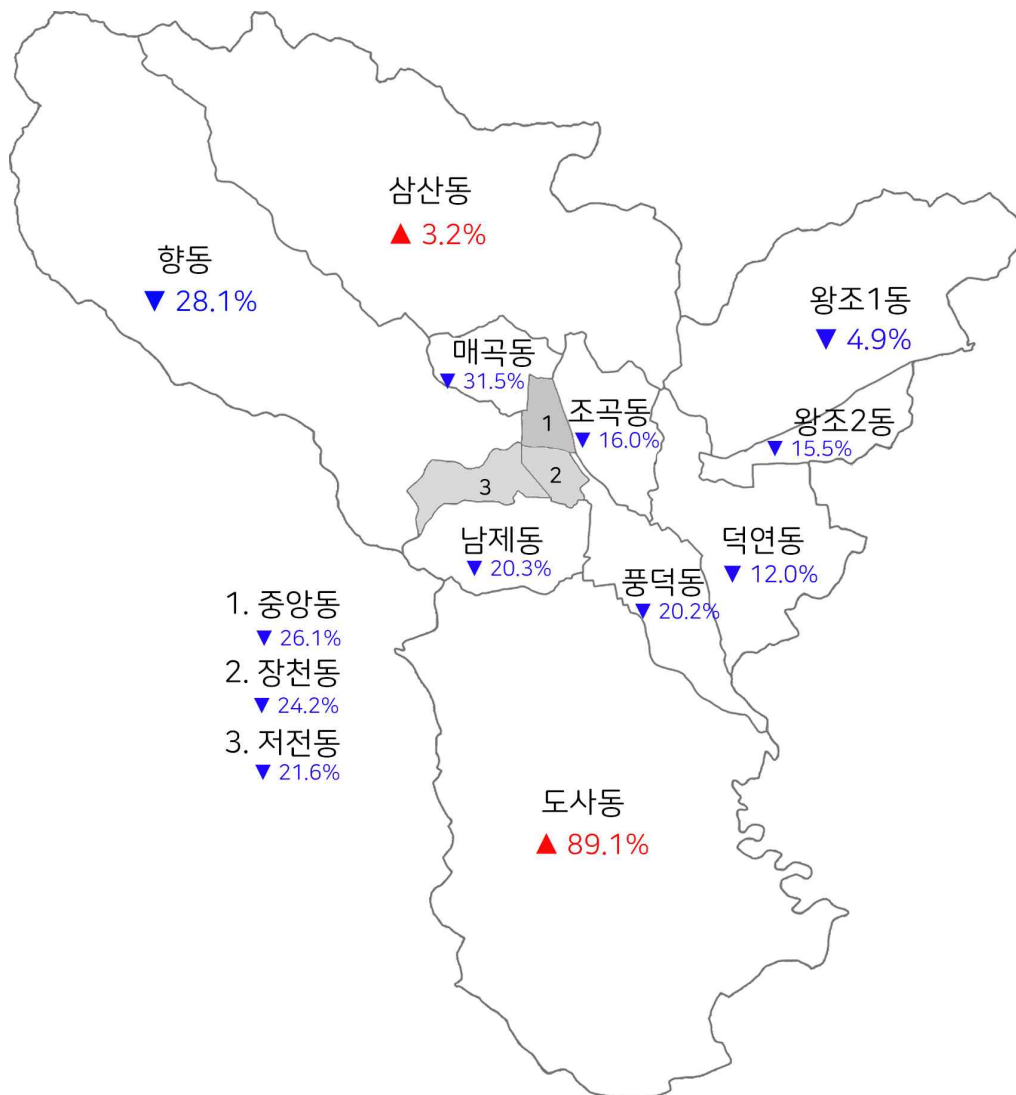
<그림2> 2011년 대비 읍면지역 인구 증감률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상삼출장소와 신대출장소를 제외하면 읍면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한 곳은 해룡면과 서면 두 곳임.
- 상대적으로 도심지와 가까운 상사면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모두 10% 이상 인구가 감소함.

<그림3> 2011년 대비 동지역 행정구역별 인구증감률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 도심지역 인구를 2011년과 비교하면 신대출장소와 삼산동, 도사동만 인구가 증가함. 특히 도사동은 오천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인구가 89.1% 증가함.
- 구도심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임. 특히 매곡동 인구는 2011년에 비해 31.5%가 감소하여 도심지역 중 가장 인구감소율이 높음.
- 90년대 중반 ~ 2000년대 초반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밀집한 덕연동, 왕조1~2동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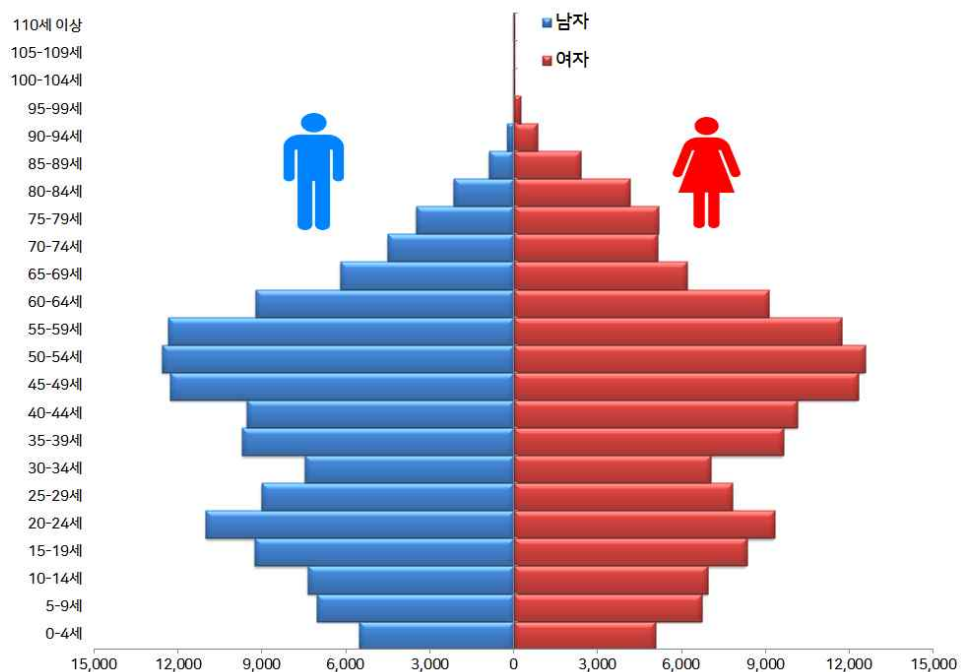
<표6> 연령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총 계	278,765	100	278,548	100	279,331	100	279,389	100
0~4	11,964	4.3	11,684	4.2	11,233	4.0	10,841	3.9
5~9	13,967	5.1	14,024	5.0	13,946	5.0	13,865	5.0
10~14	15,869	5.7	14,905	5.4	14,763	5.3	14,421	5.2
15~19	21,912	7.8	20,826	7.5	19,347	6.9	18,253	6.5
20~24	21,865	7.9	21,633	7.8	21,412	7.7	20,812	7.4
25~29	14,268	5.1	14,768	5.3	15,494	5.5	16,180	5.8
30~34	16,646	6.0	15,973	5.7	15,237	5.5	14,650	5.2
35~39	18,813	6.8	18,854	6.8	19,003	6.8	19,388	6.9
40~44	23,040	8.3	21,934	7.9	21,196	7.6	19,960	7.1
45~49	25,232	9.1	25,308	9.1	25,266	9.0	24,584	8.8
50~54	23,807	8.5	23,738	8.5	23,973	8.6	24,740	8.9
55~59	20,795	7.5	22,332	8.0	23,175	8.3	23,773	8.5
60~64	13,792	5.0	14,608	5.2	15,788	5.7	17,380	6.2
65~69	11,168	4.0	11,721	4.2	11,937	4.3	12,038	4.3
70~74	9,092	3.3	8,839	3.2	8,941	3.2	9,238	3.3
75~79	7,843	2.8	8,149	2.9	8,707	3.1	8,793	3.1
80~84	5,056	1.8	5,435	2.0	5,820	2.1	6,112	2.2
85이상	3,636	1.3	3,817	1.4	4,093	1.5	4,361	1.5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4> 순천시 인구 피라미드 (2019. 8)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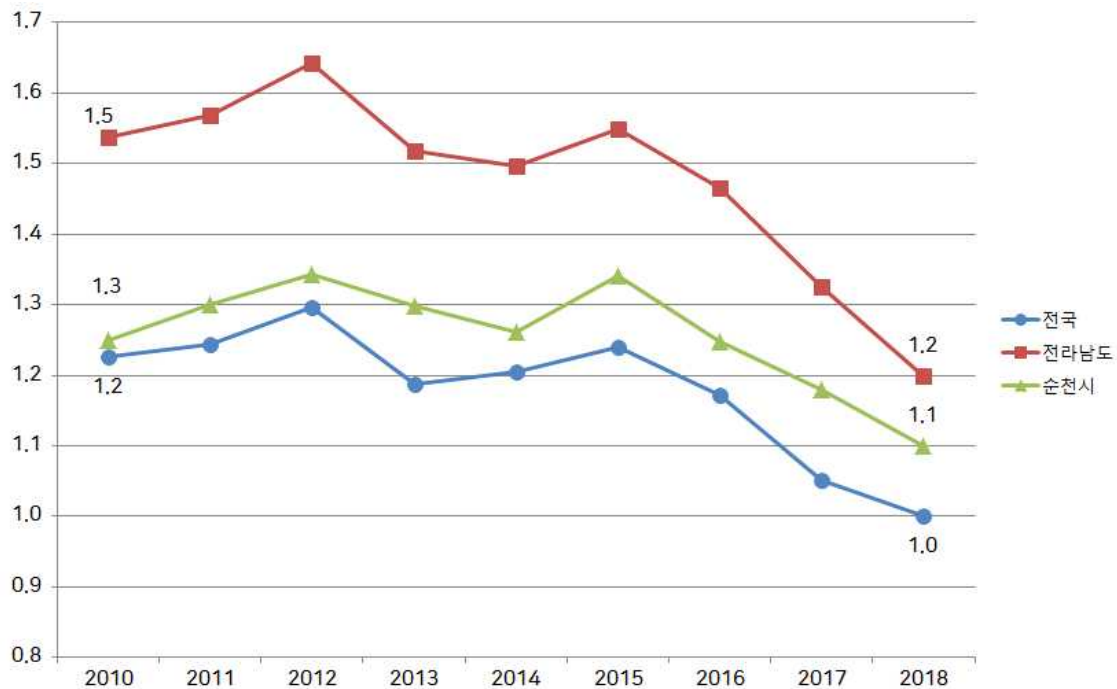
- 연령대별 인구는 4~50대가 많고 영유아가 적어 고령화가 심각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순천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17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함. 출산율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중요한 정책 영역이 될 것임.

<표7> 순천시 출산율 비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1.23	1.24	1.30	1.19	1.21	1.24	1.17	1.05	1.00
전라남도	1.54	1.57	1.64	1.52	1.50	1.55	1.47	1.33	1.20
순천시	1.25	1.30	1.34	1.30	1.26	1.34	1.25	1.18	1.10

출처 : 국가통계포털 KOSIS

<그림5> 순천시 출산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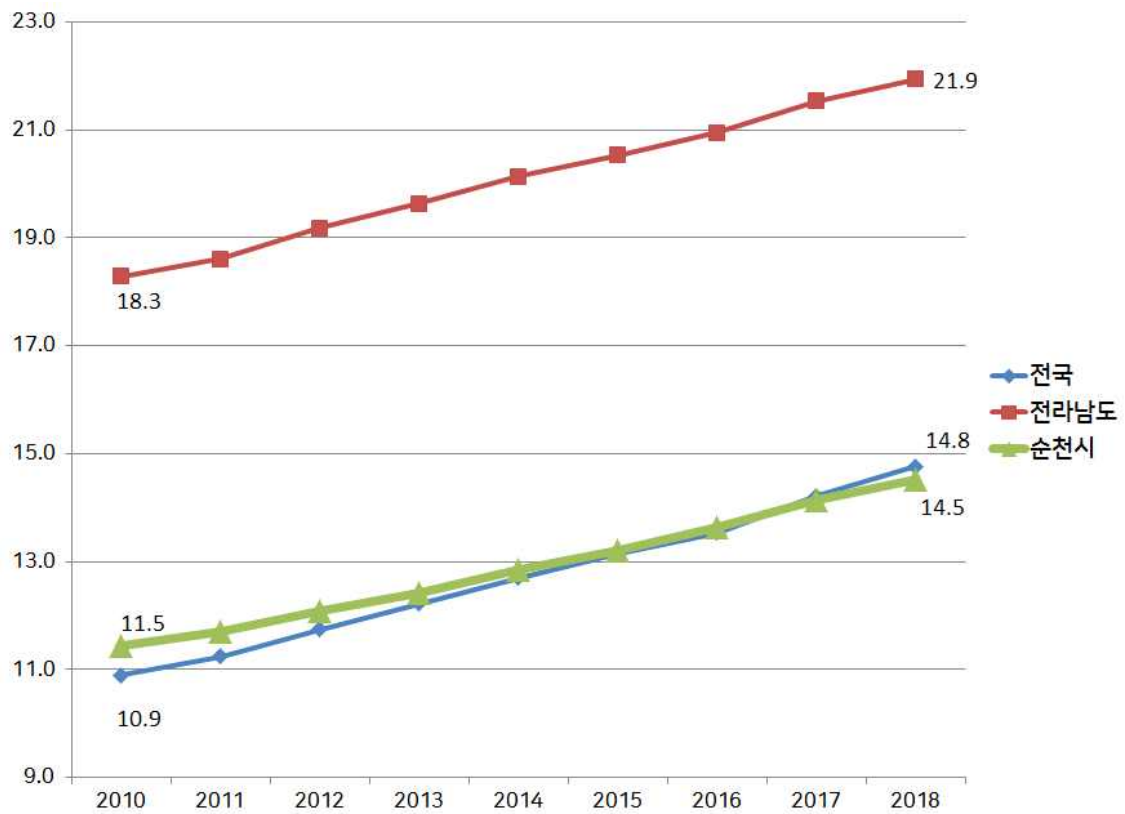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표8>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10.9	11.2	11.7	12.2	12.7	13.2	13.5	14.2	14.8
전라남도	18.3	18.6	19.2	19.6	20.1	20.5	21.0	21.5	21.9
순천시	11.5	11.7	12.1	12.4	12.8	13.2	13.6	14.1	14.5

출처 : 국가통계포털 KOSIS

<그림6>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표9> 전라남도 시·군 고령 인구 비율 (2018)

지역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고령인구 비율	15.0	17.5	14.5	21.7	11.7	29.4	33.9	31.4	38.9	35.9	25.0
지역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고령인구 비율	32.1	32.7	30.3	25.3	20.2	34.2	27.8	28.2	30.6	32.4	33.8

*65세 이상, 외국인 제외

출처 : 전라남도 홈페이지

7) 경제 · 산업구조 현황

가. 가구 단위의 경제능력

<표10> 순천시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

(단위 : %)

연도	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2015	100.0	22.7	15.8	22.5	17.4	9.8	5.1	2.2	4.6
2016	100.0	19.6	15.3	17.8	22.3	10.8	7.0	3.1	4.1
2017	100.0	13.5	24.8	19.5	18.3	10.5	10.8	6.8	2.6
2018	100.0	20.1	16.8	17.5	14.8	9.8	8.5	5.7	6.8

출처 : 2018 순천시 사회조사

<표11> 순천시 연령별 가구소득 분포 (2018)

(단위 : %)

연령	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15~29세	100.0	36.7	31.8	15.4	7.4	2.9	-	2.9	2.9
30~39세	100.0	2.6	9.9	39.6	21.6	14.7	8.7	6.4	6.5
40~49세	100.0	1.7	9.0	16.9	23.4	15.1	16.8	10.5	6.6
50~59세	100.0	5.3	13.6	18.3	17.0	12.1	11.6	7.5	14.7
60~64세	100.0	13.6	33.9	17.6	12.2	7.0	7.0	4.2	4.3
65세~	100.0	62.6	20.7	9.8	3.4	2.5	0.4	-	0.6

출처 : 2018 순천시 사회조사

- 순천시의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이 20.1%로 가장 많음. 중위소득 구간인 300만원 ~ 500만원 미만은 24.6%로 2016년보다 8.5% 하락함.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6.8%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음.
- 연령별로는 중위소득에서 40~49세가 38.5%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36.3%로 비슷함. 100만원 미만은 65세 이상이 62.6%, 15~29세가 36.7% 순으로 높았음. 전체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나. 산업구조 현황 및 변화

<표12>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산업	2017	
	사업체수	종사자수
총계	22,685	98,479
농업, 임업 및 어업 (A)	14	119
광업 (B)	4	29
제조업 (C)	1,294	7,88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4	22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49	652
건설업 (F)	942	9,294
도매 및 소매업(G)	6,163	16,320
운수업(H)	2,252	5,849
숙박 및 음식점(I)	4,598	12,05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77	891
금융 및 보험업 (K)	313	4,841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526	2,2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430	2,49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95	3,24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80	3,766
교육서비스업(P)	1,213	9,23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825	11,46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807	2,590
협회 및 단체, 수리및기타 개인 서비스업(S)	2,689	5,285

출처 : 2018 순천시 통계연보

<표13>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 분	합계				조직형태별			
	사업체	종사자수 (명)			개 인		회사법인	
		합계	남	여	사업체 (개)	종사자 (명)	사업체 (개)	종사자 (명)
2013	19,313	87,508	45,487	42,021	15,808	38,477	1,943	28,419
2014	19,834	88,133	45,748	42,385	16,131	39,181	2,068	28,115
2015	21,046	95,099	50,158	44,941	17,323	40,522	2,073	31,749
2016	22,155	97,670	50,199	47,471	18,097	42,882	2,333	31,040
2017	22,685	98,479	50,181	48,298	18,540	43,273	2,399	31,001

출처 : 2018 순천시 통계연보

<표14> 산업별 사업체수

산업	사업체수 (개)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19,313	19,834	21,046	22,155	22,685
농업, 임업 및 어업	9	11	11	16	14
광업	3	3	3	4	4
제조업	1,025	1,080	1,093	1,190	1,29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5	15	19	19	14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35	37	41	49
건설업	739	805	861	950	942
도매 및 소매업	5,665	5,657	5,938	6,024	6,163
운수업	1,107	1,439	1,944	2,103	2,252
숙박 및 음식점업	4,118	4,215	4,343	4,504	4,59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6	70	81	81	77
금융 및 보험업	286	272	282	302	313
부동산업 및 임대업	490	520	523	591	5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28	345	377	432	43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36	250	266	310	39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1	72	79	82	80
교육서비스업	1,135	1,099	1,167	1,232	1,2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86	719	756	789	82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16	676	652	737	807
기타사업	2,571	2,551	2,614	2,748	2,689

출처 : 2018 순천시 통계연보

- 사업체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전체 2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임.
- 2017년 사업체수는 22,685개, 종사자수는 98,479명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증가하고 있음. 특히 운수업은 2013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2,252개임.

8) 생활환경

가. 주택현황

- 2017년 순천시의 가구 수는 103,704가구, 주택 수는 108,131호임. 주택 보급률은 100.4%로 가구 수와 주택 수 모두 5년간 증가하고 있음.
-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69,740호로 가장 많으며, 2013년에 비해 9,337호가 늘어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함. 단독주택은 34,190호로 2015년에 감소했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표15> 순천시 일반 가구 및 주택 현황

(단위 : 가구, 호)

구분	일반 가구	주택						
		합계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013	95,285	97,924	35,135	5,861	60,403	922	441	1,023
2014	96,619	100,291	35,823	5,953	61,885	1,038	583	962
2015	99,899	102,663	32,496	2,522	65,852	1,270	1,257	1,788
2016	102,224	104,551	33,158	5,984	67,215	1,286	1,389	1,503
2017	103,704	108,131	34,190	6,886	69,740	1,286	1,401	1,514

출처 : 2018 순천시 통계연보

나. 교육

- 유치원 63개교, 초등학교 44개교, 중학교 21개교, 일반계 고등학교 4개교, 특성화 고등학교 3개교, 자율형 고등학교 1개교, 전문대학 2개교, 대학교 1개교, 대학원 5개교, 기타학교 2개교가 있음.
- 2018년 전체 학생 수는 50,971명이며 매년 감소하고 있음. 초등학생이 16,738명으로 가장 많고 유치원생이 3,792명으로 가장 적음.

- 교직원수는 2018년 기준 총 3,126명이며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초등학교 교직원수가 1,093명으로 가장 많고 자율형 고등학교가 76명으로 가장 적음.

<표16> 순천시 교육기관 현황

현황	학교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교수	합계	139	142	145	145	146
	유치원	59	61	63	63	63
	초등학교	42	43	43	43	44
	중 학 교	20	20	21	21	21
	일반계고등학교	4	4	4	4	4
	특성화고등학교	3	3	3	3	3
	자율형고등학교	1	1	1	1	1
	전문대학	2	2	2	2	2
	대 학 교	1	1	1	1	1
	대 학 원	5	5	5	5	5
	기타학교	2	2	2	2	2
학생수	합계	55,946	54,576	53,019	51,666	50,971
	유치원	3,403	3,616	3,812	3,794	3,792
	초등학교	17,167	16,951	16,805	16,662	16,738
	중 학 교	10,864	9,890	9,032	8,531	8,207
	일반계고등학교	3,690	3,563	3,473	3,255	2,934
	특성화고등학교	1,714	1,631	1,535	1,510	1,430
	자율형고등학교	1,255	1,175	1,140	1,050	943
	전문대학	5,304	5,280	5,133	5,238	5,327
	대 학 교	11,100	11,005	10,742	10,311	10,311
	대 학 원	972	972	892	864	852
	기타학교	477	493	455	451	437
교직원수	합계	3,012	3,071	3,053	2,987	3,126
	유치원	312	357	342	306	406
	초등학교	1,058	1,076	1,074	1,069	1,093
	중 학 교	677	649	633	624	643
	일반계고등학교	263	258	268	263	261
	특성화고등학교	141	146	150	148	149
	자율형고등학교	72	79	81	79	76
	전문대학	94	94	93	93	93
	대 학 교	318	318	323	322	323
	대 학 원	-	-	-	-	-
	기타학교	77	94	89	83	82

*대학원 교직원 수는 대학교에 포함

출처 : 2018 순천시 통계연보

2. 재정 현황

1) 재정 현황

○ 2017년 순천시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3581억원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9년 현재 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5.0%, 재정자주도는 65.7%임. (세입과목개편 전)

※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재정자주도는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함.

○ 인구 30만 명 내외의 다른 지자체 평균과 비교하면 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4.4%가 낮고 재정자주도는 4.8%가 높음.

<표17> 순천시 재정규모 및 구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세입			세출			잉여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2011	908,413	771,658	136,755	923,162	784,076	139,086	734,678	627,701	106,977	188,484	156,374	32,109
2012	960,100	800,462	159,638	980,816	820,232	160,584	791,138	669,782	121,356	189,678	150,450	39,228
2013	961,016	817,391	143,625	1,037,172	837,390	199,782	789,122	688,661	100,461	248,049	148,729	99,320
2014	1,073,367	850,665	222,702	1,065,858	862,790	203,068	813,147	676,815	136,332	252,710	185,975	66,735
2015	1,152,429	924,919	227,510	1,165,405	934,788	230,617	846,540	739,059	107,481	318,864	195,729	123,135
2016	1,221,444	982,438	239,006	1,254,726	1,016,519	238,207	920,210	800,752	119,458	334,516	215,767	118,749
2017	1,358,108	1,117,288	240,820	1,371,922	1,129,740	242,182	1,010,749	889,552	121,197	361,173	240,188	120,985

출처 : 2018 순천시 통계연보

<표18> 유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비교 (2019)

(단위 : %)

지역	평균	순천	군산	춘천	여수	익산	아산	달성군
재정자립도	30.6	25.0	21.6	26.9	36.8	18.7	40.9	39.1
재정자주도	60.9	65.7	56.1	66.7	65.0	57.2	56.9	63.4

*세입과목개편전 기준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구조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표19> 순천시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결산		예산 대 결산비율 (%)
	계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2013	817,391	100	837,390	100	102.4
2014	850,665	100	862,790	100	101.4
2015	924,919	100	934,788	100	101.1
2016	982,438	100	1,016,519	100	103.5
2017	1,117,288	100	1,129,740	100.0	101.1
지방세	125,140	11.2	130,436	11.5	104.2
세외 수입	57,294	5.1	61,030	5.4	106.5
지방교부세	387,077	34.6	391,315	34.6	101.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064	2.1	24,585	2.2	106.6
보조금	306,181	27.4	306,556	27.1	100.1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18,532	19.6	215,818	19.1	

출처 : 2018 순천시 통계연보

- 2017년 순천시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1,297억원으로 2016년보다 1,132억원 증가함.
- 세입 분야는 지방교부세가 34.6%로 가장 많고 보조금이 27.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2,185억원으로 19.1%를 차지함.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표20> 순천시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결산		예산 대 결산비율 (%)
	계	구성비 (%)	계	구성비 (%)	
2013	817,391	100.0	688,661	100.0	84.3
2014	850,665	100.0	676,815	100.0	79.6
2015	924,919	100.0	739,059	100.0	79.9
2016	982,438	100.0	800,752	100.0	81.5
2017	1,117,288	100.0	889,552	100.0	79.6
일반공공행정	104,568	9.4	74,500	8.4	71.2
공공질서및안전	41,022	3.7	22,689	2.6	55.3
교육	41,350	3.7	31,539	3.5	76.3
문화및관광	88,992	8.0	67,983	7.6	76.4
환경보호	40,852	3.7	33,815	3.8	82.8
사회복지	271,692	24.3	256,250	28.8	94.3
보건	20,010	1.8	14,031	1.6	70.1
농림해양수산	120,005	10.7	104,400	11.7	87.0
산업중소기업	27,556	2.5	20,529	2.3	74.5
수송및교통	87,038	7.8	64,396	7.2	74.0
국토및지역개발	116,263	10.4	82,319	9.3	70.8
과학기술	-	-	-	-	-
예비비	39,464	3.5	-	-	-
기타	118,476	10.6	117,101	13.2	98.8

출처 : 2018 순천시 통계연보

- 2017년 현재 순천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8,89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가 2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각각 11.7%, 9.3%를 차지함.

3) 2019년 본예산 현황

- 2019년 순천시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조 1,591억원으로 일반회계 9,818억원(84.70%)과 특별회계 1,773억원(15.30%)으로 구성됨.

<표21> 순천시 본예산 (2019)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강률
합계		1,159,153,701	1,127,010,634	2.85%
일반회계		981,840,385	928,836,568	5.71%
특별회계		177,313,316	198,174,066	△10.53%
	공기업특별회계	154,120,385	160,460,264	△3.9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736,970	32,744,965	△0.0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5,105,877	63,525,040	△13.2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6,277,538	64,190,259	3.25%
	기타특별회계	23,192,931	37,713,802	△38.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94,000	207,000	42.0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952,719	6,081,581	30.7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865,013	4,008,519	△3.58%
	수질개선특별회계	6,947,224	9,161,431	△24.17%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623,075	5,682,493	△36.2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10,900	501,330	1.91%

출처 : 순천시 홈페이지

-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전체적으로 2.85% 증가했으며 일반회계에서 5.17% 증가, 특별회계에서 10.53% 감소했음.
-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5.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0.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참고자료 - 지방소멸에 대한 예측

① 지방소멸 / 마스다 히로야

- 마스다 히로야는 20-39세의 일본 여성인구의 동향을 분석한 인구재생산력지표를 통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소멸가능성을 제시하였음.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감소 추이로 볼 때, 2040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896개(49.8%)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저출산, 초고령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 ※ 국가주요지표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밀도는 16,245명으로 도쿄의 인구밀도 6,158명보다 높고,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1.001명으로 도쿄의 1.15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KOSIS e-지방지표, 도쿄도청 홈페이지, 일본 내각부 ‘Current Status of Countermeasures to the Declining Birth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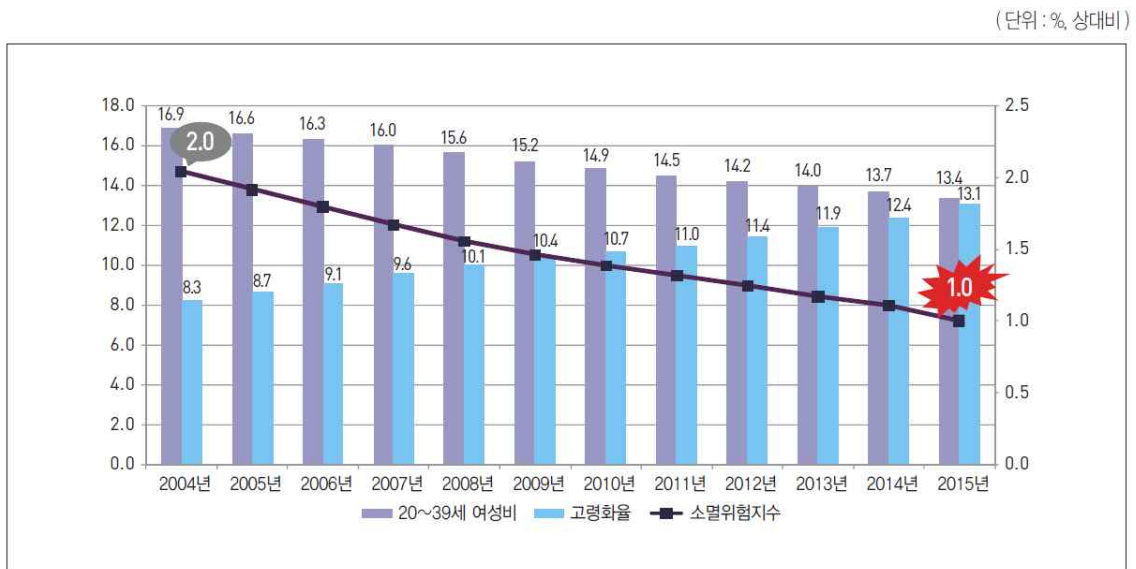
②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 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2016)

- 이상호는 마스다 히로야의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39세 여성인구’의 비율이 10% 이하인 79개 시군구는 소멸 위험이 높다고 예측함.

- ‘20-39세 여성인구’의 비중이 전체인구의 10% 미만인 지자체는 2004년 6개에서 2014년 77개로 증가하였고,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자체는 2014년 78개(34.2%)임.

- ※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함.

<그림7> 연도별 소멸위험지수 변화



주: 2014년 이전은 KOSIS 주민등록연앙인구이며, 2015년은 행자부 2015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 수치임

출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이상호, 2016)

-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지표의 상대비가 2.0에서 1.0으로 감소하는데 걸린 시간이 10년으로, 일본의 16년, 미국의 21년보다 짧음. 상대비가 1.0 이하로 떨어져 폭이 크면 클수록 인구소멸의 위험이 커짐.

③ 한국의 지방소멸 2018(한국고용정보원, 2018)

-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구변화, 가임인구변화, 고령인구변화 등의 지표를 토대로 시·군·구별 인구변화와 소멸예상지역을 분석함.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13~'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함.
-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을 뜻함. 소멸위험지수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 정도는 아래 표와 같음.

<표22> 소멸위험지수에 따른 소멸 위험 정도

명칭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소멸위험 보통		1.0 ~ 1.5 미만
주의단계		0.5 ~ 1.0 미만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 0.5 미만
	소멸고위험 지역	0.2 미만

출처 :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2018)

-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 (32.9%)에서 '18년 89개(39%)로 증가함.
- 특히 강원 철원군(0.480),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6)와 김천시(0.496)는 '18년에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됨. 이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냄.

<표23> 연도별 소멸위험 시군구 수

	'13. 7	'14. 7	'15. 7	'16. 7	'17. 7	'18. 6.
전체 시군구 수	228	228	228	228	228	228
소멸저위험	41	30	24	20	16	12
보통	57	63	62	61	54	51
소멸주의단계	55	56	62	63	73	76
소멸위험진입	73	76	76	79	78	78
소멸고위험	2	3	4	5	7	11
소멸위험지역 소계	75	79	80	84	85	89
소멸위험지역 비율	32.9	34.6	35.1	36.8	37.3	39.0

출처 :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2018)

- 순천시의 2018년 6월 지방소멸지수는 0.851로 소멸주의단계에 해당함. 2013년 1.023 이후 매년 0.03 ~ 0.05 정도 하락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라면 약 10년 후 순천시도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임.

<표24> 연도별 순천시 소멸위험지수

‘13년 7월	‘14년 7월	‘15년 7월	‘16년 7월	‘17년 7월	‘18년 6월
1.023	0.986	0.943	0.917	0.880	0.851

출처 :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2018)

④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는 정주성을 높여 인구유출을 막고, 청년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여 일정 수준으로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과제임.
- 정주성의 핵심 키워드는 의료, 교육, 문화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

Ⅲ. 순천시 도서관 현황

1. 공공도서관 현황
2. 순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Ⅲ. 순천시 도서관 현황

1. 공공도서관 현황

1) 일반 현황

가. 순천시 공공도서관 연혁

- 1968. 5. 10 순천시립도서관 개관(순천시 남내동, 구 황금백화점)
- 1977. 12. 30 이설계획에 의거 구 가내공업센타로 임시 이관
- 1980. 7. 19 중앙도서관 (현 그림책도서관) 개관(도서관길 33)
- 1991. 12. 30 순천시립도서관 증축 준공
- 1992. 8. 25 시내 아파트 지역 이동도서관 최초 운영(25인승)
- 1997. 12. 5 연향도서관 준공
- 1998. 1. 22 연향도서관 개관 (연향변영길 54)
- 1998. 6. 2 순회문고 운영(지체장애인1급 가정방문 도서대출 시작)
- 2002. 1. 21 연향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개관
- 2003. 2. 15 전국 제1호 기적의도서관 건립지역으로 선정
- 2003. 3. 28 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영상음향강의실 개관
- 2003. 4. 15 연향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1, 2호차 운영
- 2003. 11. 10 기적의도서관 개관
- 2003. 12. 1 연향도서관 『어린이실』 확장(리모델링) 개실
- 2004. 4. 21 기적의도서관 건축물 기부채납(책읽는사회→순천시)
- * 2006. 12. 17 제1회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우수지역건물(100선)
기적의도서관/ 행정자치부장관
- 2007. 8. 20 파란달구지 개관 운영
- 2007. 12. 28 중앙관 전체 리모델링
- 2008. 1. 30 한옥글방 개관
- 2008. 11. 28 기적의도서관 별관 증축
- * 2008. 12. 12 전국도서관평가(연향도서관, 기적의도서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2009. 11. 17 풍덕글마루도서관 개관

- * 2009. 11. 26 도서관 유공(순천시 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장
- * 2009. 12. 30 작은도서관 유공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2010. 02. 25 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상 / 한국도서관협회
- 2010. 3. 12 조례호수 도서관 개관
- 2010. 4. 30 해룡 농어촌 도서관 개관
- 2011. 10. 27 순천 시립도서관 (현 삼산도서관) 개관 (중앙로 232)
- 2014. 1. 2 연향도서관 재개관(리모델링)
- 2014. 1. 6 순천시립도서관 삼산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 2014. 4. 25 그림책도서관(구 중앙도서관) 개관 (도서관길 33)
- 2015. 12. 26 조례호수도서관 열람실 증축 및 장난감 도서관 설치
- * 2016. 10. 11 대한민국 책읽는 지자체 대상 / 국민독서진흥회
- 2017. 1. 16 신대도서관 임시 개관 (해룡면 매안로 162)
- 2017. 3. 17 신대도서관 정식 개관
- * 2017. 10. 24 2017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 국가브랜드진흥원
- * 2018. 10. 11 2018 대한민국 책읽는 지자체 대상 / 국민독서진흥회

나. 순천시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표25> 순천시 공공도서관 시설 규모

구 분	명 칭	부지(㎡)	연면적(㎡)	좌석수(석)	개관일
계	8개관	50,205	17,094	2,337	
1	삼산도서관 (중앙로232)	26,160	5,021	552	2011. 10. 27.
2	그림책도서관 (도서관길 33)	5,276	2,204	175	2014. 4. 25. (1980. 7. 19)
3	연향도서관 (연향변영길 54)	6,333	4,114	663	1998. 1. 22.
4	기적의도서관 (기적의도서관길 60)	4,204	1,836	380	2003. 11. 10.
5	조례호수도서관 (조례2길 361)	4,950	2,320	299	2010. 3. 12.
6	신대도서관 (매안로 162)	1,837	778	150	2017. 1. 16.
7	해룡농어촌도서관 (해룡로 1120)	1,276	618	98	2010. 4. 30.
8	풍덕글마루도서관 (풍덕1길 52)	169	203	20	2009. 11. 17.

출처 :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자료

- 순천시의 공공도서관은 2019년 현재 총 8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순천시에서 직영하고 있음.
- 순천시 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2018년 기준 34,924명으로 전국 평균 (47,287명)보다 도서관이 많다고 할 수 있음.
- 시민 1인당 장서 수는 2.36권 (작은도서관 제외)으로, 전국 평균 2.15권 보다 많고 전남 평균보다 약 1권 적음.

<표26> 지역단위별 공공도서관 현황 비교 (2018)

지역	도서관 수 (관)	1관 당 인구수 (명)	1인당 장서 수 (권)
순천시	8	34,924	2.36
전남	69	27,289	3.3
한국	1,096	47,287	2.15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자료

- 인구 30만 명 내외의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도서관 1관당 인구수, 시민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는 양호한 편임.
- 그러나 정규직 사서 1인당 서비스 인구수는 13,969명으로 비교 도시 중 가장 많음. 이는 순천시의 사서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뜻함.

<표27> 인구 30만 명 내외 도시 공공도서관 지표 비교 (2018)

지역	총인구 (명)	공공 도서관 (개)	1관당 인구 (명)	1인당 장서 (권)	사서 1인당 서비스 인구(명)	시민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원)	1관당 대출자 수(명)
순천	279,389	8	34,924	2.36	13,969	1,862	11,413
군산	272,204	6	45,441	1.74	13,632	1,048	9,182
춘천	280,640	10	28,064	2.64	7,385	1,646	10,520
여수	283,300	7	40,471	2.94	12,877	1,303	32,992
익산	294,062	7	42,009	2.91	13,366	1,432	6,759
아산	312,822	7	44,689	2.17	10,787	1,991	37,072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순천시 제공자료

2) 인력 현황

○ 2018년 말 순천시 공공도서관 직원 수는 총 47명으로, 사서직 20명, 행정직 7명, 기타직 2명, 공무원직은 18명임.

○ 사서는 총 20명으로 각 도서관에 2~4명 규모로 배치되어 있음.

<표28> 순천시 공공도서관 인력 현황 (2018)

구 분	소계			사서직			행정직			기타직			공무원직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계	47	13	34	20	5	15	7	6	1	2	2	0	18	0	18
운영지원	5	3	2	3	2	1	1	1	0	0	0	0	1	0	1
도서관정책	3	2	1	2	1	1	1	1	0	0	0	0	0	0	0
시정자료	3	3	0	0	0	0	2	2	0	1	1	0	0	0	0
삼산	5	1	4	2	0	2	1	1	0	0	0	0	2	0	2
그림책	7	1	6	3	0	3	1	1	0	0	0	0	3	0	3
연향	7	2	5	2	1	1	0	0	0	1	1	0	4	0	4
기적	6	1	5	4	1	3	0	0	0	0	0	0	2	0	2
조례호수	6	0	6	2	0	2	1	0	1	0	0	0	3	0	3
신대	5	0	5	2	0	2	0	0	0	0	0	0	3	0	3

출처 :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자료

3) 자료 현황

- 2018년 현재 순천시 공공도서관 전체 장서는 699,554권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29> 순천시 공공도서관 연도별 장서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580,979	594,247	551,604	597,479	625,830	659,193	666,463	699,554
삼산도서관	68,328	90,411	105,757	126,196	137,463	148,114	126,300	148,039
그림책도서관	167,873	175,603	127,294	136,403	135,778	132,348	132,209	119,037
연향도서관	179,437	155,563	144,350	148,660	152,645	159,161	162,720	168,191
기적의도서관	77,658	75,816	76,182	77,467	82,408	86,934	91,692	96,177
조례호수도서관	56,262	62,009	60,395	68,717	73,986	78,545	83,290	88,188
신대도서관	-	-	-	-	-	8,790	21,925	29,626
해룡농어촌도서관	19,772	22,347	24,074	25,157	27,362	28,676	30,591	32,690
풍덕글마루도서관	11,649	12,498	13,552	14,879	16,188	16,625	17,736	17,606

※ 비도서, 전자자료 제외

출처 :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자료

- 2018년 도서구입 예산은 총 523,713천원으로, 매년 5억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표30> 순천시 공공도서관 연도별 도서구입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465,363	459,831	478,248	583,488	523,713
삼산도서관	146,332	193,690	157,864	108,764	107,524
그림책도서관	20,840	48,776	102,220	102,524	90,055
연향도서관	116,014	70,862	74,622	72,171	75,486
기적의도서관	61,907	56,114	58,275	59,000	65,291
조례호수도서관	103,818	64,947	67,836	64,789	68,866
신대도서관	-	-	-	161,240	89,229
해룡농어촌도서관	16,452	25,442	17,431	15,000	27,262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표31> 순천시 정보취약계층별 인구 (2019. 9)

(단위 : 명, %)

구분	총인구	다문화	장애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노년층 (65세 이상)
순천시	283,227 (100)	4,505 (1.5)	15,954 (5.6)	8,297 (2.9)	41,924 (14.9)

출처 : 시정통계연보, KOSIS 국가통계포털

<표32> 순천시립도서관 대체자료 보유 현황 (2018)

구 분	합계	점자도서	다문화도서	큰글자도서
계	8,011(573)	1,679(-)	4,805(290)	1,527(283)
삼산도서관	1,979(261)	513(-)	199(-)	1,267(261)
그림책도서관	53(-)	-	53(-)	-
연향도서관	1,181(-)	622(-)	491(-)	68(-)
기적의도서관	608(-)	333(-)	275(-)	-
조례호수도서관	353	211(-)	129(-)	13(-)
신대도서관	72(22)	-	-	72(22)
해룡농어촌도서관	3,765(290)	-	3,658(290)	107(-)
풍덕글마루도서관	-	-	-	-

*()안은 당해연도

출처 :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자료

- 2018년 전체 공공도서관 이용자수는 790,144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대출권수는 1,514,670권으로 2011년에 비해 약 21% 감소하였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33> 순천시 공공도서관 연도별 이용자수 및 대출권수

(단위 : 명, 권)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이 용 자	1,080,904	1,032,192	702,977	840,441	778,911	782,087	832,446	790,144
	대출권수	1,908,291	1,904,876	1,651,688	1,700,402	1,571,414	1,488,320	1,559,151	1,514,670
삼산 도서관	이 용 자	14,854	167,069	226,376	183,297	178,533	173,313	148,788	153,903
	대출권수	22,382	340,885	439,822	415,281	401,502	378,777	334,725	335,538
그림책 도서관	이 용 자	296,036	147,869	107,907	42,615	39,729	37,776	41,745	39,631
	대출권수	285,869	174,248	121,958	24,692	21,963	17,178	15,252	16,782
연향 도서관	이 용 자	407,266	369,706	17,821	286,627	283,402	300,138	283,926	222,047
	대출권수	484,825	357,234	42,494	314,082	319,782	346,365	301,932	236,643
기적의 도서관	이 용 자	147,905	165,235	159,866	151,533	125,456	105,660	95,252	72,288
	대출권수	583,079	590,940	611,753	540,776	472,820	388,004	302,688	258,975
조례호 수도서 관	이 용 자	199,040	165,968	164,978	143,430	133,086	131,094	126,444	127,536
	대출권수	503,278	399,015	398,828	354,222	310,080	286,140	273,711	269,847
신대 도서관	이 용 자	-	-	-	-	-	-	103,518	142,914
	대출권수	-	-	-	-	-	-	256,116	313,593
해룡 농어촌 도서관	이 용 자	15,803	16,345	13,879	20,261	12,765	19,361	17,338	11,764
	대출권수	28,858	42,554	19,438	33,372	32,508	40,218	38,547	38,073
풍 덕 글마루 도서관	이 용 자	-	-	12,150	12,678	5,940	14,745	15,435	20,061
	대출권수	-	-	17,395	17,977	12,759	31,638	36,180	45,219

출처 :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자료

- 2019년 10월 현재 순천시립도서관 등록회원 수는 143,783명으로, 전체 시민의 51.1%임. 그러나 타 도시 전출 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회원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 연령대별 회원 비율은 20~30대가 가장 높으며 이 연령대에서 멀어질수록 회원 비율이 낮아짐.
- 60대 이상 노인인구는 60,787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이지만, 단 2.1%만이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했음.

<표34> 5세 인구별 순천시립도서관 회원 비율 (2019. 10)

(단위 : 명)

연령	인구수	회원수	회원비율
05세 이하	10,544	199	1.9%
06~10세	13,827	1,600	11.6%
11~15세	14,336	5,870	40.9%
16~20세	17,433	12,744	73.1%
21~25세	20,328	19,816	97.5%
26~30세	17,010	19,111	112.4%
31~35세	14,573	14,148	97.1%
36~40세	19,314	15,386	79.7%
41~45세	19,721	13,549	68.7%
46~50세	24,449	13,716	56.1%
51~55세	25,197	10,218	40.6%
56~60세	24,015	6,093	25.4%
61~65세	18,665	2,592	13.9%
66~70세	12,523	1,890	15.1%
71세 이상	29,599	1,385	4.7%
미상		5,466	1.9%
합계	281,534	143,783	51.1%

※ 미상 : 생년월일 잘못 기재

출처 : 순천시 제공자료

2. 순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1) 작은도서관 설치 현황

○ 순천시의 작은도서관은 2018년 현재 6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5개관은 휴관 중임.

<표35> 순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2018)

번호	도서관명	개관 년도	면적 (㎡)	열람석	장서수 (권)	이용자수 (명)	대출자수 (명)
1	신성폴꽃	2004	92.562	20	4,791	1,379	319
2	조곡자치	2004	91.13	25	6,194	3,348	2,249
3	생목벽산	2004	254	41	14,263	2,052	1,574
4	송촌글마루	2004	110	30	8,908	7,408	4,207
5	상사용암	2004	56.1	30	7,306	3,411	3,121
6	동신별빛	2005	82.11	30	10,671	4,333	1,906
7	해룡소안	2005	69	30	5,172	4,396	3,546
8	남제자치	2005	70	30	7,374	4,425	2,015
9	주암광천	2005	169.2	70	11,341	921	104
10	서면자치	2005	35	35	5,907	2,151	2,629
11	가곡옹달샘	2007	143.5	17	10,239	4,625	4,692
12	해룡호두	2005	66	15	5,025	2,025	659
13	조례금호	2005	82	20	6,787	4,496	2,027
14	우성반딧불	2005	82	10	7,535	3,179	1,624
15	매곡자치	2005	49.587	20	6,131	5,809	2,793
16	왕조2자치	2006	71	24	8,463	9,406	2,695
17	풍덕금호	2006	66.2	40	6,780	5,701	992
18	대대순천만	2006	85.95	48	7,720	6,408	1,494
19	연동대주	2007	122	60	10,310	6,812	3,539
20	주암운룡	2007	36	20	6,464	3,196	894
21	송주꿈꾸는	2007	90	16	4,481	3,816	202
22	하날다래	2007	67	35	8,327	7,565	4,818
23	저전자치	2007	21.8	20	4,769	2,519	791
24	삼산푸르미	2007	102.9	50	6,060	6,129	2,852
25	해룡성산	2007	75	24	4,487	3,812	1,093
26	대주피오레	2007	148	30	10,762	9,263	5,712
27	대주생각나무	2008	183.85	60	8,299	6,940	909
28	신원푸른숲	2008	122	20	7,583	5,002	2,108

번호	도서관명	개관 년도	면적 (㎡)	열람석	장서수 (권)	이용자수 (명)	대출자수 (명)
29	별량침산	2008	87	12	6,784	5,021	623
30	조례열린	2009	89.5	10	6,050	3,694	2,551
31	장천작은나무	2009	85	30	7,077	11,924	1,253
32	호반1차파랑새	2009	108	50	8,305	4,980	2,054
33	호반2차꿈꾸는	2010	81	27	6,734	6,517	3,234
34	봉화호롱불	2010	133	35	6,844	4,971	2,077
35	대주2차푸른솔	2011	105	16	5,989	4,465	1,440
36	흑두루미	2012	154	50	6,675	4,560	2,534
37	서면배들꿈나래	2013	122	20	9,167	7,498	3,115
38	책이랑	2006	62.8	16	4,948	7,202	12,853
39	롯데캐슬나눔	2012	507.13	100	10,079	12,358	5,343
40	두산위브행복	2013	206.14	67	11,500	6,600	5,496
41	글마루	2013	350.96	23	8,341	22,357	5,788
42	신이나	2016	138	34	4,953	9,631	7,609
43	생태회랑	2015	93.6	40	6,694	10,192	5,493
44	도담	2014	402	172	3,568	4,260	2,836
45	메가드림	2016	94.8	60	7,008	12,808	4,458
46	라송센트럴카운티	2015	83	52	5,165	6,101	4,016
47	그루터기	2015	82.5	32	7,700	800	1,064
48	호반베르디움	2016	193.3	48	3,715	612	498
49	한울타리	2016	218.2	45	2,662	134	463
50	히어리꽃	2016	102.4	30	3,900	500	500
51	대광교회	2014	63	10	7,650	612	-
52	후마니타스	2015	101	12	3,812	245	-
53	나눔의 집	2017	109.2	16	3,957	214	45
54	골드	2017	134.5	16	3,735	2,775	2,653
55	풍덕	2014	142	80	1,500	2,210	-
56	리채	2017	68.7	22	2,204	626	161
57	센트럴	2018	145.23	30	3,000	-	-
58	더힘스쿨	2018	100	30	2,000	-	-
59	향기나는	2018	71	12	2,030	6,672	40
60	남양휴튼	2013	24	24	2,000	-	-
61	별량구룡	2005	51	22	3,500	휴관	
62	황전황월	2005	42	12	2,000	휴관	
63	월등송천	2008	83	25	5,110	휴관	
64	대주파크빌	2018	120	20	1,500	휴관	
65	송광주민자치	2009	108	20	4,510	휴관	

출처 :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자료

<표36> 작은도서관 유형별 현황 및 2012년 대비 증감

구 분	합계	아파트	주민센터 및 공공시설	농촌 공동시설	교회 및 기타
2012	46	19	13	10	4
2019	65	36	14	9	6
증감	+ 19	+ 17	+ 1	- 1	+ 2

출처 :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자료

- 순천시 작은도서관은 2012년에 비해 총 19개소가 증가했음. 그 중 17개가 아파트 도서관으로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자연 증가함.

2)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표37> 순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장서량 (권)	이용자수 (명)	대출권수 (권)	프로그램	
				운영횟수(회)	참여인원(명)
총계	404,515	291,066	139,761	10,196	90,239
1개소 평균	6,233	4,477	2,150	156	1,388

출처 : 2018 순천시 도서관 운영 현황

- 2018년 순천시 작은도서관의 전체 장서량은 404,515권으로 2011년에 비해 82% 증가했으며, 1개소당 평균 6,233권을 보유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 전체 이용자수는 291,066명으로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그러나 대출권수는 2014년 332,917권으로 가장 많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에는 139,761권으로 2014년에 비해 58% 감소함.
- 순천시 작은도서관의 2018년 전체 프로그램 운영횟수는 10,196회로 2011년에 비해 3.8배 증가함.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90,239명으로, 마찬가지로 2011년에 비해 3.8배 증가함.

- 작은도서관 이용자수와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증가하지만 대출권수가 감소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이 독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냄.

<표38> 순천시 작은도서관 연도별 운영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장서량	222,329	235,112	225,971	236,931	250,495	258,310	382,862	404,515
이용자수	139,580	248,951	220,154	230,915	226,043	209,108	307,594	291,066
대출권수	130,567	294,917	317,695	332,917	316,173	223,751	152,610	139,761
프로그램 운영횟수	2,689	5,272	5,388	8,345	8,380	8,353	10,649	10,196
프로그램 참여인원	23,463	44,502	48,213	77,371	73,126	69,444	88,765	90,239

출처 : 2018 순천시 도서관 운영 현황

IV. 순천시 도서관 사업 내용과 평가

1. 2012 ‘순천시 책읽기 혁명 프로젝트’ 제안
2. 순천시의 주요 도서관 사업
3. 순천시 도서관의 과제

VI. 순천시 도서관 사업 내용과 평가

1. 2012 ‘순천시 책읽기 혁명 프로젝트’ 제안

- 2003년 순천기적의도서관 개관 이후 순천시는 ‘도서관 도시’임을 표방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도서관정책으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며, 도서관 관계자 및 정책 담당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왔음.
- 공공도서관 건립과 작은도서관 지원, ‘원 시티 원 북’과 북스타트 등 독서진흥 프로그램 도입 등 도서관 관련 사업이 증가하는 동시에,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와 요구도 함께 증가함.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도서관·독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함.
- 2012년 4월 2일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사단법인 책과도서관문화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순천시 도서관·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긴급 과제를 제시함.
 - 전문가, 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중장기 도서관 정책 수립
 - 낙후시설 개보수, 작은도서관 재배치 등 행정적·재정적 투자 확대
 - 시민을 위한 독서 정보 제공을 위해 충분한 사서 인력 확충
-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2012년 12월 ‘순천시 책읽기 혁명 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순천시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안함.

<표39> 2012 '순천시 책읽기 혁명 프로젝트' 제안 내용

미래상	정책영역과 목표	정책 과제
‘책읽는 도시 순천’ -문화도시 -교육도시 -경제도시 -복지도시 -생태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정책 시민의 창조력이 발휘되는 도서관과 독서문화	-시민 독서실태 지표 개선 -생활권에 따른 공공도서관 확충 -도서관 서비스 전문 인력 확충 -순천시 통합도서관시스템 완성 -기적의도서관 활성화 -적정수의 작은도서관 개발과 운영지원 -책읽기의 시민 생활화 추진 -책읽는도시 순천'의 전국 모델화 추진
	*독서교육환경 지원정책 순천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것이 자랑스러운 도서관과 독서문화	-초중고 학교도서관 개선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 -독서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책날개’, ‘청소년 북스타트’
	*기업/산업정보서비스 지원정책 지식기반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도서관, 시민의 창의력을 계발하는 독서문화	-기업지원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 -중소기업/특화산업 정보네트설치와 운영지원 -농업 지원 도서관 -도서관을 통한 창업/경영 카운슬링 제공 --도서관을 통한 취업 정보, 교육, 상담 지원
	*주민 웰빙개발 지원정책 도농 균형발전과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도서관과 독서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육아지원, 어르신의 행복감 향상을 위한 도서관과 독서문화	-육아의 사회적 지원: 북스타트 확대 -소외계층 자녀의 교육/학습 기회 확대: 도서관 서비스 개선 -읽기부진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도서관의 복합문화 프로그램 강화: 문화복지 확대 -다문화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 -어르신책읽어주기봉사단 조직, 확대 -도서관을 통한 주민 친밀공동체 구축과 사회참여 자극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가는 도서관문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생태문화와 결합한 도서관

2. 순천시의 주요 도서관 사업

1)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가. 공공도서관 건립

- 순천시는 독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꾸준히 건립해 왔음. 2014년 노후하고 이용률이 낮아진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그림책도서관을 개관했고, 신대지구 개발에 따라 2017년에는 신대출장소 3층에 신대도서관을 개관함.
- 신대지구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및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19년 현재 신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오천지구에도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나. 작은도서관 지원

- 순천시는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보충하고 주민생활권에 따라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개소 및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음. 2012년에는 작은도서관 1개소당 연간 86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9년에는 1,5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함. 순천시의 작은도서관 예산은 2012년 4.8억원에서 2019년 11.5억원으로 2.4배 증가함.

<표40> 순천시 작은도서관 현황 비교

연도	총개소수	시비지원	1개소당 지원금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	총장서량 (비도서포함)
2012년	46개소	34개소	860만원	4.8억원	197,065점 (2011년말)
2019년	71개소	56개소	1,500만원	11.5억원	404,515점 (2018년말)

출처 :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제공자료

- 이러한 노력으로 순천시는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됨. 특히 기적의도서관에서 다년간 자원활동을 해온 주민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활약하기도 하여 순환구조를 형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 통합도서관시스템 확대

- 순천시는 통합도서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11년에 공공도서관 6개관과 작은도서관 46개소의 도서, 회원, 전산 통합작업을 실시, 2012에 완료하였음. 그러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8개 시립도서관에서만 상호대차를 실시함.
- 2017년부터 시범적으로 신대지구 작은도서관에 상호대차를 확대함. 통합도서관시스템 완성을 위해 2019년에는 순천시립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을 KOLAS III에서 K·LAS3.0으로 교체하였고, 2020년부터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순천의 모든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실시할 예정임.

2) 독서문화 진흥

가. 원 시티 원 북

- ‘원 시티 원 북(한 도시 한 책)’ 운동은 북스타트, 아침독서운동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독서운동 중 하나임. 북스타트와 아침독서운동이 영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한 책’은 한 지역의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 지역사회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책읽기를 통해 토론한다는 점에 다르다. 또 성인 독서 인구를 도서관 주변으로 이끌어 내고 개인적인 취미활동으로 치부되던 독서를 공동체적 활동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음.(「우리나라 ‘한 도시 한 책’ 운동 선정도서 분석」, 우윤희 외, 2014.)
-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했고 국내에는 2003년 충남 서산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함.
- 순천시는 국내 도입 초기인 2004년부터 ‘원 시티 원 북’ 사업을 실시함. 순천시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독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음.
- 2015년까지는 한 권의 책만 선정하다가 2016년부터 2018년에는 성인/청소년/어린이 도서를 분리하여 선정함. 2019년에는 다시 연령대 구분 없이 한 권을 선정함.
- 후속 프로그램으로 독서감상문 대회, 독서감상화 그리기 대회, 저자 초청 강연 등을 실시함.

<표41> 순천시 원 시티 원 북 연도별 선정도서

연도	선정도서		
	일반	청소년	어린이
2004	<등대> 임철우		
2005	<스무살 어머니> 정채봉		
2006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안미란		
2007	<연어> 안도현		
2008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아		
2009	<나무> 이순원		
2010	<재미> 한상복		
2011	<삼십년 뒤에 쓰는 반성문> 김도연		
2012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2013	<청춘불패> 이외수		
2014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최재천		
2015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 배병삼		
2016	<엄마인문학> 김경집	<열일곱 살의 인생론> 안광복	<멀쩡한 이유정> 유은실
2017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	<우리들의 찝조름한 여름날> 오채	<엄마 사용법> 김성진
2018	표현해야 사랑이다 <이민규>	<내일은 내일에게> 김선영	<무적수첩> 김미애
2019	<세상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최원형		

출처 : 순천시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나. 북스타트

-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비영리단체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임.
- 북스타트는 아기들의 지역 도서관, 보건소, 동사무소 등에서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함. 그림책을 매개로 아기와 부모가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통해서만 길러지는 소중한 인간적 능력들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북스타트의 역할임.
- 북스타트 단계
 - 북스타트 : 6개월 ~ 18개월
 - 북스타트 플러스 : 19개월 ~ 35개월
 - 북스타트 보물상자 : 36개월 ~ 취학 전
- 순천시는 2004년에 북스타트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음. 순천기적의도서관 중심으로 북스타트 자원활동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왔음.
- 순천시는 2014년에 기적의도서관에 북스타트부모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기적의도서관을 순천시 북스타트의 거점화함. 이에 따라 순천시 전체 북스타트 프로그램 및 자원활동모임 운영을 기적의도서관에서 총괄함.

<표42> 순천시 북스타트 운영 현황 (2018)

프로그램명	대상	횟수	참여인원	강사
북스타트 데이	6~18개월	27	1,983	이매경 외
북스타트 플러스	19~36개월	48	404	윤혜경 외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교육	성인	6	192	박해미 외
맘(mom)편한 콘서트	성인	1	48	허은정 트리오
합계		81	2,579	

출처 :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제공자료

다. 인문학 프로그램

- 순천시는 시민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하고 인문·정신문화를 확산 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음.
- 청소년 인문학 강좌, 기업 CEO 대상 인문학 강좌, 생태인문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호응도 좋음.
- 다만 프로그램이 대부분 강의 중심인 점은 아쉬운 부분임.
- ※ 사회적으로는 공유와 소통, 협력을 통한 배움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는 추세임.

<표43> 순천시 연도별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현황

연도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인원 (명)
2014	2014년 청소년 인문학 학교, 겨울방학 인문학 특별강좌, 직장인 책읽기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928
2015	2015년 청소년 인문학 학교, 길 위의 인문학, 시민 인문학, 어린이 인문학의 날, 유쾌한 인문학, 인문독서 아카데미, CEO와 리더 인문학 학교	1,156
2016	길위의 인문학, 꿈꾸는 인문학, 독서논술 인문학, 부모 인문학, 생태인문학, 시민 인문학, 인문독서 아카데미, 인문학 독서토론과 논술, 인문학 강독, 소설로 읽는 철학‘소피의 세계’, 청소년 인문학 학교, 인문고전과의 만남, CEO와 Leader 인문학	6,279
2017	길위의 인문학, 꿈꾸는 인문학, 독서논술 인문학, 생태인문학, 시로 여는 생태인문학, 시민인문학, 영화인문학, 인문독서아카데미, 인문학 독서토론과 논술, 인문학 글쓰기와 논리쑥쑥!, 인문학 강독, 인문학 SEED, 인문학 논리논술 키우기, 찾아가는 직장인 인문학, 청소년 인문학 학교, CEO와 Leader 인문학	8,165
2018	녹색인문이야기, 독서논술인문학, 시민인문학, 영화 인문학 산책, 영화인문학교실, 인문독서아카데미, 인문학 독서 토론과 논술, 인문학 SEED, 인문학강독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청소년인문학, 커피인문학교실, 찾아가는 생태인문학, CEO와 Leader 인문학	6,507

출처 : 순천시 도서관 운영과 제공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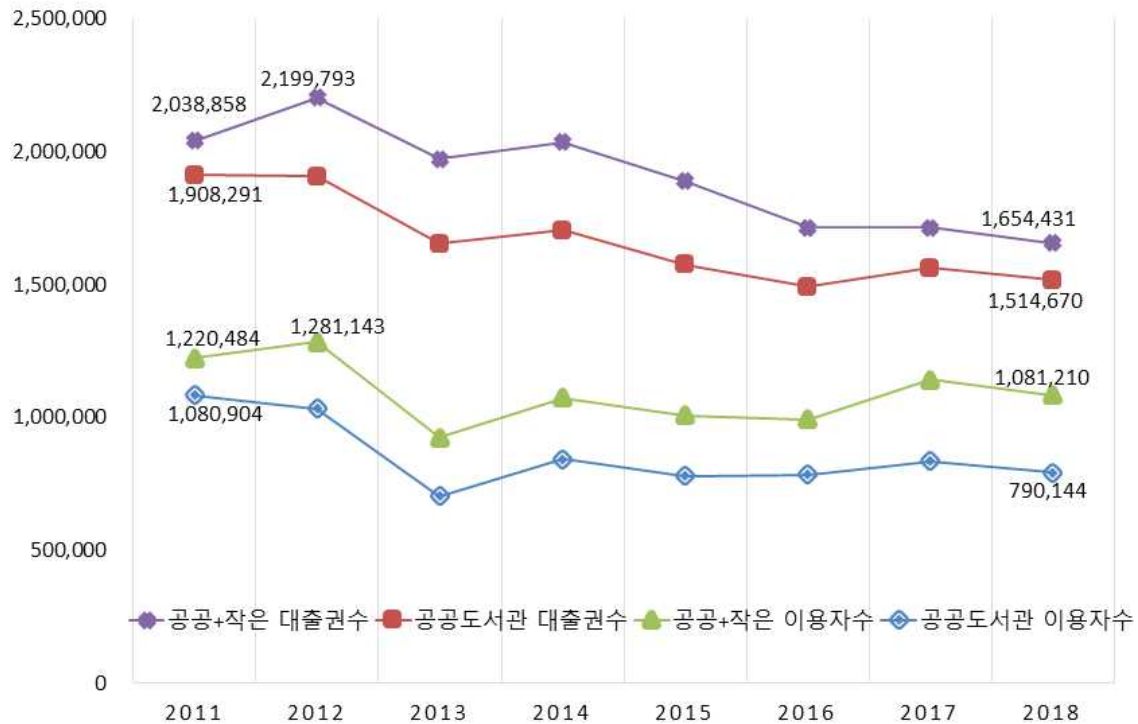
라. 도서구입비 지원

- 순천시는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역서점과의 상생을 위해 ‘전시민 좋은책 도서지원사업’과 ‘청년 꿈 찾기 도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전시민 좋은책 도서 지원사업’은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순천시민이 지역서점에서 추천도서를 구입하면 정가의 30%(시 20%, 서점 10%)를 지원하는 사업임.
- ‘청년 꿈 찾기 도서 지원사업’은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만19~39세 순천시민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정가의 50%(시 40%, 서점 10%)를 지원하는 사업임.
- 두 사업 모두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역서점 활성화에 성과를 내고 있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 특히 책과 급격히 멀어지는 20~30대에게 추가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면서 청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있음.

3. 순천시 도서관의 과제

1) 도서관 이용지표 하락

<그림8> 순천시 도서관 이용자수 및 대출권수 변화



자료 :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제공

<표44> 순천시 연도별 전체 도서관 이용자수 및 대출권수

(단위 : 명, 권)

연도	공공+작은 이용자수 (A+C)	공공+작은 대출권수 (A+D)	공공도서관 이용자수 (A)	공공도서관 대출권수 (B)	작은도서관 이용자수 (C)	작은도서관 대출권수 (D)
2011	1,220,484	2,038,858	1,080,904	1,908,291	139,580	130,567
2012	1,281,143	2,199,793	1,032,192	1,904,876	248,951	294,917
2013	923,131	1,969,383	702,977	1,651,688	220,154	317,695
2014	1,071,356	2,033,319	840,441	1,700,402	230,915	332,917
2015	1,004,954	1,887,587	778,911	1,571,414	226,043	316,173
2016	991,195	1,712,071	782,087	1,488,320	209,108	223,751
2017	1,140,040	1,711,761	832,446	1,559,151	307,594	152,610
2018	1,081,210	1,654,431	790,144	1,514,670	291,066	139,761

출처 :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제공자료

- 도서관 및 독서에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도서관 이용지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2018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전체 이용자수는 1,081,210명으로 2010년대 중 가장 많았던 2012년 1,281,143명에 비해 약 16% 감소함. 작은도서관 이용자수는 증가한 반면 공공도서관 이용자수는 크게 감소함.
- 2018년 전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대출권수는 1,654,431명으로 2010년대 중 가장 많았던 2012년 2,199,793명에 비해 25% 감소함.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모두 대출권수가 감소하는 추세임.
- 프로그램 수와 참가자 수는 늘었지만, 이 결과가 시민의 독서문화를 증진시키고 있는지는 미지수임. 시립도서관 사서들과 작은도서관 운영자들 인터뷰에서 도서관 프로그램은 “하는 사람들만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즉 도서관 적극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간극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도서관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큰 과제임.
-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도 도서관 콘텐츠의 핵심은 여전히 ‘자료’와 ‘정보서비스’임. 도서관 대출권수 및 자료 이용을 증진시키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

2) 부족한 전문인력

- 순천시 도서관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관련 사업도 늘어난 반면, 전문인력은 충분히 충원되지 않고 있음. 순천시 전체 사서 수는 늘었지만, 도서관별로는 여전히 사서수가 부족함.
- 2018년 순천시의 정규직 사서 1인당 서비스 대상 인구는 13,969명으로, 전국 평균인 10,815명보다 약 3천 명이나 많음.
- 부족한 사서 수는 도서관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시민

들이 도서관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시립도서관 사서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대부분의 사서들은 시립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함.
- 순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도서관 특성화 역시 인력 문제가 핵심 과제임. 각 도서관별 사서 1~2명이 배치된 상황에서는 기본 업무밖에 수행하기 어려움.
- 소외계층 대상 서비스 및 보편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육 지원, 산업 지원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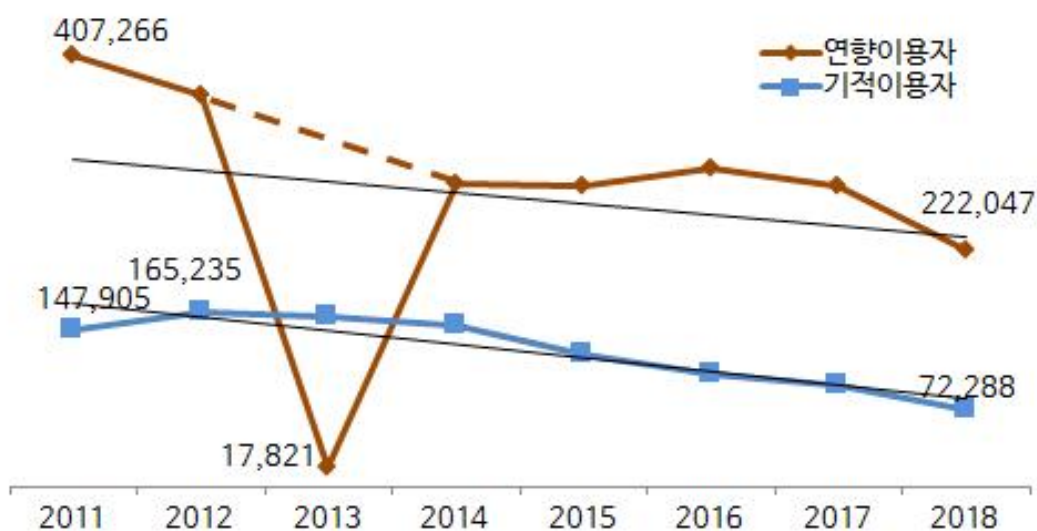
3)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은 순천시의 도서관문화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성장해왔음. 작은도서관은 동네의 사랑방이자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시민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순천시는 작은도서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음. 작은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음. 순천시의 지원과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 작은도서관 수도 매년 증가해왔음.
-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밀집하여 서비스 권역이 중복되고 있음. 일부 도서관은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필요한 자원이 소모되기도 함.
-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운영 편차가 큰 것도 과제임. 농어촌지역의 작은도서관은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보완하여 지역의 사랑방이자 문화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농어촌지역 및 문화소외지역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 및 공립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도서관

- 원도심 및 금당·연향·왕조지구 인구 감소는 도서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도 달라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순천시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및 양육자를 위한 서비스, 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
- 기적의도서관의 서비스 권역이라 할 수 있는 상삼출장소와 왕조2동의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두 지역 합계 인구는 2010년 44,090명에서 2018년 39,285명으로 4,806명 감소함. 특히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10년 11,797명에서 2018년 6,510명으로 45% 감소함.
- 지역 유소년 인구가 절반 가까이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도서관인 기적의도서관 이용자수도 급감했음. 2010년대 중 가장 이용자가 많았던 2012년에 1,65,235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72,288명으로 56% 감소함.

<그림9> 기적의도서관과 연향도서관 이용자 변화



※ 2013년 3~12월 연향도서관 리모델링으로 휴관 출처 :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제공자료

- 연향도서관이 위치한 덕연동의 인구는 2010년 52,526명에서 2018년 46,446명으로 6,080명 감소함. 연향도서관의 이용자수는 2011년

407,266명에서 2018년 222,047명으로 45% 감소함.

- 도서관 주 이용자층인 어린이·청소년·30~40대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도서관을 덜 이용하는 5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도서관 이용자수 감소의 주 원인임.

<표45> 덕연동 인구 변화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인구	52,526	51,694	51,651	50,835	49,176	49,530	48,434	47,652	46,446
0~4세	2,525	2,491	2,394	2,284	2,088	2,073	1,971	1,793	1,607
5~9세	3,683	3,295	3,223	3,041	2,776	2,723	2,623	2,487	2,327
10~14세	5,179	4,827	4,467	4,106	3,677	3,317	2,980	2,859	2,702
15~19세	5,428	5,257	5,133	4,906	4,633	4,615	4,286	3,890	3,551
20~24세	3,729	3,798	4,047	4,189	4,227	4,420	4,311	4,194	4,046
25~29세	3,006	2,936	2,831	2,781	2,767	2,822	2,880	3,007	3,022
30~34세	3,261	3,287	3,203	3,177	2,938	2,879	2,765	2,582	2,439
35~39세	4,705	4,374	4,232	3,843	3,512	3,323	3,233	3,153	3,073
40~44세	5,274	5,087	5,066	4,861	4,495	4,402	4,037	3,779	3,363
45~49세	5,163	5,031	4,984	4,941	4,833	4,809	4,720	4,622	4,390
50~54세	4,125	4,427	4,584	4,667	4,660	4,680	4,617	4,547	4,580
55~59세	2,251	2,483	2,761	3,074	3,305	3,740	3,966	4,144	4,240
60~64세	1,350	1,502	1,672	1,728	1,848	2,123	2,272	2,549	2,832
65~69세	935	901	966	1,070	1,208	1,321	1,408	1,528	1,586
70~74세	769	800	876	899	860	867	871	915	1,014
75~79세	575	574	566	607	641	652	707	781	807
80~84세	365	384	391	384	411	439	439	448	479
85~89세	148	175	185	200	215	232	236	259	266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은 도서관서비스 확충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함.

V. 순천시 도서관정책 환경 분석

1.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
2.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19 ~ 2023)
3.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 ~ 2023)
4. 종합 분석

V. 순천시 도서관정책 환경 분석

1.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

1) 개요



- 순천시는 2030년까지의 장기 도시발전 계획을 담은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을 2016년에 발표함.
- 순천시 도시계획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 순천시 비전과 시정목표 및 상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시 미래상을 “정원을 품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행복하고 건강한 순천”으로 정함.
- 세부 목표로는 “미래의 가치를 키우는 정원 생태관광 중심도시”, “시민 모두가 배우고 참여하는 교육 문화예술 중심도시”, “시민이 도시를 만들어 가는 소통 복지 안전 중심도시”를 설정함.
- 이러한 미래 계획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돌입한 인구 구조에 대응하여 정주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민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음.

2) 목표 및 추진전략

계획 목표	키워드	추진 전략
미래의 가치를 키우는 정원 생태관광 중심도시	정원 생태 관광 에너지	미래의 가치를 키우는 정원도시계획 수립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리방안 마련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완성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연계할 통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이미지 정립
		시민참여, 에너지공유 등을 통한 에너지도시 자립기반 구축
시민 모두가 배우고 참여하는 교육 문화예술 중심도시	교육 문화예술 도서관 일자리	시민참여 평생학습 추진으로 신 교육도시 완성
		시민모두가 배우고 참여하는 문화예술이 꽃피우는 순천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책 읽는 인문 순천, 도서관도시 완성
		노인과 청년 등 각계 각층이 함께 일하는 다양한 일자리 마련
시민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소통 복지안전 중심도시	만족 복지 안전 행복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만족순천 실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인과 장애인, 여성의 소외됨 없는 따뜻한 복지 순천
		우리의 아이들과 시민이 안전한 도시 순천
		주민주도 도시재생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

-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① 지역 생태환경 자원과 생태도시 이미지를 부각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② 교육, 문화, 일자리, 복지 등 정주 여건을 확대하며 ③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음.

3)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의 도서관정책

- “책 읽는 인문 순천, 도서관 도시” 완성

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개선
 - 사서, 프로그램 설계, 개발자 충원 등 인적 인프라 확충
 - 교류연담생활권은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므로 중규모급의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
 - 신규 개발사업시 공공도서관 부지확보계획 적극 검토
- 생활권별 대표도서관 지정 및 조성을 통해 도서관 이용성 개선
- 도서관 서비스 전문 인력 확충
 - 도서관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를 통한 인력 충원
-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 간 연계서비스 구축으로 순천시 통합시스템 완성
 -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간의 상호연계를 통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대학 구성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
- 적정수의 작은도서관 개발과 운영지원
- 책 읽기의 시민 생활화 추진
 - 토론강좌 운영, 독서토론 리더양성과정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독서동아리 신규 구성 및 모집
 - 독서·도서관 관련 정보 포털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강좌, 프로그램, 행사 등 순천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 설치 사업을 순천시가 선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화
 - 내실있는 작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서관행제 도입 추진

- ※ 도서은행제 : 순천시 전체 도서관 보유 도서를 DB화하고 도서관별 순환 배치해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주민에게 더 많은 도서 보급

나. 청소년 독서교육 지원 정책 강화

- 초·중고 학교도서관 개선
 - 학교도서관의 공간 및 장서의 질, 전담 인력의 직무능력 개선
- 독서교육 프로그램 지원: ‘책날개’ 사업 확대와 ‘청소년 북스타트’ 도입
 - ‘책날개’와 ‘청소년 북스타트’를 도입하여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접한 아이들이 정규교육과정을 거치면서도 계속 책을 좋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 청소년 북스타트는 청소년들에게 책 꾸러미를 전달, 교직원 독서교육 연수, 학부모 연수, 청소년 독서동아리 활동 유도 및 지원, 노인·영유아 대상 책읽어주기 봉사 등으로 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성숙할 수 있도록 유도

다. 기업지원 정책 강화

- 기업지원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
- 중소기업/특화산업 정보네트워크 설치와 운영지원
 - 중소기업 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문제점 해결과 발전 방향을 제시
- 농업지원 도서관 운영
 - 농민들의 교육과 다양한 지원으로 새로운 작물과 농업 브랜드 개발 등으로 인해 농가 소득의 증가로 연결
 - 친환경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농업 지원 도서관 필요
- 도서관을 통한 창업/경영 카운슬링 지원

라. 주민 독서 환경조성 활성화 등 책 읽는 도시 만들기

- 독서 소외계층 지원
 - 책과 도서관을 접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독서소외계층을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
 - 독서장애인을 위한 독서지도, 택배를 이용한 도서 배달 서비스 제공
 - 거점병원 미니문고를 설치하여 입원자와 가족들의 독서활동 지원
- 다문화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어르신 책 읽어주기 봉사단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활동지원
-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여 작가와의 만남, 독서교육, 멘토·멘티와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 운영
- ONE CITY ONE BOOK 추진
 -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토론하여 토론 문화 정착 및 시민 소통행정 추진

마. 생태도시 이미지에 맞는 도서관 조성

- 순천만국가정원/생태문화와 결합한 도서관 운영
 -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시정목표에 따라 정원·생태와 결합한 도서관 문화를 창출
 - 정원박람회 이후 지속적인 생태-도서관 문화의 유지 발전을 도모

<표46> 문화시설 전망

구분	2013	2015	2020	2025	2030	비고
공연장	2	2	2	2	2	1개소/16만
도서관	6	7	7	8	8	1개소/4만

출처 :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

2.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19 ~ 2023)

1) 비전과 정책 방향



2) 핵심과제 및 추진과제

전략방향	핵심과제	추진과제
01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확대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온라인 개방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서비스 강화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02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체계 구축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대학도서관 지식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03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정보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정보 및 매체이용 교육 강화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공간의 개방성 확대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사회서비스와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0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도서관 사서 인력의 지속적 확대
		사서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도서관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도서관 국제교류의 강화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오픈액세스(open access) 체계 구축 및 확대
		디지털 자료의 확대 지속
	도서관 인프라 확대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 제2차 계획이 도서관 확충과 서비스 확대 등 팽창 위주의 계획이었다면, 제3차 계획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을 강조하고, 도서관서비스의 확장을 통해 정보복지를 실현하려는 점, 운영체계 등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점 등이 특징임.
- 핵심과제와 추진과제에 있어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기초를 이어 받고 그것을 더욱 구체화하고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추가함.

3.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 ~ 2023)

1) 정책 기조

정책기조 : 5대 의제(Agenda)

① 사회적 독서 ② 포용적 독서복지 ③ 생활 속 맞춤독서
④ 미래 독서 생태계 ⑤ 독서정책 협력 체계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① 개인적 읽는 행위 중심과 소유 ② 선별적 독서 기회 ③ 가끔 읽는 간헐적 독서 ④ 전통적 양적, 종이책 독서 중심 ⑤ 법적 기반 미흡한 분산된 체계	① 함께하는 사회적 독서와 공유 ② 보편적인 포용적 독서복지 ③ 일상화된 생활 속 독서 ④ 질적, 디지털 융복합 독서 ⑤ 제도화·지속가능한 협력체계
아젠다의 여건 및 수요	추진방향
01. 사회적 독서 ▪개인적 읽는 행위 중심 독서 ▪개인역량과 공동체 문화 수요 ▪소유에서 공유로의 사회적 경제 ▪고령자 및 1인 가구 증가	01. 사회적 독서 ▪독서공동체/동아리 활성화, 참여형 독서 ▪지역콘텐츠 연계 독서, 독서역량(질적 독서) 제고 ▪독서나눔문화/재능기부, 독서 사회적 기업 ▪50+ (신중년) 참여 독서/사람책
02. 포용적 독서복지 ▪사람 중심 가치 및 포용국가 비전 ▪독서의 혁신성장 가치 ▪독서소외인 독서 수요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 존중	02. 포용적 독서복지 ▪독서관 확립 및 보편적 독서복지 체계 ▪독서가치 정립·확산 ▪독서소외인 권리 강화 ▪다문화·특수계층 등 독서복지 강화
03. 생활 속 맞춤 독서 ▪독서자/비독서자 격차 확대 ▪여가시간 확대, 일과 삶의 균형 ▪일상 속 독서문화와 독서습관 형성 ▪지역 및 생활문화 확산	03. 생활 속 맞춤 독서 ▪독서요인 세분화 및 맞춤형 독서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책 읽는 직장 ▪책 읽는 즐거움을 위한 독서역량/콘텐츠 개발 ▪생활권역 책 읽는 환경 조성
04. 미래독서 생태계 ▪문화자원 융합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5G 시대 ▪디지털 독서격차 ▪독서정보의 범람	04. 미래독서 생태계 ▪AI 기반 참여형 독서플랫폼 개발 운영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인문독서 확산 ▪취약계층 디지털 독서 격차 해소 ▪맞춤형 독서정보·북 큐레이션
05. 독서정책 협력체계 ▪독서정책의 효율성/협치 수요 ▪독서 법/제도 정책기반 조성	05. 독서정책 협력체계 ▪독서문화진흥위원회및독서진흥전담기구설립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확산에 초점을 두고 지역과 학교와 직장
과 소외계층 등 전 국민의 독서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썼음.
- 그러한 확산기를 거쳐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독서를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 생활 전반에 자리 잡게 하는 데 초점을 두
고 있음.
- 개인이 간헐적으로 도서 소유와 읽는 행위에 만족하는 종이책 중심의 독
서문화를 넘어서, 사회적이고 포용성 있는 공동체적 독서를 목표로 하고
있음.

2) 계획 추진체계

비전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독서
목표	○ 독서율 '17년 59.9% → '23년 67.4% ○ 독서동아리 참여율 3% → '23년 30%
전략 및 중점 과제	전략 1. 사회적 독서 활성화
	(중점과제 1) 함께 하는 독서공동체 확산 지원 (중점과제 2) 일상에서 책 읽는 환경 조성 (중점과제 3) 나와 우리가 만드는 독서문화 정착
	전략 2. 독서의 가치 공유 확산
	(중점과제 4) 사람 중심 독서로 공감능력 제고 (중점과제 5) 50+ (신중년) 참여 독서 실현 (중점과제 6) 대중매체 연계 독서문화 확산 (중점과제 7) 독서나눔문화 활성화
	전략 3.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
	(중점과제 8) 생애주기별 맞춤독서 강화 (중점과제 9) 학교독서 생활화 (중점과제 10) 포용적 독서복지 체계 구축
	전략 4.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
	(중점과제 11) 독서정책기반 조성 (중점과제 12) 디지털 독서 확산 기반 마련 (중점과제 13) 독서가치 및 독서요인 분석 연구 강화

- 정책 기조에 나타난 사항을 반영하여 비전을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독서”로 정함.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하여 독서율뿐만 아니라 독서동아리 참여율의 향상 또한 목표로 하고 있음.
- 네 가지 전략은 ‘사회적’ ‘공유’ ‘포용’ ‘독서생태계’가 주요 키워드임. 개인적 독서를 넘어 사회적 독서, 혼자 읽기가 아닌 함께 읽기, 모든 세대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독서복지, 독서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임.

4. 종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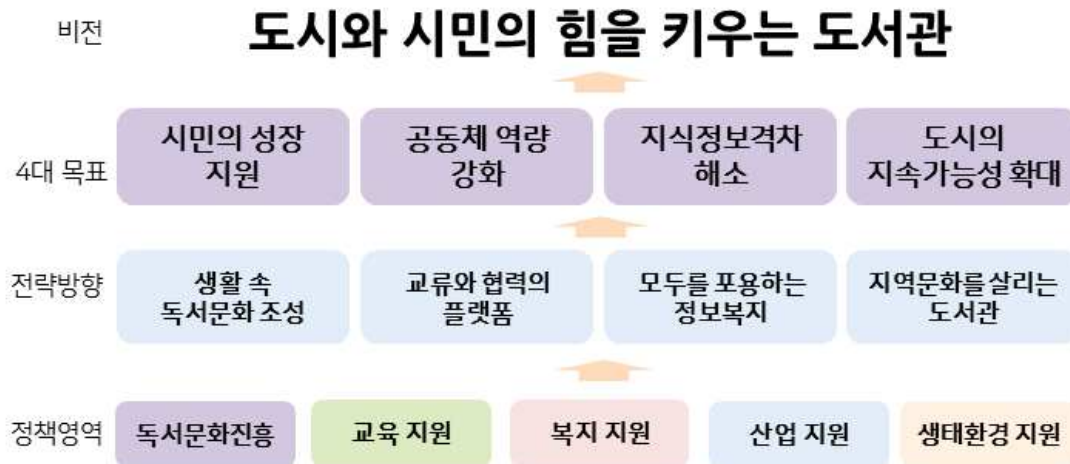
-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과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공통적으로 ① 독서·교육·문화 등을 통한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②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며 ③ 복지를 통해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고 ④ 각각 도시와 도서관, 독서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독서와 도서관을 포함한 교육과 문화, 예술은 개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보다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제공해줌. 그러나 공공서비스는 개인의 발전과 성공만을 지원하는 것은 것을 넘어, 개인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공동체를 유지·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
-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과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모두 ‘사회적 독서’를 강조하고 있음.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기술적 발달에 따른 반쪽짜리 소통, 고립된 행으로 인한 갈등 증폭, 공통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성숙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독서공동체,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독서-현장 연계형 프로그램 확대”를 과제로 삼고 있음.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제1 전략으로 ‘사회적 독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의 도서관은 ‘혼자 읽기’를 넘어 ‘함께 읽기’를 지원하고,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역할이 요구됨.
- 세 계획 모두 복지에 대한 높은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고 있음. 독자와 비독자간의 독서격차,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에 따른 정보격차는 양극화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줌. 지식정보 소외계층 대상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보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큰 과제임.

VI. 순천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1. 순천시 도서관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2. 5대 정책영역 및 세부과제

VI. 순천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1. 순천시 도서관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1) 비전

○ 비전 : 도시와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도서관

- 도서관을 통해 개인이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관계가 살아있는 풍요로운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살만한 도시,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듦

2) 4대 목표와 전략방향

목 표	전 략 방 향
시민의 성장 지원	• 생활 속 독서문화 조성 - 일상적 책문화를 통해 개인이 시민으로 성장
공동체 역량 강화	• 교류와 협력의 플랫폼 - 책 읽고 토론하는 문화, 협력·상생의 공동체문화 형성
지식정보격차 해소	• 모두를 포용하는 정보복지 -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도서관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대	• 지역문화를 살리는 도서관 - 도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정주성을 높이는 도서관

<그림10> 상위 계획 등을 통해 선정한 순천시 도서관의 중장기 목표



3) 5대 정책 영역

- 도서관정책은 단순히 문화정책 차원이 아닌, 문화·교육·복지·산업·생태환경 정책을 포괄하는 시정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함.

<그림11> 순천시 도서관정책의 5대 영역



2. 5대 정책영역 및 세부과제

정책영역	세부과제
1. 독서문화진흥	1-1. 공공도서관 확충 ○ 시청, 왕조2동, 서면 선평리, 가곡동 일대, 숲속도서관 1-2. 도서관 전문 인력 확보 ○ 1관당 정규인력 최소 6명 이상 배치 1-3. 작은도서관 활성화 ○ 적정수의 작은도서관 유지 및 자연 소멸 유도 ○ 문화소외지역 작은도서관 공립화 ○ 작은도서관 구성원 교육 강화 1-4. 특성화 및 서비스 전문성 강화 ○ 전문인력 확보 ○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 ○ 외부 협력 강화 및 특화 주제 관련 시민활동 지원 ○ 특성화의 일반화 1-5. 독서동아리 지원 ○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실시 ○ ‘1인 1독서동아리’ 캠페인 ○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1-6. 도서관정책 브랜드화 및 홍보 강화
2. 교육 지원	2-1.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 노후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 ○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 2-2. 학교 독서교육 지원 : 초등 및 청소년 북스타트 실시 2-3. 학교-공공도서관 협력 강화
3. 복지 지원	3-1. 육아의 사회적 지원 ○ 북스타트 확대 3-2. 지식정보소외계층 대상 서비스 개발 ○ 장애유형에 따른 대체자료 확보 ○ 장애인서비스 전담인력 배치 ○ 장애인 단체와의 협업
4. 산업 지원	4-1. 지역 독서생태계 조성 ○ 지역 창작·출판 육성 4-2 산업정보 지원 ○ 기업 비즈니스 지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 도서관을 통한 창업·취업 지원 서비스 4-3. ‘책 읽는 직장’ 환경 조성 ○ 직장 독서 환경 조성 지원 ○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시행
5. 생태환경 지원	4-4. 전문서비스 제공 ○ 생태자료 확대 수집 및 전문인력 양성 4-5. 생태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 및 전문단체와의 협업 4-6. 시민활동 지원 ○ 생태환경 연구모임 및 독서동아리 지원

VII. 중장기 발전계획의 세부과제

1. 독서문화진흥
2. 교육 지원
3. 복지 지원
4. 산업 지원
5. 생태환경 지원

1. 독서문화진흥

1-1) 공공도서관 확충

가. 순천시 공공도서관 인프라 평가

- 공공도서관은 기본적으로 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② 시민의 생활권마다 위치해야 하며 ③ 어느 도서관에서든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표47> 순천시 공공도서관 현황

구 분	명 칭	주소	연면적(m²)
계	8개관		17,094
1	삼산도서관	순천시 중앙로 232	5,021
2	그림책도서관	순천시 도서관길 33	2,204
3	연향도서관	순천시 연향변영길 54	4,114
4	기적의도서관	순천시 기적의도서관길 60	1,836
5	조례호수도서관	순천시 조례2길 361	2,320
6	신대도서관	순천시 매안로 162	778
7	해룡농어촌도서관	순천시 해룡로 1120	618
8	풍덕글마루도서관	순천시 풍덕1길 52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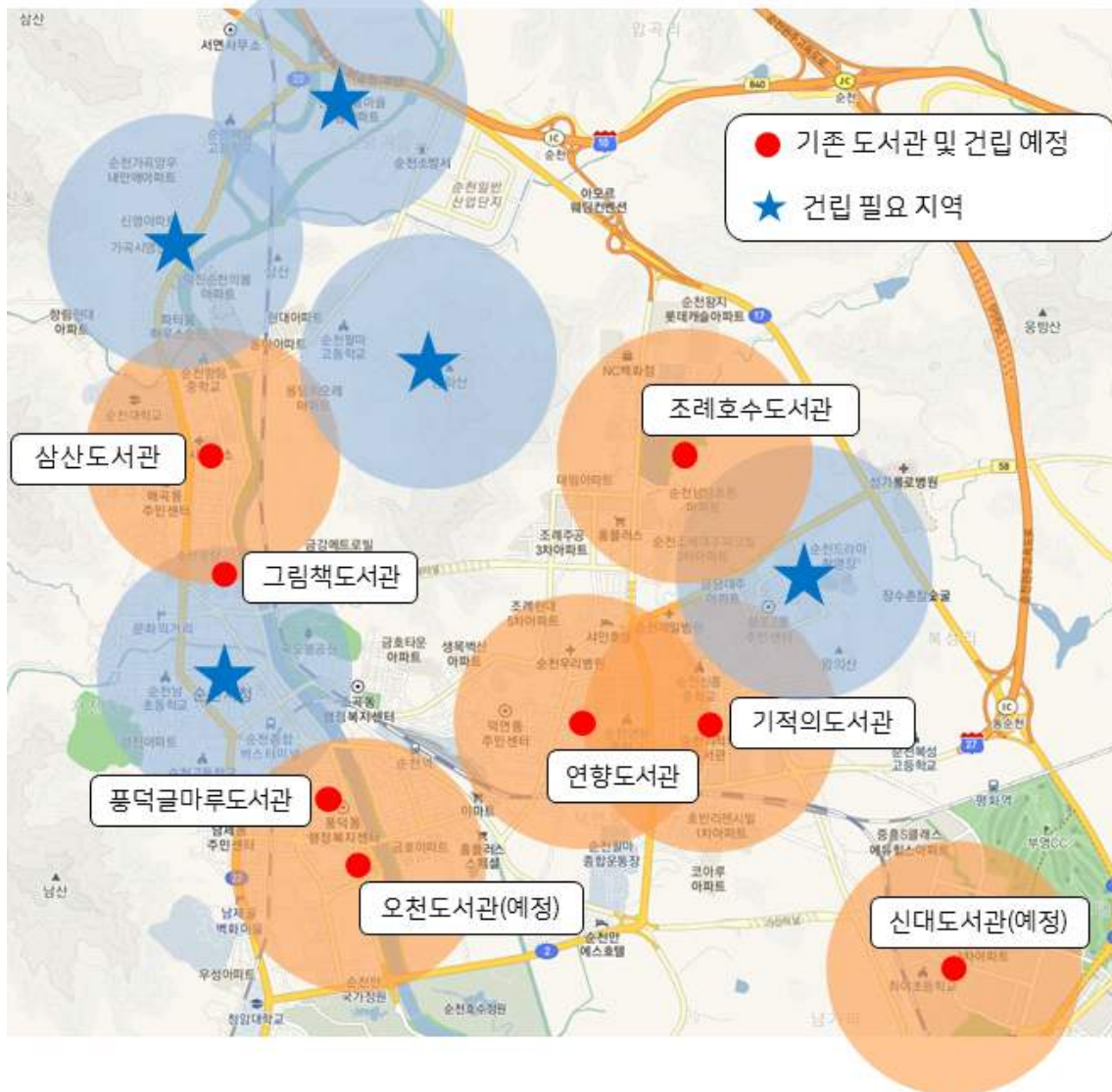
출처: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제공자료

- 순천시는 현재 8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약 35,000명으로 전국 평균 47,000명보다 12,000명이 적어 상대적으로 도서관이 많은 편임.
- 그러나 해룡농어촌도서관과 풍덕글마루도서관은 규모가 작아 온전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전문도서관 성격이 강함.

- 과거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한 그림책도서관은 전시와 강좌 등 다양한 그림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본관은 유료로 운영하여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고, 본관은 공간이 작고 장서가 부족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음.

<그림12> 순천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권역 및 건립 필요 지역



- 순천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권역을 반경 1km로 할 때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약 네 곳의 서비스 공백지역이 생김.
 - 시청 일대
 - 왕조2동 일대
 - 서면 선평리 일대
 - 가곡동 일대

나. 도서관 건립 검토 지역

① 시청 주변

- 시청 주변은 과거 ‘한옥글방’이 있었으나 사라지면서 서비스 공백이 생김. 주변에 그림책도서관과 풍덕글마루도서관이 있으나 전문화된 도서관으로 보편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삼산도서관, 오천도서관과는 거리가 멀.
- 순천시는 시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현 시청 부지에 동측 부지를 확장하여 대지면적 26,000㎡, 연면적 50,0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임.

<표48> 순천시 신청사 건립 개요

비전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청사, 시민에게 열린 청사
기간	2019 ~ 2025년
위치	現 청사 + 동측 부지 확장
사업비	1,800억원 내외(청사 건립기금 + 자체 재원)
규모	대지면적 26,000㎡, 연면적 50,000㎡
추진경과 및 계획	2019. 1. 4. 신청사 건립위치 확정 발표 2019. 3. ~ 7.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디자인단 운영 2019. 8. ~ 2020. 3.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019. 10. ~ 2020. 3. 설계 공모지침 작성 2020. 7. ~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설계감리, 시공관리) 2021. 1. ~ 2022. 2. 실시설계, 토지 보상, 시공업체 선정 2022. 2. ~ 2024. 5. 착공식 및 공사 추진 2024. 6. 신청사 입주 2025. 기존 청사 철거 및 부지 정리

출처 : 순천시 제공자료

- 신청사에 도서관을 설치한다면 ①주변 지역의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고 ②유동인구가 많아 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 적절하며 ③ ‘도서관 도시’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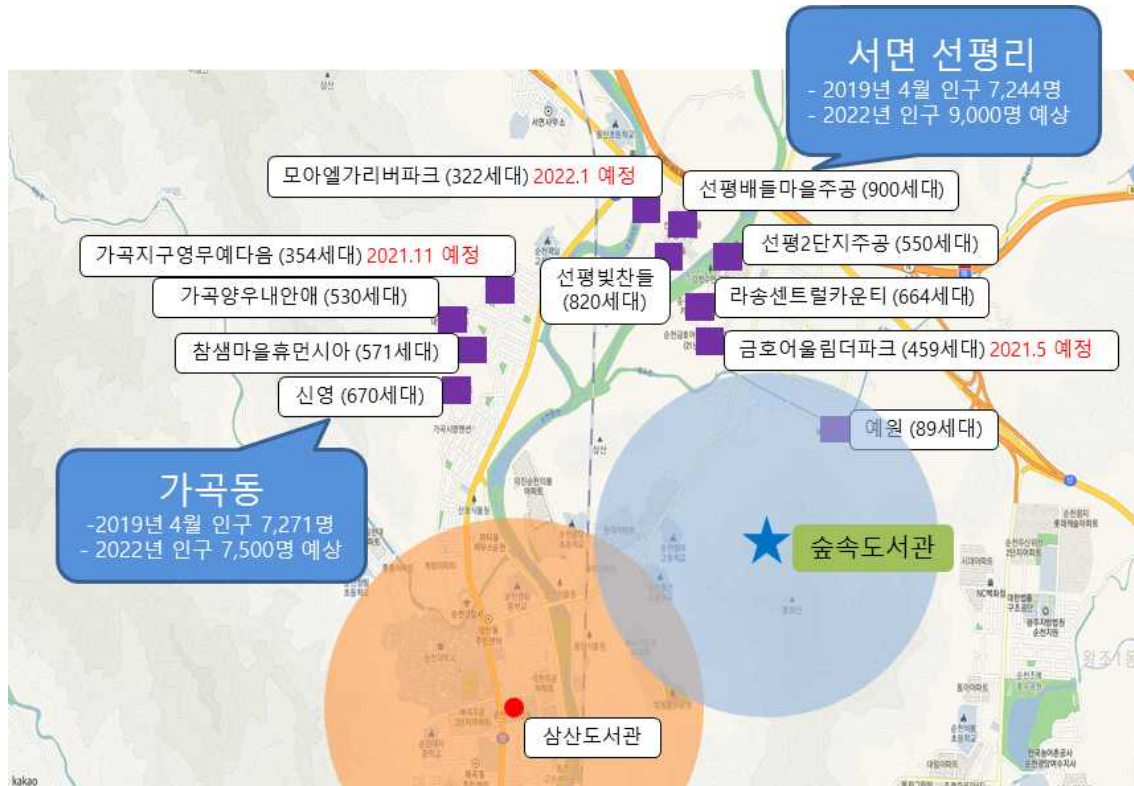
② 왕조2동

- 왕조2동의 인구는 20,109명(2019. 07)으로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07년 (24,137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인근 금당지구, 연향지구와 마찬가지로 유소년 인구가 줄고 있고 50대 이상 이구가 증가하고 있음.
- 왕조2동은 주변에는 기적의도서관과 조례호수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음.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어린이와 양육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청년이나 노인 등 다른 연령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조례호수도서관은 직선거리는 가깝지만 언덕이 있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멀.

③ 서면 선평리 일대

- 서면 선평리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2019년 4월 현재 7,244명이 거주하고 있음. 금호어울림더파크(459세대)와 모아엘가리버파크(322세대)가 각각 2021년 5월과 2022년 1월 준공 예정으로, 2022년에는 인구가 약 9,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선평리에서 가장 가까운 삼산도서관은 직선거리로 약 2.5km 떨어져 있고 도보로 약 50분이나 걸려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짐. 배들마을주공아파트와 라송센트럴카운티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다 양질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 검토가 필요함.

<그림13> 선평리 일대 아파트 단지별 세대수와 예상 인구



④ 가곡동 일대

- 가곡동은 약 7,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354세대의 아파트가 2021년 준공 예정임.
- 가장 가까운 삼산도서관에서 직선거리로 약 2km 떨어져 있음. 도로와 하천, 산 등으로 인해 삼산도서관권과는 생활권이 분리되어 도서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지역임.
- 대규모 도서관보다는 중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함.

⑤ 숲속도서관

- ‘생태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숲 속 도서관’ 건립 추진
 - 숲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날로그 지향 도서관

1-2) 도서관 전문 인력 확보

가. 순천시 도서관 인력구조

<표49> 순천시 도서관 인력 현황 (2012. 11)

	합계 (A+ B)	공무원			무기직 계약직 (B)
		계(A)	사서직	비사서직	
합계	39	28	15	13	11
도서관운영자	8	8	4	4	-
삼산	6	3	3	-	3
중앙	7	5	1	4	2
연향	7	4	1	3	3
기적	4	4	3	1	-
조례호수	6	4	3	1	2
해룡농어촌	1	-	-	-	1

출처 :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제공자료

<표50> 순천시 도서관 인력 현황 (2019. 10)

	합계 (A+ B)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B)
		계 (A)	사서직	비사서직	
합계	53	29	21	8	24
도서관운영과	12	9	7	2	3
삼산	8	4	3	1	4
그림책	8	4	3	1	4
연향	7	3	2	1	4
기적	6	3	2	1	3
조례호수	6	3	2	1	3
신대	6	3	2	1	3

출처 :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제공자료

- 2019년 현재 순천시 도서관 총 인원은 53명으로, 사서직 21명과 비사서직 8명, 공무직 및 계약직 24명이 근무하고 있음.
- 2012년과 비교하면 전체 인원은 14명 증가했고 사서직도 6명이 증가했

으나 비사서직 공무원 인원이 5명 줄어 정규공무원 인원은 단 3명 증가함.

- 공무직·계약직 등 비정규 인원이 11명에서 2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 총원 중 비정규 인원의 비율은 2012년 28%에서 2019년 45%로 크게 증가함.
- 도서관운영과의 정규 인원은 8명에서 11명으로 3명 늘었지만, 각 도서관의 사서직은 여전히 1~2명만 배치되어 있음.
- 대부분의 순천시 공공도서관에서 사서직 중 1명은 행정·사무·예산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다른 1명이 수서, 자료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고 있음. 이러한 인력구조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도서구입, 대출반납 등)와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밖에 수행할 수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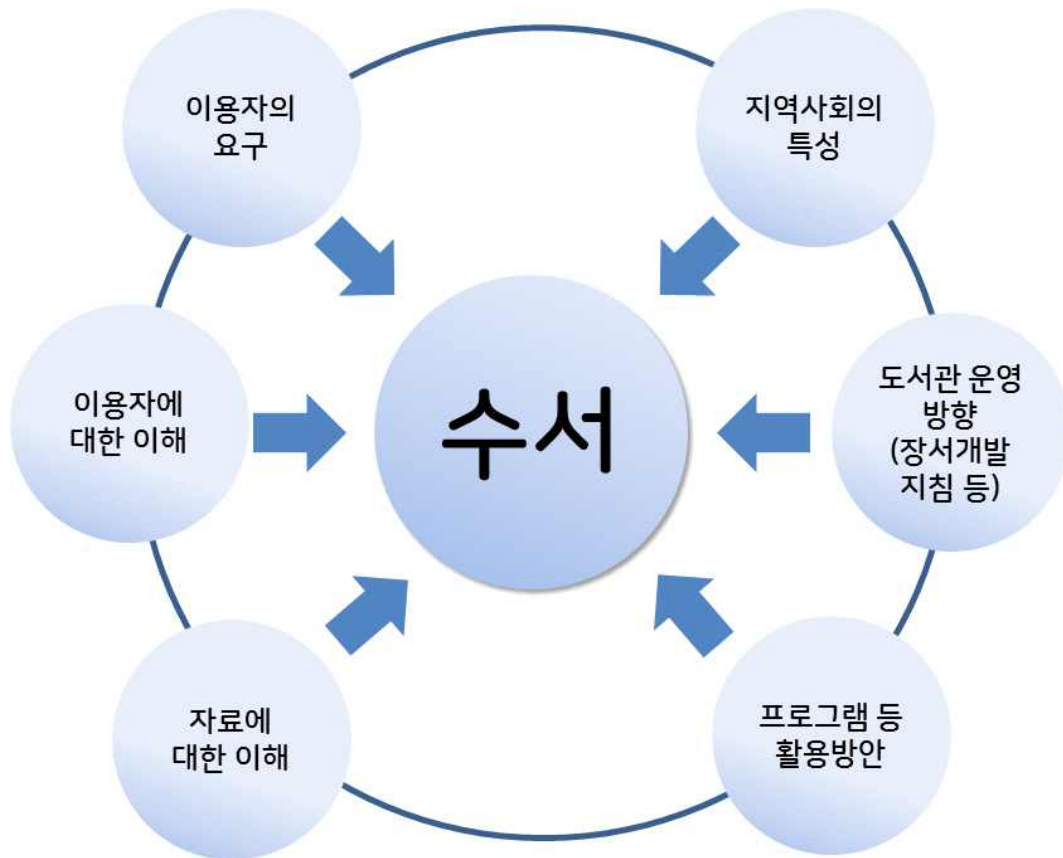
<표51> 순천시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업무 분장

팀장	도서관 업무 총괄
사서1	사무, 행정, 예산, 시설관리
사서2	수서, 자료관리, 프로그램
비사서직	자료실 관리
공무직	자료실, 견학, 자원봉사 관리

-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사업은 늘었지만 인력은 늘지 않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 도서관의 수서는 단순히 베스트셀러나 추천도서를 구입하는 일이 아니며, 자료관리 또한 없는 서가에 책을 꽂거나 불용도서를 폐기하는 등의 단순 업무가 아님.
- 수서와 자료관리와 같은 정보서비스 업무는 대체 불가능한 사서의 고유 업무임. 도서관서비스는 정보서비스가 핵심이며 도서관이 가장 집중해야 하

는 영역임. 또한 사서의 전문 역량이 필요한 영역이며, 사서는 지속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야 함.

<그림14> 도서관 수서 업무시 고려할 사항



- 순천시 도서관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도서관 특성화와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나. 인력 구성 방안

-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곳으로, 도서관은 나이와 학력, 성별, 소득수준, 장애유무 등에 상관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도서관자료는 기본적으로 연령대(어린이·청소년·성인)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연령대별 자료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해당 분야의 정보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가 연령대별로 1명씩 필요함.

- 이를 바탕으로 순천시 공공도서관은 팀장을 포함하여 최소 6명의 정규인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함.
- 여기에 장애인·노인·다문화서비스, 특성화 추진, 지역사회 협력 등에 따라 1~2명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52> 순천시 공공도서관 기본 인력구성안

업 무	담 당	인 원
도서관 업무 총괄	팀장	1명
영유아, 어린이 자료 수서 및 서비스	사서	1명
청소년 자료 수서 및 서비스	사서	1명
성인 자료 수서 및 서비스	사서	1명
서무, 행정, 예산, 시설관리, 자원봉사 관리 등	사서 비사서	2명
합 계		6명

- 이를 토대로 각 도서관에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53> 순천시 도서관 필요 인력 산출

	합계 (명)	공무원 (명)	
		사서직	비사서직
합계	55	45	11
도서관운영과	11	8	3
삼산도서관	6	5	1
그림책도서관	6	5	1
연향도서관	6	5	1
기적의도서관	6	5	1
조례호수도서관	6	5	1
신대도서관	3	2	1
신대도서관(예정)	6	5	1
오천도서관(예정)	6	5	1

※ 공무원 등 비정규 인력 제외

- 삼산도서관, 그림책도서관, 연향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조례호수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연령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기본 인력구성안을 적용함.
- 신대지구에 새 도서관이 개관하고 나면 현재 신대출장소 3층에 위치한 신대도서관은 그 역할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도서관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인력인 3명을 유지함.
- 2022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신대지구 새 도서관과 오천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원 6명이 필요함. 다만 인구 밀집지역의 특성상 이용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운영현황 및 업무 강도에 따라 추가 인원 배치를 고려해야 함.
- 이외에도 공공도서관을 새로 건립할 경우 기본적으로 정규인력 6명을 확보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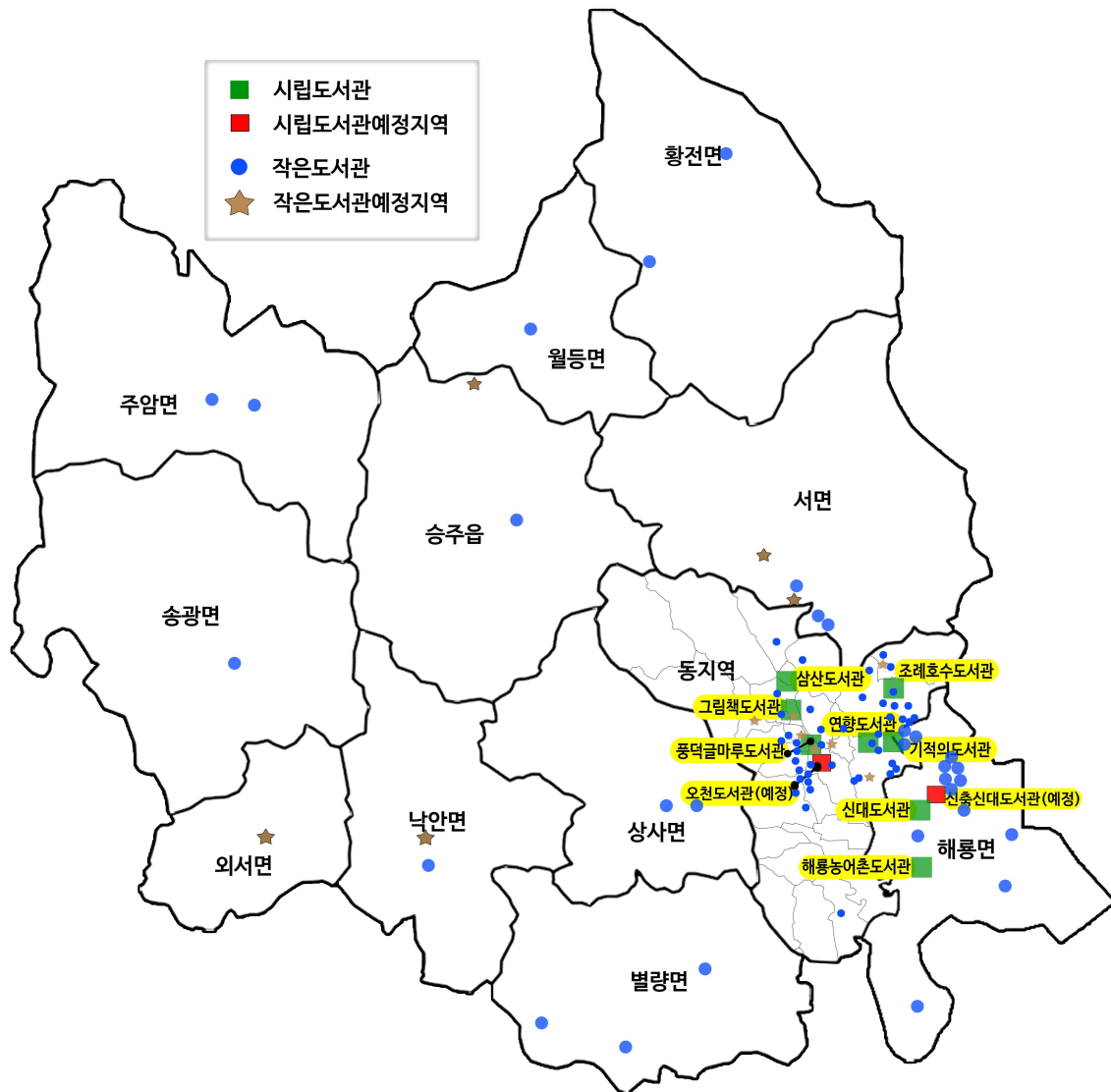
<표54> 연도별 사서 확보 계획

연도	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확보인원 (명)	24	4	4	2	2	2	2	2	2	2	1	1

1-3) 작은도서관 활성화

가. 순천시 작은도서관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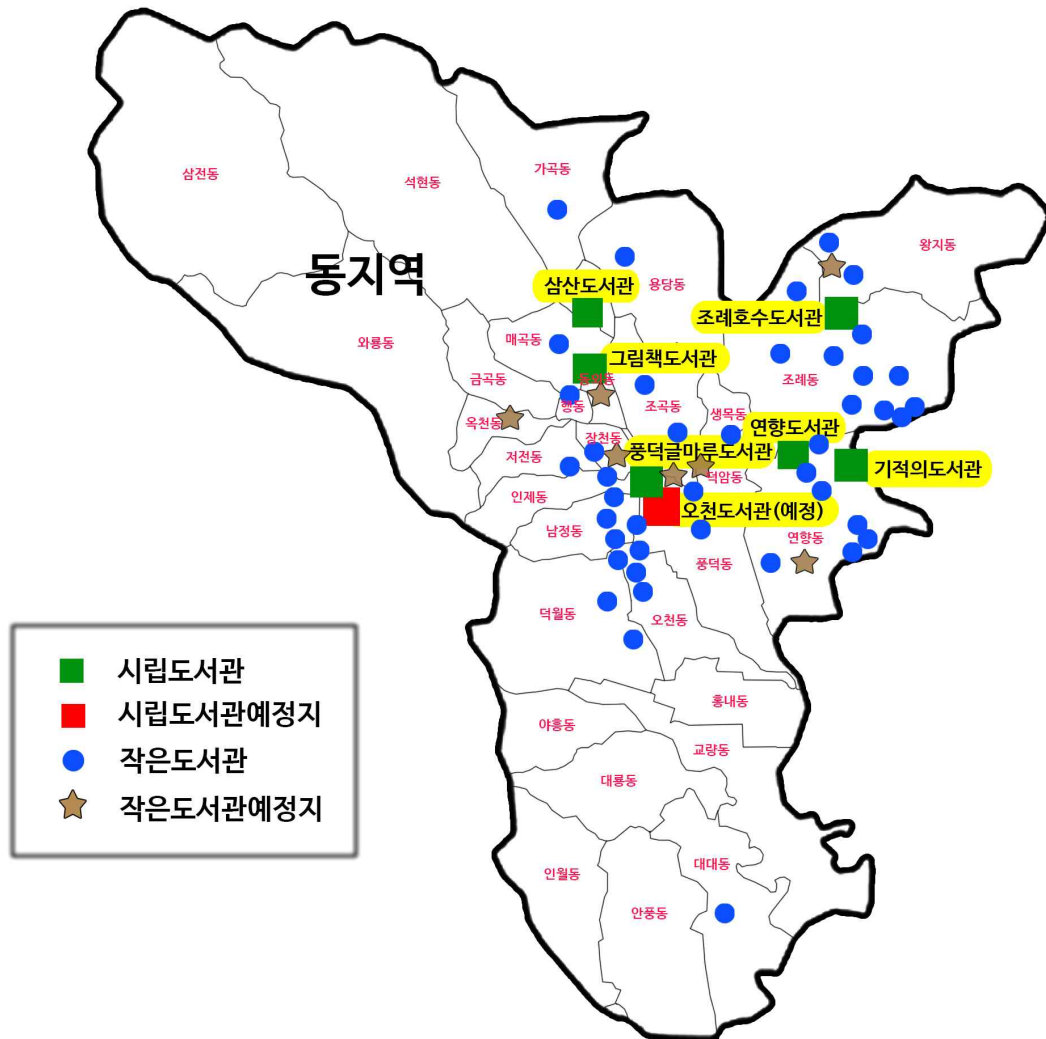
<그림15> 순천시 도서관 지도



- 순천시의 작은도서관은 2003년 기적의도서관 개관 이후 도서관에 대한 높은 요구와 시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그리고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자연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수가 매년 증가해왔음.

- 다른 지역 작은도서관은 본래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지역운동의 차원에서 시작했음. 그러나 순천시의 작은도서관은 처음부터 순천시의 적극적인 지지와 계획에 의해 만들어짐. 기적의도서관 건립 이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개조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할 때 시에서 공사비와 장서, 기타 물품비 등을 지원했음. 또한 조례를 제정하여 3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문고 설치를 의무화했고, 주민자치센터를 개조하여 작은도서관을 배치하였음.
- 순천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달에 한 번 도서도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음. 2012년에는 1관당 연간 86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9년에는 1관당 최소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시지원금 이외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관들이 많음.

<그림16> 순천시 동지역 도서관 지도



- 공동주택 개발과 순천시의 적극적인 운영 지원 정책에 따라 작은도서관 개소수가 해마다 증가해왔음. 동지역은 작은도서관이 밀집해 있고 공공도서관과의 거리가 가까워 서비스 권역이 중복되어 비용과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가 생길 수 있음.
-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작은도서관 간 운영 편차가 매우 큼. 읍면지역 작은도서관은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애초에 읍면지역의 인구가 적은 이유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주 이용층인 어린이·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임.
-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과 돌봄교실, 학교도서관 활성화도 작은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귀가시간이 늦어짐. 또한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더 편하게 책을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함.

나. 순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① 적정수의 작은도서관 유지 및 자연 소멸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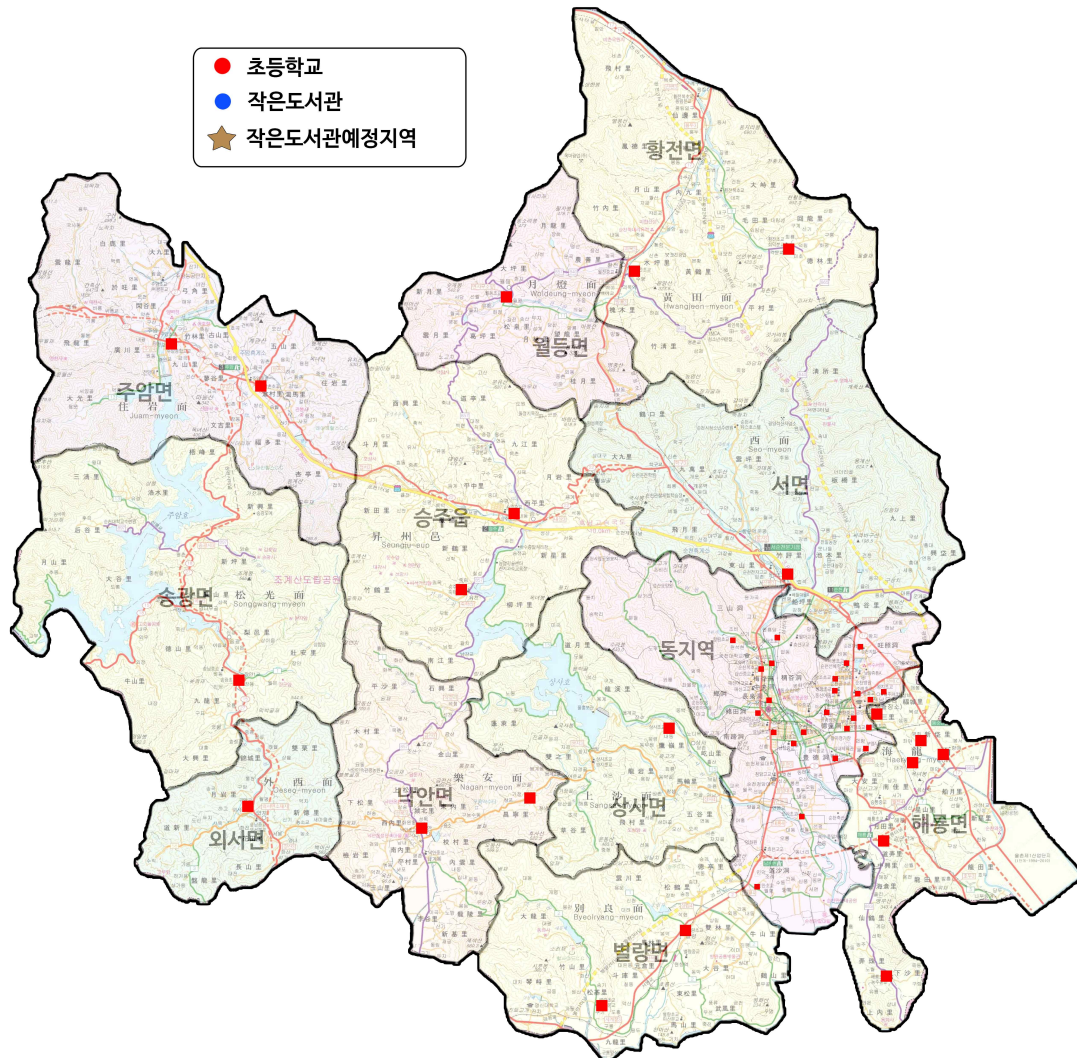
- 순천시의 작은도서관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수의 작은도서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주변에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등 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면서 불필요하게 시의 운영보조금이 나가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여 자연 소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작은도서관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작은도서관 통폐합 후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추진함.
-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작은도서관 통폐합 후 공공도서관 건립하기 전 반드시 지역 주민 및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② 문화소외지역 작은도서관 공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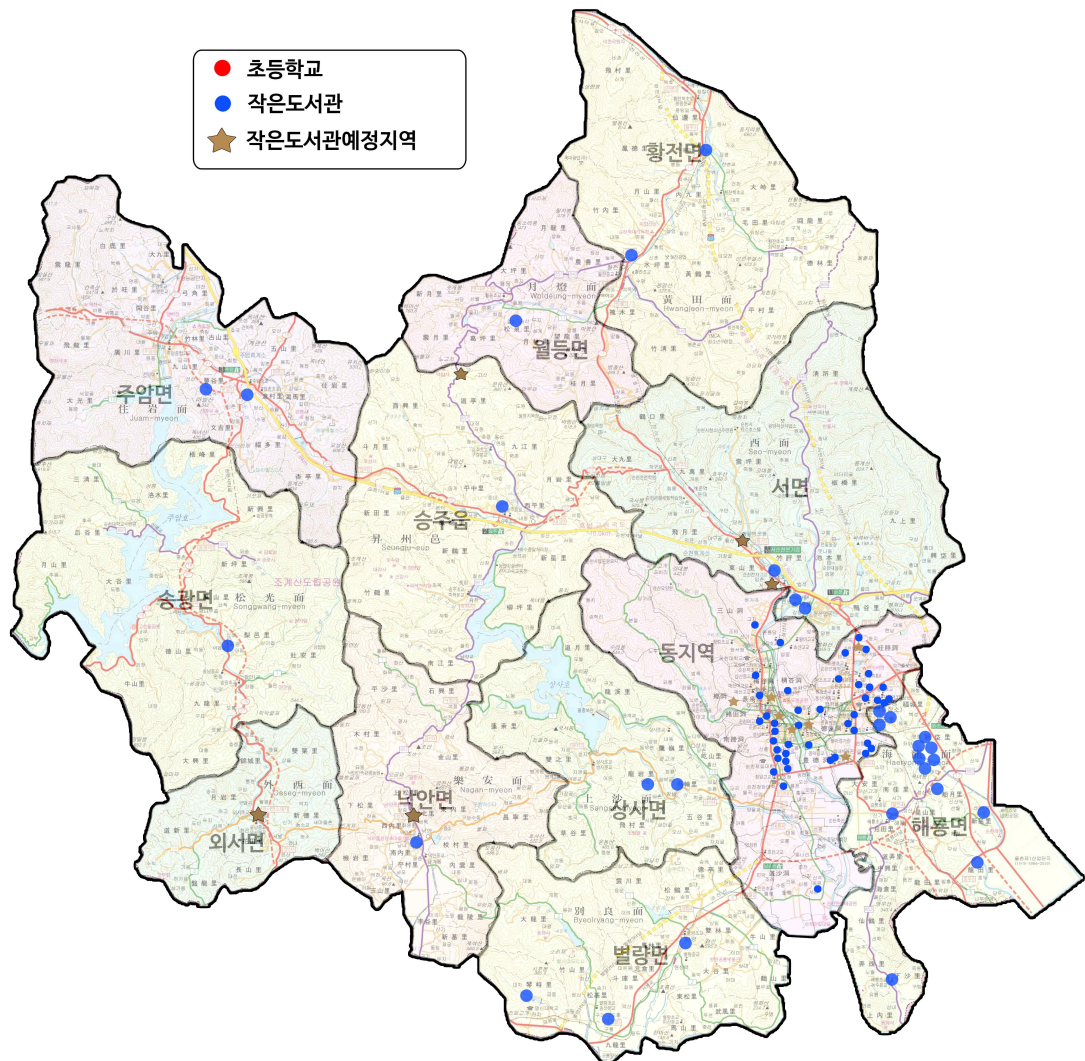
- 읍면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의 작은도서관은 대체로 이용자 수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이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
- 따라서 순천시가 문화소외지역의 작은도서관을 공립화하여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총액인건비제 등의 이유로 순천시가 직영하기 어려울 경우, 도서관 전문단체나 지역 협동조합에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공립화를 추진하기 전 반드시 지역주민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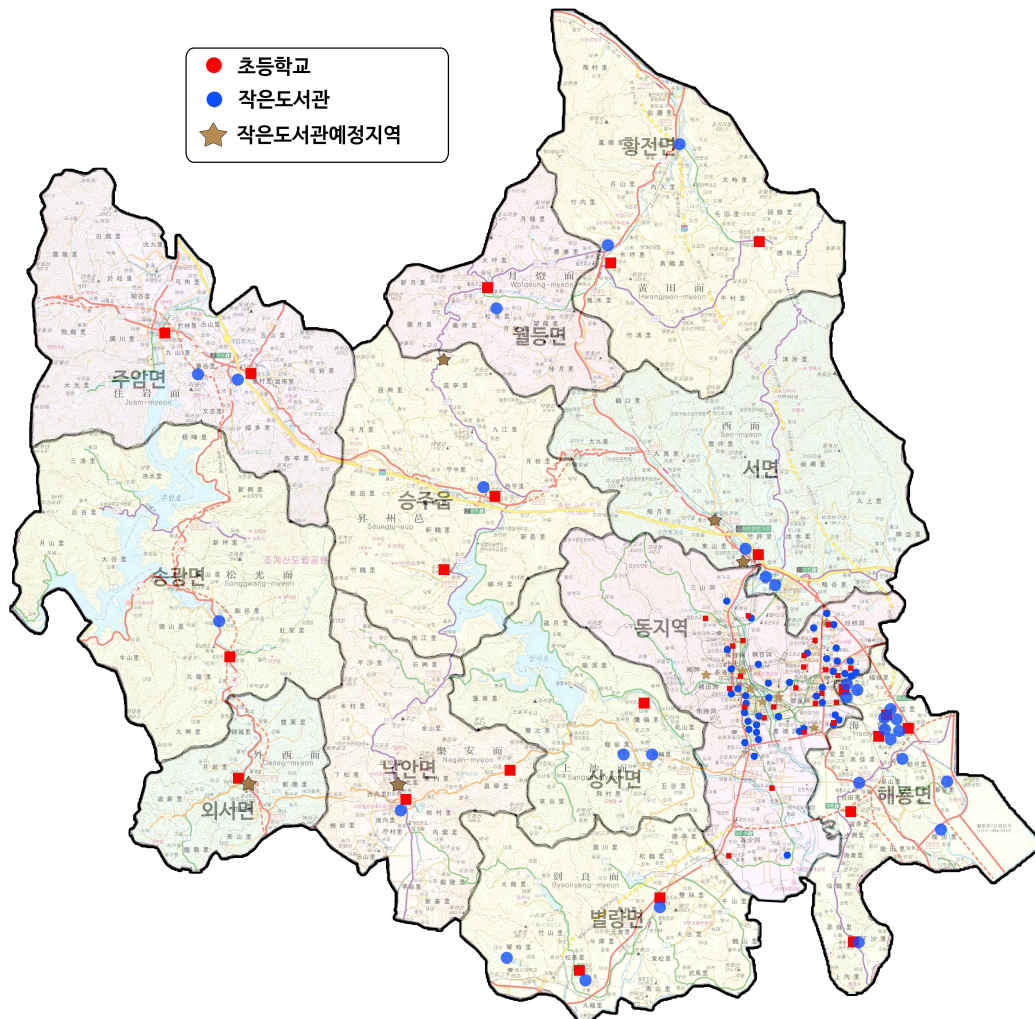
<그림17> 순천시 초등학교 지도



<그림18> 순천시 작은도서관 지도



<그림19> 순천시 작은도서관 및 초등학교 지도



※ 참고자료 - 학교 수와 작은도서관 수

- 국가는 모든 시민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구수와 생활권을 검토하여 학교를 건립·운영함.
- 초등학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생활권에 배치되어 있으며, 인구가 아무리 적은 읍면지역일지라도 대부분 1개교 이상 운영되고 있음. 즉 초등학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 2019년 전국의 각급 학교 수는 11,657개교로 초등학교 6,087개교(전체 학교 수의 52%), 중학교 3,214개교(28%), 고등학교 2,356개교임(전체 학교 수의 20%).
- 2018년 전국의 작은도서관 수는 6,330개소로, 전국 초등학교 수와 비슷한 수준임.
- 2019년 순천시의 학교 수는 총 79개교이며 그중 초등학교는 42개교로 53%임.
- 2019년 10월 현재 순천시 작은도서관 수는 71개소이며, 개소 예정인 작은도서관이 11개소로 2020년에는 작은도서관이 총 82개소가 될 예정임.
- 산술적으로 비교할 때 순천시 작은도서관은 순천시 초·중·고교를 합한 수만큼 많으며 초등학교 수의 약 2배가 됨.

③ 작은도서관 구성원 교육 강화

- 지금까지의 작은도서관 교육은 대체로 운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음.
- 작은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운영자와 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 주민이라 할 수 있음. 작은도서관 구성원들의 인식과 철학, 노하우 등에 따라 그 운영 방향과 이용 행태, 활성화 정도가 달라짐.
-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주민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의 이용자에서 협력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1-4) 특성화 및 서비스 전문성 강화

가. 순천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현황

<표55> 순천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주제 및 방향

구분	대상 및 주제	특성화 방향
삼 산	성인 독서 취약계층	- 스마트 기술을 선도하는 문턱 없는 도서관 - 성인, 고령 이용자 중심의 공유·협업 공간
그림책	그 립 책	- 전문가들이 찾는 그림책 연구기관 및 그림책 마을 조성 - 시민 그림책 작가 육성 및 순천 그림책 발간
연 향	청 소 년	- 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예술공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기지
기 적	어 린 이 부 모	- 책 읽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기적의도서관 -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독서 진흥 프로그램 운영
조 례 호 수	생태환경	사람과 자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태·환경도서관
신 대	가족 순천인물	- 모든 형태의 가족(1인가족 포함)을 아우르는 가족 맞춤형 도서관 - 지역민의 삶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인물 도서관

출처 : 2030 미래비전 연동화 계획

- 순천시는 6개 공공도서관을 특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 특성화 분야는 각 도서관 주변지역의 인구특성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특성화는 다양화된 시민들의 정보요구에 따라 도서관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의 전문성이 강화되기 어려움. 특성화의 결과가 쌓이지 않아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특성화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임.
- 또한 인력이 부족하여 담당자가 정보서비스 및 특성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기회가 없음. 적은 인력 때문에 사서들은 기본 업무를 수행하

기에도 벅차고 교육에 참가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임.

나. 순천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방안

① 특성화보다는 보편서비스가 우선

- 공공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 특성화는 보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전문인력 확보

- 특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수임. 현재 순천시 공공도서관의 인력구조로는 사서들이 기본 업무밖에 수행할 수 없는 구조임.
-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함..
- 시 직영 도서관의 특성상 순환보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문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함.

③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

- 사서들이 도서관 기본 업무와 특성화 분야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시립도서관 사서 인터뷰 및 연구 중간보고에서 사서들은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함.
 - 교육기회가 더 많으면 좋겠다.
 - 인력이 부족하여 외부 교육을 받으려 갈 시간이 없다.
 - 교육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신해야 하기 때문

에 눈치가 보인다.

- 사서를 포함한 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사서들이 눈치 보지 않고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음.

④ 외부와의 협력 강화 및 특화 주제에 대한 시민활동 지원

- 특성화 네트워크 구축
- 특성화 주제 및 전문영역에 대한 시민 연구모임 및 독서동아리 지원
-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개인 및 단체,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담당자가 바뀌어도 특성화의 성과가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특성화의 결과가 도서관이나 담당자 개인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특성화 주제에 대한 시민 연구모임 혹은 독서동아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⑤ 특성화의 일반화

- 특성화의 목적은 단지 한 도서관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 시민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따라서 특화된 도서관서비스는 한 도서관만이 아닌 순천시의 모든 도서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시민들에게 각 도서관의 특성화 주제 및 전문서비스 영역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함.
 -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특성화 및 전문서비스에 대해 적극 홍보

⑥ 전문도서관 설치

-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쉼을 제공하는 ‘숲 속 도서관’ 설치

○ 위치 : 삼산동 봉화산 둘레길

※ 봉화산 둘레길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연친화 걷기 길로, 봉화산 3부 능선 연장 14.0km 둘레를 자연 지형에 맞는 평지형태로 조성되었음. 순천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순천시에 서 적극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음.

- ‘숲 속 도서관’은 봉화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머물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 체험학습·현장학습이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연계하여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함.
- 또한 ‘숲 전문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태도시’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함.

1-5) 독서동아리 지원

- 독서동아리는 개인적·수동적 독서활동이 아닌 집단적·적극적 독서활동으로, 독서문화 확산시키고 공동체의식 함양하는 데 가장 좋은 활동임.
- 독서 생태계 기반을 확충하고 읽고 토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독서동아리를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으로 독서동아리에 대한 수요와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부터 매년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에서 독서동아리를 지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의 주요 내용

- 독서동아리 실태조사 : 독서동아리 수, 참여 인원, 계층별 참여 현황, 지원방안 등 파악
- 독서동아리 지원 실시 :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 독서동아리 활동가 양성 : 독서동아리 활동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멘토링할 수 있는 활동가 발굴 및 양성
- ‘1인 1독서동아리’ 캠페인 : 시민들의 독서동아리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활동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서점, 카페 등에서 독서동아리를 결성하거나 모임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 독서동아리 간 상호 협력·교류할 수 있는 통로 제공
- 독서동아리 한마당 실시(연1회) : 독서동아리 축제, 독서동아리 교류의 장

* 참고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동아리 지원사업(2019)

지역	기관명	공모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광주광역시	서구	2019 광주 서구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5인 이상 독서동아리 -정기모임 월1회 이상(필수) -정치, 종교, 상업 등 특수목적 동아리 제외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동아리 제외	-활동비 지원 (1인 5만원 상당 도서 구입) -구립 및 작은도서관 유희공간 사용 지원 -리더과정 및 역량강화 교육지원 -강사 컨설팅 지원 *우수동아리 대상 작가 초청 북콘서트 및 문학기행 참여기회 제공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년 마을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	5인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갖는 관내 독서토론 및 독서관련 활동 동아리	독후활동에 필요한 강사비, 재료비 등 각 50여 만원 지원
강원도	강릉시	2019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아동, 청소년, 대학생, 직장, 일반, 병영 등 강릉시민 독서동아리 60곳	30~40만원 상당의 도서와 특강 강사료가 현물로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2019 독서동아리 육성 프로젝트	10인 이상 정기모임을 갖는 독서 토론 동아리	-도서 : 토론도서대출 (40일간) / 동일도서 10권씩 보유 -멘토: 토론진행 및 자문, 파견형식 -장소 : 토론장소 제공

지역	기관명	공모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년 구로구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	구로구에 등록된 독서동아리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5인 이상 회원을 확보한 독서동아리 (성인, 어 린이 포함) -월 1회 이상 정기 독서모임 을 가지고 있거나 모임을 할 예정인 동아리 *공모사업 신청과 동시에 등 록 가능	독서동아리 25개~30개 내 외(30만원~50만원 이 내) 지원내용 -도서구입비, 문구류 등 재료비, 다과비 -강사 파견 지원 소요예산 : 10,000천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네방네 책읽는 금천 2019년 독서동아리 육성 공모사업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독서동 아리 50개 관내 주민 또는 직장인이 ⅔ 이상 참여	독서동아리 육성 지방 보조금 지원 ※ 독서동아리별 20~40 만원 차등 지원 -도서구입비, 현장체험 비, 대관비, 재료비, 다 과비 등 편성 * 총 공모액 : 총 1,500 만원 (민간 경상 보조 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년 성북구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성북구내 도서관, 학교(학생· 학부모), 직장,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5인 이상의 독서동아리	총18,000,000원, 26개 독서동아리 지원 *도서구입비, 강사비, 소 모성 물품 구입비, 다과 비, 홍보/인쇄비 및 견학 /체험 활동비
경기도	고양시	2019년 고양시 동네 서점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고양시 지역 서점 중 경기도 지역 서점 인증 기준에 부합 하는 서점	*고양시 거주 작가 인력 풀 제공 *독서동아리 지원 워크 숍 개최 *서점 규모별 독서문화 활동 우수 운영사례 강연 *독서동아리 리더 교육 *서점 독서동아리 회원 모집 홍보대행 *독서동아리 운영에 필 요한 재정 지원 *지원범위 : 서점 사용 료, 리더 수당, 저자 강 연비 지원

지역	기관명	공모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세종 특별 자치시	세종시	독서 동아리 등록사업	5~10명 내외 정기적인 (월 1회 이상) 독서모임 소규모 독서 동아리 (직업 및 연령 등 관계 없음), 직장 내 독서클럽, 학교 내 독서동아 리 등 제외대상 : 종교 및 정당활동, 영리목적 동아리 등	공간제공 도서제공 동아리 컨설팅 지원
충청 남도	서산시	독서동아리 발굴지원사업	- 서산시에서 활동중이거나 활동 예정인 독서동아리(30 팀 선발) - 5~7명의 회원이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갖는 독서 동아리 - 자부담으로 보조금 매칭이 가능한 독서 동아리 제외대상 1.종교 및 정당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2.동일사업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받는 동아리 3.독서활동을 자발적이고 주 체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동 아리	동아리 운영비 지원 (연 60만원), 자부담 매칭 필수 도서구입 및 문학기행, 작가 특강 등
서울 특별시	은평구		은평구 기반 5인 이상 책모 임	책모임을 바탕으로 주민 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 램 기획 운영 ex) 책모임 네트워크 파 티 기획, 저자 강연회, 북콘서트, 낭독회, 전시, 문집 제작 등 지역활동 총 5개팀 선정, 팀별 60 만원 내외 지원

1-6) 도서관정책 브랜드화 및 홍보 강화

- 도서관 이용자수와 대출권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독서 캠페인과 더불어 도서관정책을 알리려는 노력을 통해 독서지표 하락 분위기를 쇄신하고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순천시 도서관이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게 할 수 있음.
- 기존의 사업별, 각 도서관별 홍보가 아닌, ‘도서관 도시’ 전체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방위적인 홍보체계가 필요함.
- 홍보 확대 방안
 - ‘도서관 도시’ BI 제작 및 적극 활용
 - 정원, 생태문화와 연계한 홍보
 - SNS 활용 홍보
 - 지역신문/방송 연계 홍보
 - 순천시 도서관 및 서점 지도 제작
 - 관내 주요 장소에 독서 상징 조형물 설치
 - 독서정보 LED 안내판 설치

※ 참고 사례 - 군포시의 독서진흥정책 홍보

군포시는 독서진흥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했음. ‘책나라 군포’를 브랜드화 하여 독서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고, 거리, 공원, 공공시설 등에 ‘책나라 군포’를 알리는 홍보물을 게시함. 관내 대표축제인 철쭉축제와 책을 연결시키기도 했음. 민선 7기 이후 독서진흥정책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림20> 군포시 독서진흥정책 홍보 사례



2. 교육 지원

2-1)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 순천시 80개 초·중·고교(분교포함)에 모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만 전담인력(사서자격증 소지자)이 배치된 곳은 11개교에 불과하여 배치율이 13.7%에 불과함. 이는 전남 평균 10.3%보다는 높지만 전국 평균 44.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임.
- 전남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 학교도서관 인력 및 운영 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편임.
- 순천지역 학교도서관은 전담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시설 노후화, 낮은 장서 질 및 장서량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학교 안과 밖의 도서관 인프라 차이를 줄이고 학생들이 책과 가까이 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의 주요 내용
 - 노후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
 -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

※ 참고자료 - 2019. 10. 11. 연합뉴스 보도기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광주 93.1% vs 전남 10.3% '편차'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독서 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시도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배치율이 93.1%지만 전남은 10.3%에 그쳤다.

올해 광주 초·중·고 317곳에는 모두 도서관이 설치돼 있고 사서 교사(44명)와 교육공무직(251명) 등 전담 인력 295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남은 초·중·고 828곳 중 826곳에 도서관이 있으며 사서 교사(79명)와 교육공무직(6명) 등 85명만이 배치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학교 1만1천835곳 중 99.6%(1만1천788곳)에 도서관이 설치돼 있지만 사서 교사(1천603명), 사서직 일반 공무원(31명), 교육공무직(3천618명) 등 전담인력은 5천252명으로 44.4%다.

시도별로는 광주 93.1%, 서울 81.5%, 경기 78.6%, 대구 70.5%인 반면 경북 9.4%, 전남·충남 10.3%로 지역별 편차가 심했다.

전담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직이 사서 교사와 사서직 공무원을 합친 숫자의 두 배가 넘었다.

여 의원은 "교육부가 사서 교사 법정 정원을 2015년 720명에서 2019년 1천603명으로 2배 이상 증원했지만, 전체 학교도서관을 전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도서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독서 교육 및 도서관 활용 학교 활동을 지원할 전담인력 확대를 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 학교 독서교육 지원 : 초등 북스타트, 청소년 북스타트 실시

학교 독서교육 지원 주요 내용

- 입학식날 책꾸러미 선물
 - 교사 독서교육 연수 확대
 - 학부모 연수 실시
 - 청소년 독서동아리 활성화
-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강압적인 독서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과 더 멀어지고 있음.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자살 등 어린이·청소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책을 통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초등학생 북스타트 책날개’와 ‘청소년 북스타트’를 도입하여 북스타트를 통해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접한 아이들이 정규교육과정을 거치면서도 계속 책을 좋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함.
- 초등학생 북스타트‘책날개’사업은 초등학생들에게 ‘책날개 꾸러미’(그림책 2권, 면가방, 학부모를 위한 책날개 안내 책자,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안내 자료 등)를 전달, 초등학교 교직원 독서교육 연수, 학부모 연수 및 독서동아리 활성화, 그림책 읽어주기, 작가와의 만남, 학부모의 학교도서관 봉사 등을 통해 학교의 획일적인 독서교육을 바꾸고, 책 읽는 학교·책 읽는 가정을 만들고 아이와 어른, 학생과 교사 모두 책을 좋아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운동임.
- 청소년 북스타트는 청소년들에게 책 꾸러미(청소년용 도서 2권, 청소년용 독서 가이드북,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안내 자료 등)를 전달, 교직원 독서교육 연수, 학부모 연수, 청소년 독서동아리 활동 유도 및 지원, 청소년 인문학 강좌, 노인·영유아 대상 책읽어주기 봉사 등으로 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성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임.
- 순천시에서 매년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독서교육 연수를 전면 확대하여 중·고등학교사 대상 ‘청소년 북스타트 독서교육 연수’를 실시함.

-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독서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함.

2-3) 학교-공공도서관 협력 강화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들은 학교도서관 지원이 핵심 업무임. 교사 연수 및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연수 실시, 학생 독서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순천시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없어 공공도서관과 학교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순천시교육지원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대부분의 학교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학생들의 독서동아리 활성화와 도서관 협력수업 등을 위해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협력은 필수적임. 특히 순천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서 학교 독서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중·고교 국어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실시하여 매년 대상을 확대해가고 있음.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국어 시간에 한 작품을 온전히 읽고 생각을 나누고 생각을 글로 쓰는 ‘통합적인 독서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도서 목록이 없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음. 학생들도 아무 정보 없이 도서를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경제적으로 도서를 구입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음.
- ‘한 학기 한 책 읽기’를 비롯한 도서 정보 제공, 수업이나 독서동아리 활동에 필요하지만 복본 구입이 어려운 책들을 공공도서관에서 단체대출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방학 중 학생 독서동아리 모임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음.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원 시티 원 북’과 같은 사업을 학교와 함께 추진할 수 있고,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참가자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됨.
- 정부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도 ‘지역 공공도서관과 연계를 통한 학습 모델 구축 지원(정책과제 1-3-5)’을 추진과제로 삼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협력사업 진행, 학교-공공 협력형 독서프로그램 발굴 및 확

산 등을 추진하기로 함.

※ 참고사례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학교 지원 업무

- 학교도서관담당자 협의회 운영
- 학교도서관 실무지원 및 컨설팅
 - DLS운영 지원, 학교도서관 운영 전반 컨설팅
- 학교도서관 운영자 및 이용자 교육
 - 학부모자원봉사자 및 도서부원 교육
 -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도서관 이용자 교육
- 학교도서관 학생 중심 프로그램 운영
 -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 사업
 - 학교도서관 연계 휴먼북 라이브러리
 - 학교도서관 연합 독서교실
 - 자유학년제를 지원하는 도서관 사서체험
 - 도서관에서 보물찾기
 -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 초등 새내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운영
 - 초등 새내기 학부모 대상 자녀독서교육 연수
- 학교도서관 담당자 독서전문 연수 운영
 - 학교도서관 담당자 독서교육 전문능력 신장을 위한 연수
- 교사용 '책꾸러미' 지원
 - 교육과정 연계 독서기반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과수업자료 지원
- 협력문고 운영
 - 장서가 부족한 학교에 교육자료 장기 지원
- 신간도서 목록 제공
 - 학교 수서업무 지원
 - 월별 어린이·청소년 신간도서 목록 홈페이지 탑재

3. 복지 지원

3-1) 육아의 사회적 지원 : 북스타트 확대

-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비영리단체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임.
- 북스타트는 아기들의 지역 도서관, 보건소, 동사무소 등에서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함. 그림책을 매개로 아기와 부모가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통해서만 길러지는 소중한 인간적 능력들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북스타트의 역할임.
- 북스타트 단계
 - 북스타트 : 6개월 ~ 18개월
 - 북스타트 플러스 : 19개월 ~ 35개월
 - 북스타트 보물상자 : 36개월 ~ 취학 전
- 순천시는 2004년부터 북스타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북스타트 단계와 북스타트 플러스 단계를 시행하고 있음. 매년 약 500개의 꾸러미를 배포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 ‘북스타트 데이’를 운영하고 있음.

<표56> 순천시 연도별 0세 인구수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세 인구수 (명)	2,128	2,187	2,091	2,001	2,103	1,915	1,817	1,695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더 많은 가정이 북스타트의 혜택을 접할 수 있게 북스타트 꾸러미 배포를 확대함.
 - 북스타트 단계 확대 : 모든 신생아에게 북스타트 꾸러미 선물
 - 북스타트 플러스 확대
 - 북스타트 보물상자 실시
- 육아에 지친 양육자들이 같이 책을 읽고 소통하며 서로 힘을 얻을 수 있

도록 양육자 책모임을 확대

3-2) 지식정보소외계층 대상 서비스 개발

-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보격차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
-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등 지식정보소외계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여 정보격차를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서비스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형태 및 보조기구 등이 달라짐. 따라서 장애 유형에 따른 대체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장애인 서비스를 개발·확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함.
- 장애인들은 장애인 단체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장애인 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와의 협업은 필수임.

<표57> 순천시 장애인 단체 현황

기관명	주소	설립일
지체장애인협회	중앙1길30-16(장천동)	1991.08.06
시각장애인협회	중앙로67(저전동)	1989.07.08
농아인협회	저전3길 8-10(저전동)	1991.06.29
장애인사랑봉사대	삼산3길42-1(석현동)	1996.12.23
척수장애인협회	순천만길184(교량동)	2006.04.16
신장장애인협회	장선배기1길6-47(조례동)	1993.12.08
장애인부모회	강남로40(장천동)	2006.07.10
여성장애인연대	중앙로4길 16-19(장천동)	2011.05.11

출처 : 순천시 홈페이지

※ 참고자료 - 2018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조사명 : 2018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전국 만7세 이상 시각, 청각, 발달, 지체장애인 3,606명
- 조사기간 : 2018년 8월 ~ 10월

1) 독서실태

구분	전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독서율(%)	49.3	48.3	38.8	65.5	48.0
하루평균 독서시간 (분)	69.7	80.3	75.3	58.7	66.1
연간 독서량 (권)	12.3	17.7	10.9	12.2	7.3
독서 목적	여가활동	여가활동	여가활동	여가활동	여가활동
독서 장소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선호 독서분야 (초등)	취미, 오락, 여행, 건강	문학	문학	취미, 오락, 여행, 건강	취미, 오락, 여행, 건강
선호 독서분야 (중고등)	취미, 오락, 여행, 건강	문학	취미, 오락, 여행, 건강	문학	문학
선호 독서분야 (성인)	문학	문학	문학	취미, 오락, 여행, 건강	취미, 오락, 여행, 건강

출처 : 2018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

2) 도서관/복지관 이용실태

구분	전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최근 1년 도서관/복지관 이용률 (%)	32.4	32.4	25.4	48.4	26.4
강화해야 할 서비스	쉽고 편리한 도서정보 검색시스템	쉽고 편리한 도서정보 검색시스템	쉽고 편리한 도서정보 검색시스템	쉽고 편리한 도서정보 검색시스템	쉽고 편리한 도서정보 검색시스템
강화해야 할 시설	이동 지원 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	이동 편의시설 확보 개선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	찾아가기 불편하다	찾아가기 불편하다	찾아가기 불편하다	찾아가기 불편하다	찾아가기 불편하다

출처 : 2018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

3) 독서프로그램 참여경험

구분	전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최근 1년 독서프로그램 참여빈도 (%)	17.3	18.6	14.2	23.7	14.0
프로그램 만족도 (5점 만점)	3.71	3.94	3.31	4.01	3.66
프로그램 정보 획득 경로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인터넷	도서관 내 정보	주변 사람들
가장 선호하는 독서프로그램 (참여자, 향후 참여 의향 O)	독서치유	독서치유	독서치유	독서치유	독서활동
가장 선호하는 독서프로그램 (비참여자, 향후 참여 의향 O)	독서치유	독서치유	독서치유	독서치유	독서치유
프로그램 참여시 가장 필요한 서비스	의사소통 서비스 등 인적요소 강화	접근성 편리	의사소통 서비스 (수어통 역, 속기)	인적요소 강화 (의사소통 서비스)	접근성 편리

출처 : 2018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

4) 대체자료 이용실태

구분	전체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	지체 장애인
최근 1년간 대체자료 이용 경험	19.7%	39.9%	13.1%	13.3%	12.0%
대체자료 입수 경로	방문 대출	방문 대출	전화	방문 대출	방문 대출
이용해 본 대체자료	-	녹음도서	수어 영상자료	읽기 쉬운 도서	읽기 쉬운 도서
가장 필요한 대체자료	-	녹음도서	수어 영상자료	읽기 쉬운 도서	읽기 쉬운 도서
대체자료 이용 시 불편한 점	필요한 자료가 부족	필요한 자료가 부족	독서보조기 가 없다	자료량과 종류가 적다	자료량과 종류가 적다
대체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대체자료에 대해 잘 몰라서	대체자료에 대해 잘 몰라서	대체자료에 대해 잘 몰라서	대체자료에 대해 잘 몰라서	대체자료에 대해 잘 몰라서

출처 : 2018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

5) 독서보조기기 이용실태

구분	전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최근 1년간 독서보조기기 이용 경험	27.3%	41.3%	27.4%	22.2%	17.4%
가장 필요한 독서보조기기	-	화면낭독 SW	화상전화기	터치스크린	높낮이 조절책상
독서보조기기 개선사항	쉽고 편리한 저가 기기 개발	쉽고 편리한 저가 기기 개발	기기 사용법 교육	쉽고 편리한 저가 기기 개발	쉽고 편리한 저가 기기 개발

출처 : 2018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

4. 산업 지원

4-1) 지역 독서생태계 조성

- 독서생태계는 책과 관련된 환경과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용어로, 책의 창작부터 유통, 소비, 그리고 재창작으로 이어지는 순환계를 형성하고 있음. 지역의 독서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서생태계가 원활히 순환될 필요가 있음.
- 순천시의 경우 독서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소비의 영역에 해당하는 도서관과 독자의 활동은 활발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관자료 구입, 시민 도서구입비 지원 등의 정책은 시민과 지역서점은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순천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려는 노력 또한 높이 평가할만함.
- 그러나 창작(저자, 출판사) 영역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유통(서점)영역도 운영 상황이 좋지 않은 편임.
- 지역 창작과 출판을 육성하고 서점 활성화를 지원하여 건전한 독서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독서생태계 조성 사업의 주요 내용
 - 지역 창작·출판 육성 : 순천 관련 작품을 저술하려는 저자나 출판사를 지원하여 지역 콘텐츠 확보
 - 지역콘텐츠 홍보 및 유통 :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자료 우선 구입,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에서 해당 도서를 적극 홍보

※ 참고사례 - 충북의 ‘상생충북book’

<그림21> 상생충북에서 제작한 동네서점 홍보 포스터와 서점 지도



출처 : 상생충북 페이스북 페이지

-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한 독서운동
 - 지역작가의 책을 지역출판의 힘으로 펴내고, 동네서점을 통해 사고팔고, 도서관에서 함께 읽는 상생의 책임기를 도모
- 새로운 문화생태로 만들기
 - 지역작가가 쓴 지역 이야기를 우선으로 하여 목록 제작
 - 출판과 서점조합의 협업으로 동네 서점에 지역저작물을 유통·판매
 - 서점과 도서관에서 전시하고 저자와 만나는 기회를 마련
 - 도서관과 학교는 해당목록을 공유하고, 우선 구입
 - 지역 작품을 읽는 문화와 지역 저자의 창작의지를 북돋우는 문화가 순환함

○ 지역 책을 알리고 함께 읽기

- ‘이웃의 삶, 이웃의 이야기 전시’ : 이달의 책 선정
- 매월 저자와의 만남 : 동네서점, 작은도서관
- 서점과 도서관지도 제작, 지역출판 도서자료 목록 만들기
- 동네서점 구매인증 쿠폰, 인증샷

○ 참여 기관 및 단체

- 조직 : 운영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
- 참여기관단체 : 충북문인협회, 충북작가회의, 청주지역서점연합회(17개 점),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45개소), 충북시민재단(충북NGO센터), 지역출판네트워크
- 협력 및 협약기관 : 청주시의회, 청주시립도서관, 충청도교육청, 청주 YWCA,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충북문화재단

*** 참고사례 - 의정부시도서관 ‘지역서점 마일리지 제도’**

- 의정부 시민의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의 대출 실적을 포인트화 하는 제도, 포인트는 지역서점에서 도서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
- 반납도서 1권당 100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10원 단위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 이 제도를 통해 공공도서관에서의 도서 대출권 수가 증가하고 서점 이용도 활성화 되고 있음.

*** 참고사례 - 용인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시민들이 서점에서 새 책을 무료로 빌려본 뒤 반납하면 책값을 지자체가 지불하는 제도로, 2015년 용인시에서 처음 시작함.

<그림22> 용인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출처 : 용인시립도서관 홈페이지

○ 이용방법

1. 관내 공공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하여 회원증 발급
2.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희망도서 바로대출” 신청
 - * 용인시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내서재→바로대출 신청/조회
 - * 월3권, 연체자는 불가
3. 대출 안내 문자 수신
4. 서점 방문 대출 (회원증 지참)
5. 대출 후 2주 내 서점 반납(1회 1주 연장가능)
 - * 도서연체, 미반납, 오.훼손시 대출 정지 및 변상
6. 승인도서 미대출시 다음달 도서신청 불가

- 2016년 한 해 동안 총 13,686명의 시민이 동네서점에서 54,460권의 책을 대출하고, 동네 서점당 매출이 평균 10% 이상 늘어나면서 일반시민의 독서문화 확산과 서점의 매출 증가라는 상생효과를 낳음.

<표58> 용인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참여서점 (2019)

구분	서점
처인구 (4개)	명지문고, 생각을담는집, 용인문고, 최강서점
기흥구 (8개)	구갈대지서점, 동백문고, 문화서점, 반석서점, 보라서점, 기흥문고, 블루키문고, 한울문고
수지구 (8개)	광고서점, 비전문고, 수지상현문고, 수지문고, 수지문고 학원점, 신봉문고, 우주소년, 하나문고

출처 : 용인시립도서관 홈페이지

4-2) 산업정보 지원

- 도서관은 항상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자원 및 교육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옴. 또한 디지털시대에 도서관은 기업가정신 및 비즈니스 개발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연결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공적 서비스로 제공하고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함.
-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서는 각종 전자저널을 구비해야 하며, 전문 인력 배치가 필수임.
- 산업 정보 지원의 주요 내용
 - 기업 비즈니스 지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 도서관을 통한 창업·취업 지원 서비스

4-3) ‘책 읽는 직장’ 환경 조성

가. 직장 독서 환경 조성 지원

- 직장에서 문고 설치, 직장 독서동아리 운영 등 독서 환경을 갖추고자 할 때 순천시에서 지원함.
- 문고 설치와 독서동아리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거나, 단체대출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나.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시행

- 독서경영은 독서와 토론을 통해 개인의 창의력을 이끌어내고 직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이끌어내는 경영방식을 뜻함.
- 순천시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를 시행하여 직장에서의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음.

5. 생태환경 지원

-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시의 비전으로 삼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생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굳건히 함.
- 순천시는 조례호수도서관을 생태환경 특성화 도서관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실시해 옴. 생태환경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앞서 특성화 부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단체와의 협력 부족 등으로 특성화의 성과가 쌓이지 않고 있음.
- 보다 적극적으로 도서관의 생태환경 지원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생태환경 전문 인력을 양성이 필수임.
- 또한 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도서관의 생태 전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생태환경 연구모임 및 독서동아리를 지원하여 특성화 성과를 시민사회로 확장을 유도함.
- 생태환경 지원 부문의 주요 내용
 - 전문서비스 제공 : 더 적극적인 생태자료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생태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 및 전문단체와의 협업
 - 시민활동 지원 : 생태환경 연구모임 및 독서동아리 지원

VIII. 신대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방향

1. 건립 지역 분석
2. 면접조사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 및 제안사항
3. 건립 기본방향 제안
4. 설계 추진시 고려사항

VIII. 신대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방향

1. 건립 지역 분석

1)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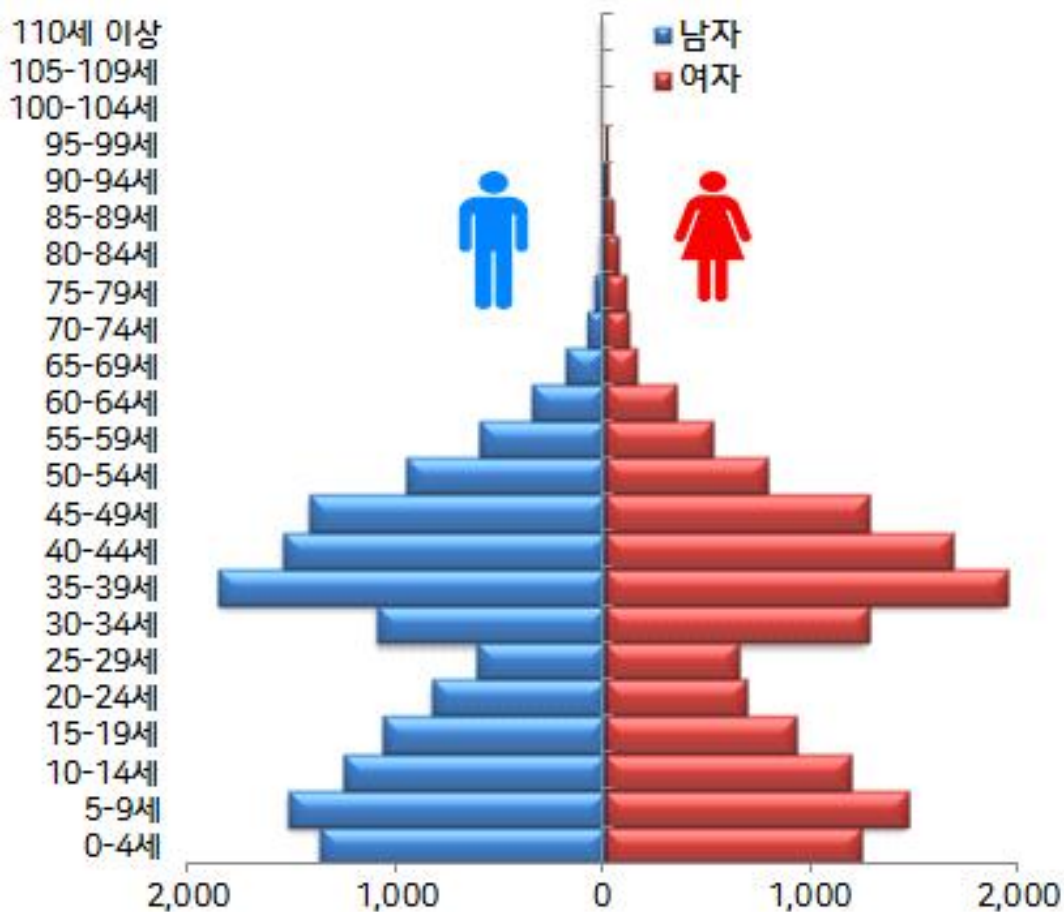
<표59> 신대지구 연령별 인구 변화

구 분	2017	2018	2019. 8
총 인구	24,202	27,788	29,299
0~4세	2,321	2,562	2,606
5~9세	2,478	2,848	2,982
10~14세	2,069	2,319	2,436
15~19세	1,706	1,923	1,985
20~24세	1,246	1,416	1,515
25~29세	939	1,146	1,262
30~34세	2,094	2,340	2,367
35~39세	3,101	3,634	3,797
40~44세	2,735	3,079	3,236
45~49세	2,125	2,422	2,697
50~54세	1,330	1,631	1,744
55~59세	841	1,033	1,122
60~64세	511	629	690
65~69세	262	299	338
70~74세	154	191	196
75~79세	125	146	151
80~84세	90	92	92
85~89세	56	52	58
90~94세	17	22	22
95~99세	2	4	3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순천시 제공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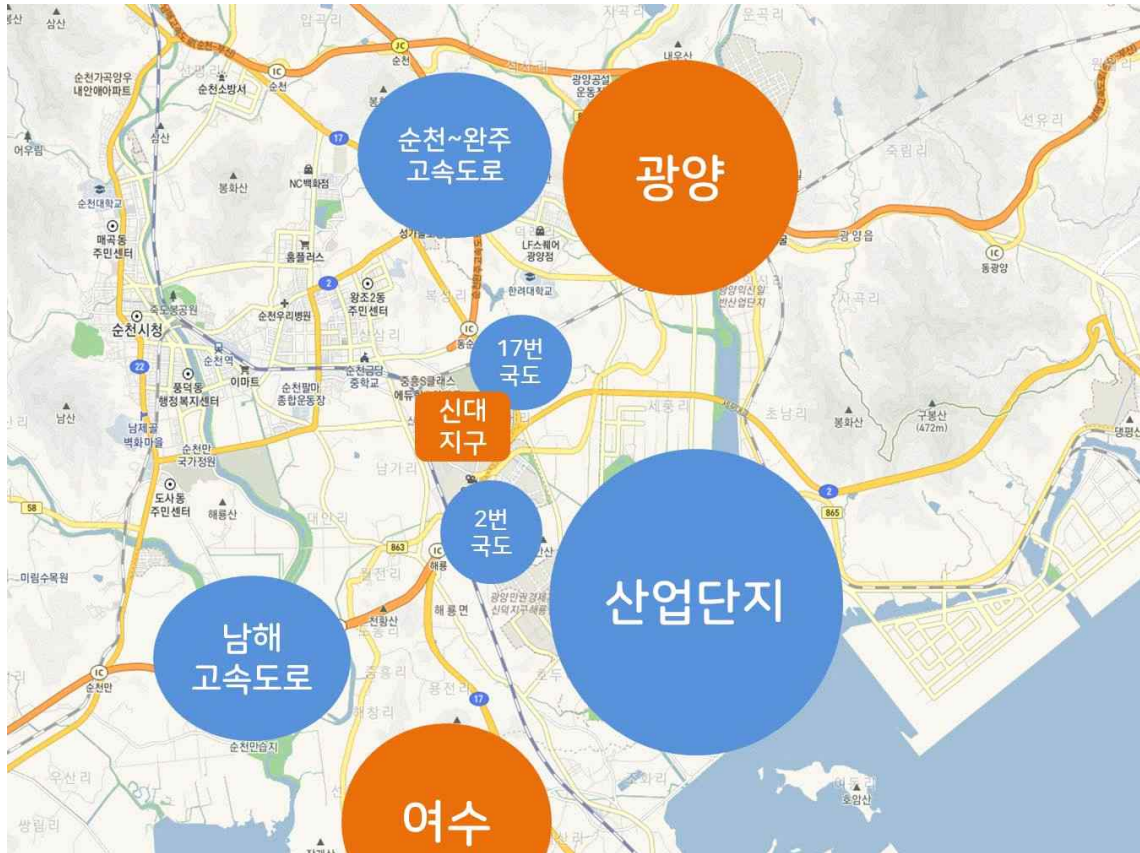
- 신대지구는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배후단지로 조성되어 산업단지와 인접한 베드타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아파트 단지가 9차까지 입주한 상황이며 2020년 11월 입주 예정인 10차까지 조성되어 있어 인구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9년 8월 현재 29,299명이 거주중이며,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순천시 원도심에 비해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함. 영유아와 부모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가 많음. 35~49세, 0~14세의 인구분포가 두드러지게 높고, 20대 및 노인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음.

<그림23> 신대지구 연령별 인구 분포도 (2019. 8)



출처 : 순천시 제공 자료

2) 교통



- 신대지구 인근의 신대교차로가 영암~순천간 남해고속도로, 전라북도를 관통하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용인에서 시작해 여수로 이어지는 17번 국도와 신안에서 순천과 광양을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2번 국도로 연결되어 타 지역 특히 인접한 여수, 광양과의 접근성이 좋음.
- 지구 내의 교통편의를 살펴보면 예정 부지 반경 500m 내에 14개의 버스정류장이 분포됨. 구도심을 지나는 14번, 구도심과 나머지 읍면까지 운행하는 30~35번, 연향동과 왕조동 등 신도심을 지나는 22번, 그 외에도 51, 53, 68, 69, 88, 555 등의 버스가 운행함. 다만 대다수 버스가 시가지 외부의 읍단위까지 운행하고 있어 배차간격이 큼.
- 도서관 건립 예정지 1km 내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아파트 단지 거주자의 도서관 접근이 용이함.

3) 교육문화시설

- 신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안초등학교, 신대초등학교, 좌야초등학교, 승평중학교가 있음. (삼산중학교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 공공시설은 공공도서관 1개소, 작은도서관 6개소, 보건지소인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음. 이외의 교육 문화와 관련된 공간과 여가시설이 매우 부족.

<표60> 신대지구 학교 현황 (2019)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매안초등학교	46개	1352명 (남 691명 / 여 661명)	65명 (남 21명 / 여 44명)
신대초등학교	32개	927명 (남 462명 / 여 465명)	49명 (남 20명 / 여 29명)
좌야초등학교	36개	937명 (남 498명 / 여 439명)	50명 (남 17명 / 여 33명)
승평중학교	30개	889명 (남 443명 / 여 446명)	61명 (남 20명 / 여 41명)

출처 :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그림24> 신대지구 내 학교 위치



<그림25> 신대지구 내 도서관 위치



2. 면접조사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 및 제안사항

1) 시민참여단의 의견

- 신대 신규 도서관 건립 참여단은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20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진행하여 2019년 10월 현재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했음.
- 위원 간 자료 공유와 타 도서관 탐방 등의 활발한 의견 개진 과정을 거쳐 도서관 콘셉트와 공간 구성에 관한 의견을 모았음.

분야	제안 내용
도서관 콘셉트	○ 가치지향적인 복합문화공간 ○ 내 집처럼 오갈 수 있는 도서관 ○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도서관 ○ 아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지식 확장을 경험하는 도서관 ○ 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도서관 (음악 청취 및 연주가 가능한 도서관) ○ 가족과 청소년이 함께 꿈꾸는 도서관 ○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도서관 ○ 창의성과 감수성이 충만한 도서관 ○ 자연친화적인 도서관 (숲 생태 특화 도서관) ○ 사람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 다양한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하는 도서관
공간 구성	○ 도서관 옥상 전체의 정원화 ○ 아이들이 안팎에서 뛰어 놀 수 있는 공간 ○ 아이와 어른 모두가 함께 머무는 공간 ○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문화공간 ○ 책만 읽고 싶은 이들을 위한 공간 ○ 층고가 높은 2층 규모로 건축 ○ 장애인, 노인의 이용 편의가 확보된 공간 ○ 1층 : 어린이와 아이를 위한 가족도서관 ○ 2층 : 주민을 위한 공동체 문화 형성 공간 ○ 3층 : 북카페, 문화센터, 열린 공간으로서의 열람실

-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개방적인 도서관 공간, 생태적이고 포용적이며 다양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앞으로 참여단 회의를 거치며 구체화된 의견이 실제 설계 과정에서도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됨.

2)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의 의견

-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신축될 신대도서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19년 9월 24일 신대지구 내 5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함.
- 신대지구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1단지글마루작은도서관, 2단지신이나 작은도서관, 3단지생태회랑작은도서관, 5단지도담작은도서관, 6단지메가드림작은도서관 운영자와 30~60분 사이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의견을 녹취, 정리했음.

분야	제안 내용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가족 단위로 도서관 이용하는 경우 많음 ○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이용 ○ 가장 붐비는 시간은 주말과 평일 오후 3~6시 ○ 주로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인기 많아 참가자 모집 어렵지 않음 ○ 자원봉사 활성화 됨 : 봉사자 수 10명 이상
신대도서관 건립 제안	○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 시끄러운 공간과 조용한 공간의 분리 ○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서비스 ○ 장애인 친화적인 도서관 ○ 주민이 사용 가능한 공연장 필요 ○ 공원 부족 -> 도서관 부지의 공원화

- 주로 어머니와 자녀가 동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규 이용자의 유입 보다는 이전부터 이용하던 이용자가 많은 편임. 따라서 이용자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평일과 주말 오후 3시~6시임.
- 도서대출 등 도서관의 기본 기능 수행 이외에,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중임. 도서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원봉사가 활발함.
- 신축 신대도서관에 대해서는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 포용적인 공간,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여 참여단이 제시했던 의견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3) 학교도서관 관계자들의 의견

- 신대지역 어린이들의 생활양식과 독서문화를 파악하고 학교도서관과의 협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신대지구 매안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순천시 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담당자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분야	제안 내용
신대지구 현황	○ 지구 내 3개 학교기관 중 매안초에만 사서 배치(공무직) ○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규모와 참여율이 좋은 편임 ○ 온책읽기를 시행중인데 독서가 학습화되는 경향을 보임(매안초) ○ 학부모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현재 수준에 만족(매안초)
신대지구 학생의 특징	○ 하루 평균 전교생 1,400명 중 10%인 140명 이용. 오전 오후 이용자가 중복(매안초) ○ 도서관 이용은 1~2학년, 도서관 행사 참여는 3~4학년이 높음(매안초) ○ 주로 학습용 도서가 아닌 도서를 이용(매안초) ○ 방과 후에 학교 문을 닫아서, 남는 시간에는 학원에 가거나 pc방, 친구 집에 모임
순천시와 도 교육청 지원 사항	○ 사서 교사가 매우 부족. (42개 초등학교 중 1개교) ○ 시청의 본예산은 교사 연수 지원 용도의 700만원 가량 책정, 도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 2,000만원을 재배정. ○ 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작가와의 만남 실시 중. ○ 시립인 현 신대도서관과 MOU 체결. 대출증 발급과 도서목록 요청 등 진행. (매안초) ○ 교육청 소속인 순회 사서는 2명으로, 72개 학교를 순회함. 1개교 당 1년에 최대 5번 방문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 ○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여름방학 프로그램(작가 초청, 그림책 놀이터)을 실시하고 예산과 강사를 지원. ○ 더불어 사서 교사가 없는 중·고등학교에서 도서반, 도서 동아리에게 도서관과 사서에 대해 알려주는 동아리 프로그램 실시. ○ 또한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중.
순천시와 도 교육청 지원 관련 바라는 점	○ 순회사서 충원 ○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지원을 해줄 것.
신축 신대도서관에 바라는 점	○ 반별 특성화 선정 도서를 학교 도서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상호대차가 가능했으면. ○ 청소년이 과제도 하는 동시에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4) 초등학생들의 의견

-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매안초등학교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함.

질문	답변
방과 후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은?	○ 바로 학원에 가서 시간이 안 남는다. ○ 집에서 학원 숙제 한다. ○ 3차단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논다. ○ 2단지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을 친다. ○ 하천 낚시를 한다. ○ 친구네 집에 가면 딱히 할 게 없으니까 핸드폰 게임을 한다. ○ 돈 쓰는 곳에 간다. (pc방, 노래방, 카페, 게임랜드)
현 신대도서관을 이용 하는지?	○ 주로 책을 보거나 공부하러 간다. ○ 깨끗하고 넓다. ○ 애들이 뛰어다녀서 너무 시끄럽다. ○ 너무 멀다. (새 도서관 부지는 길을 만하다.) ○ 횡단보도가 많아서 불편하다. ○ 읽고 싶은 만화책이 없다. ○ 평소에 소설, 만화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읽을 책이 많다.
새로 짓는 도서관이 어 뻤으면 좋을지?	○ 아늑하고 편하게 책 읽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도서관에서 책을 조사하는 숙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사서 선생님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책을 찾을 수 있는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 우리를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어른들 눈치 안 볼 수 있는 공간.) ○ 만들기, 축제 행사, 사서체험, 작은 극장, 컴퓨터 (웹툰, 게임) 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웹툰 만화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 VOD, CD, 기텔 수 있는 의자 (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 ○ 회원증 없이 책을 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서관은 조금 시끄러 워도 된다?	예 8명 아니오 4명
어린이 전용 공간이 필 요할까?	○ 예 우리도 떠드는 애들을 조용히 시킬 수 있다. 어른과 있으면 눈치 보이고 불편하다. ○ 아니오 어른이 책을 읽고 있어야 나도 읽고 싶어진다. 어른이 있으면 애 들이 떠들지 않으니까 책 보기가 좋다.

3. 건립 기본방향 제안

1) 모든 세대를 위한 도서관

- 현재 신대지구의 인구구조는 10대 이하 및 30~40대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약 10년 후엔 고령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특정 연령대를 위한 도서관이 아닌,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추.
- 상대적으로 공적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공간과 서비스를 마련함.

2)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

-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성별이나 나이, 장애 여부, 성적 취향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접근하기 쉬운 곳이어야 함.
- 자유로운 도서관 접근과 이용을 방해하는 요소 제거
 - 장애인, 노인 등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고려한 공간구성, 자료, 서비스
 - 어린이, 청소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 공공시설 사적 점유 금지(열람실 없는 도서관)
 - 어느 정도 소음을 허용하는 도서관(저소음 공간과 고소음 공간 구분)
- 벽으로 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통합형 공간
 - 세대 구분 없이 한 데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함
 -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3)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 신대지구의 부족한 문화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함.
- 자료이용뿐만 아니라 교류와 소통, 공연, 전시, 창작, 체험 등이 가능한 곳으로 건립함.

4)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하는 도서관

-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가는 도서관
 - 건립 과정과 운영에서 시민 참여 보장
- 자발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도서관
 -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배우고 싶게 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공간과 콘텐츠 구성
-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이 가능한 도서관
 - 메이커스페이스 및 디지털미디어 도입
 - 주민의 자발적인 창작활동 지원
- 공동체가 성장하는 도서관
 - 시민의 자발적인 모임과 활동 지원
 -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
 - 세미나실, 동아리실 등 주민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
 - 관 주도의 행사보다는 적극적인 대관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

5) 휴식과 쉼을 제공하는 자연친화 도서관

- 넓고 낮은 건축물
 - 아파트와 경쟁하지 않고 도시를 품어주는 이미지
 - 넓은 부지를 최대한 활용
-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에 걸맞은 친환경 건축물
 - 녹색건축인증 획득
- 정원 및 조경
 - 신대지구는 고층 아파트가 많고 공원이 부족함
 - 시민들에게 안정감과 휴식을 제공하는 정원과 조경 조성
- 지상주차장 최소화
 -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주차장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지상공간 확보

4. 설계 추진 시 고려할 사항

1) 운영계획 수립 후 설계 실시

- 대부분의 공공기관 건립 프로세스는 건물을 먼저 짓고 운영을 고려함.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야 운영할 사람을 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함. 그렇다 보니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해 함.
- 건축가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설계 전 운영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함.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운영인력과 조직, 제공할 서비스와 콘텐츠 등을 먼저 정해야 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음.

2) 신대도서관 건립 취지와 의미를 살리는 설계 방식

- 2단계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

- 신대지구 새 도서관 건립은 신대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향상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순천시의 도서관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프로젝트임. 이를 위해 순천시는 주민참여형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 하고 있음.
- 따라서 설계 방식은 ① 최선을 품질을 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 ② 시민이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및 특정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의무화하고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019년 기준 2억 원)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발주는 설계공모 적용을 의무화함.

<표61> 설계 공모 관련 규정

규 정	비 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표6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 설계공모 관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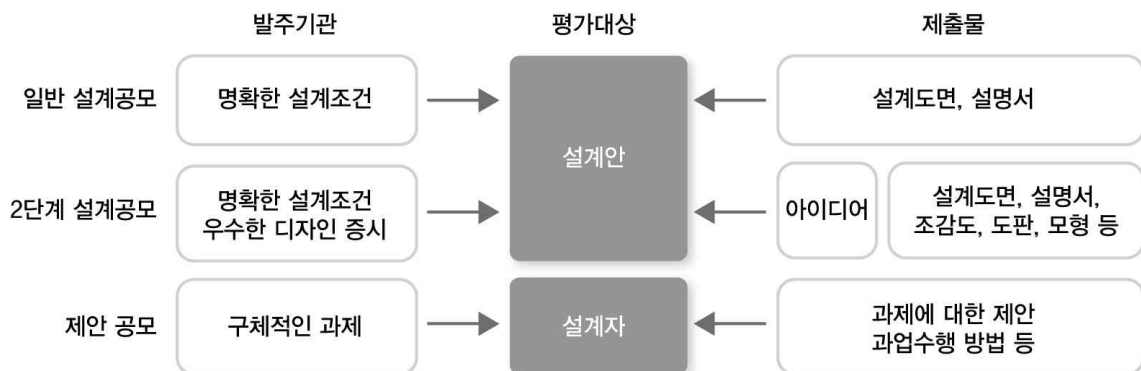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등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 국토교통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설계공모 방식을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63>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설계공모 방식

구분	내용	적용대상
일반 설계공모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	-
2단계 설계공모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1차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	1.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하는 경우
제안공모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아이디어,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설계자를 선정	1. 소규모 사업 2.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그림26> 설계공모 방식별 주요 특징



출처: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가이드』,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 일반 설계공모 방식은 설계조건이 명확해야 하며 선정한 설계안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음. 따라서 건축가와 시민들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설계를 발전시키기 어려움.
- 제안공모 방식도 검토할만하지만, 소규모 설계에만 적용 가능함.

- 새로운 신대도서관의 설계는 2단계 설계공모 방식이 가장 적합함. 2단계 설계공모 방식은 공모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가능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할 수 있고, 시민과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시민참여형 설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

5. 참고사례

1) 핀란드 헬싱키 중앙도서관 ‘오디(Oodi)’

<그림27> 헬싱키 중앙도서관 ‘오디’ 외관



- 2018년 12월 5일 개관한 핀란드의 헬싱키 중앙도서관 오디(oodi)는 어떻게 시민이 도서관의 이용자이자 동시에 설계자가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임. 오디(oodi)는 핀란드어로 특정한 사물에 붙이는 ‘헌사’나 ‘시’를 의미하는데,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바치는 선물의 의미임.
- 오디(oodi)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우 초기부터 시민들과 함께했다는 것임. 2000년에 새로운 헬싱키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 본격적인 논의가 오고가게 된 것은 2007년 초반에 진행된 여러 워크숍들을 통해서였음. 이는 다양한 종류의 도서관 이용객들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Heart of the Metropolis-the Heart of Helsinki (2008) (Leisti and Marsio, 2008)가 작성되었음. 이 보고서에는 모든 콘텐츠가 담겨 있는 도서관, 사회적 허브 및 소통의 장으로서의 도서관,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가득 찬 도서관 등 시민들이 꿈꾸는 도서관의 미래 모습이 담겨 있음.

<그림28> 헬싱키 중앙도서관 '오디' 3층



- 2010년에는 꿈의 나무(Tree of Dreams)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도서관의 모습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음. 시민들이 도서관을 향한 소망을 담은 쪽지를 나뭇잎처럼 나뭇가지에 매다는 방식이었음.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어 총 2,300여개의 아이디어를 받았으며, 2016년에 시작된 인테리어 디자인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음.
- 아이디어를 취합한 다음에는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이어짐. 2013년에는 꿈의 나무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8개 아이디어를 토대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함. 10만 유로(약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관한 워크숍을 3회 개최함. 꿈의 나무 프로젝트로 선정된 8개 아이디어 중 4개 프로젝트가 다시 선정됨. ‘Megaphone-Call’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와 응답을 독려함.

- 2012년~2013년에는 건축 디자인 공개공모가 이루어졌다. 이는 꿈꾸다!(Unel-mo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544건의 응모를 받아 심사를 거쳐 6건의 최종 후보를 선정함. 이 6건은 헬싱키 시립박물관, 온라인, 시청의 터치스크린에 전시되었으며 총 3,200명의 시민들이 투표함. 최종 선정은 심사위원들의 몫이었지만 이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직접 도서관 건립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끔 함.
- 2014년~2015년에는 ‘중앙도서관의 친구들(The Friends of the Central Library)’이 조직되어 다양한 시민 그룹들을 도서관 건립 과정에 참여시키는 데에 성공함. 이들은 워크숍, 설문조사, 온라인 협업 등을 통해 지역, 연령, 성별, 전문 분야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용자-개발자(user-developer) 커뮤니티’를 만들어냄. 총 95명의 지원자 중 28명이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함.
- 2016년부터는 서비스 디자인, 즉 어떤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그 중 하나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로, 여러 가족들과 워크숍을 진행하여 가족의 시점에서 유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구상함. 현재도 가족은 오디 도서관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며, 핀란드 문화교육부의 영유아 및 중등교육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오디(oodi)’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또한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함. 2015년에는 총 1600건의 응답을 받아 ‘오디(oodi)’를 선정하였음. 2016년과 2017년에는 도서 구입에 있어서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 화제를 끈 자율주행 로봇의 이름도 공모를 통해 선정함. 아이들에게 250건의 제안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각각 타투tatu, 파투patu, 비라veera라는 이름붙임. 타투와 파투는 핀란드 국민들에게 친숙한 ‘타투와 파투 시리즈’에 나오는 개구쟁이 형제로 친근한 이미지를 줌.
- 이렇게 다양하고 긴 참여 과정이 있었기에 오디는 개관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림. 일일 방문객이 20,000명으로 예상 방문객의 2배를 넘었고, 12월 개관식 이후 이틀 만에 어린이책 99%, 전체 장서의 70%가 대출됨. 이러한 인기는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온 공간이기 때문임.

- 한편, 이러한 적극적인 시민참여는 핀란드의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음. 핀란드의 새로운 공공도서관법 (Public Libraries Act 1492/2016)은 핀란드의 공공도서관이 ‘시민권과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학습과 작업, 기타 여가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지원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도 주목할 점임. 새로운 헬싱키중앙도서관이 처음 거론된 것은 2000년이었음. 이후 본격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에 7년이 걸렸고, 그 이후 개관까지 11년이 걸림. 관료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비해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지속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장점임. 현재도 오디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시민들과 함께 발전하고 있음.

참고문헌

- 오디 홈페이지 <https://www.oodihelsinki.fi/en/what-is-oodi/>
- Kari Lamsa, 2018, 「The story of Oodi」, Eesti raamatukoguhoidjate XI kongress, Estonia
- Mikko Leisti, 2008, 「The Heart of the Metropolis . the Heart of Helsinki」, Central Library Review
- Tuula Haavisto, 2017, 「A Dream Come True of Citizens. the New Helsinki Central Library」, IFLA WLIC 2017, Wroclaw

2) 일본 이나시립도서관 다카토브라리 프로젝트

- 일본의 나가노현 이나시에 위치한 이나시립도서관은 도서관이 어떻게 향토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결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이나시립도서관은 디지털 고지도 다카토브라리(高遠ぶらり)¹⁾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음.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음.
- 다카토브라리는 기본적으로 고지도를 제공함. 이 지도에는 현재 위치 정보가 표시되는데,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는 근방의 사적, 명소 등에 대한 기사와 사진을 비롯하여 현대의 관광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음. 고지도를 보면서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가상 여행을 하거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임.

<그림29> 좌) 다카토브라리를 활용한 야외 워크숍

<그림30> 우) 다카토브라리 어플리케이션 스크린샷



- 다카토브라리의 제작 과정은 도서관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줌. 기본 방식은 도서관에 보관된 고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주민들이 각 지점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함. 이를 위해 다카토브라리 제작위원회는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워크숍을 실

1) ‘高遠’는 2006년 이나 시에 편입된 (구) 다카토 정을 의미한다. 또한 ‘ぶらり’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모양을 뜻한다. 이를 합치면 다카토 지역을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된다. 한편, ‘高遠’은 높고 멀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높고 멀리 돌아다닌다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하였으며 어떤 위치에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를 결정함. 이 작업은 현재도 진행중이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다카토브라리 프로젝트는 고지도를 많이 보유한 이나 시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경우임.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워크숍과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홍보효과까지 거두고 있음. 단순히 공간적 허브 역할에 국한된 도서관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기존에 없던 관계를 새롭게 생성해내는 촉매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분산되어 있는 지역의 향토 정보를 아카이빙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지역 정보를 재이용하고 편집, 표현, 창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참고문헌

- 다카토브라리(高遠ぶらり) 공식 홈페이지 <http://takato-burari.info/>
-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ICT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 소개”
http://www.soumu.go.jp/menu_seisaku/ictseisaku/ictriyou/seikouzurei.htm

부록

1. 신대도서관 건립 참여단 1차 회의 회의록
2. 신대도서관 건립 참여단 2차 회의 회의록
3. 신대도서관 건립 참여단 3차 회의 회의록
4. 안문수 순천시 도서관운영과장 인터뷰
5. 순천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자문회의

<부록 1>

신대도서관 시민참여단 1차 회의 회의록

일시 :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장소 : 순천시 해룡면 신대도서관

참석자 (가나다순) :

서동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간사

신춘우 연향도서관 팀장

안문수 순천시립도서관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신대도서관 팀장

이하 참여단

강현미

김동운

김영재

김형선

김 호

박송이

박연숙

양창렬

이강범

이혜란

이미영

이봉금

임현정

주성효

최종훈

홍승기

진행 순서

1. 신대도서관 신축 경과보고

2. 참여단 소개

3. 임원선출

4. 첫번째 회의 진행

- 안건 : 모임 일자, 향후 회의운영방식

안문수 >

새로운 신대도서관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많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도서관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담을 예정이다. 내년부터 건립을 추진할 것이다. 기본계획과 디자인 건축이 진행된다.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우리는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할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도서관을 꾸며주시기 바란다. 여기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들은 반드시 도서관 설계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례로 기적의도서관에는 “도서관 하룻밤 자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도서관 전체가 온돌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의견을 내주시면 그 내용이 설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설계나 구조상 문제가 없으면 되도록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신대도서관 신축 경과보고**신춘우 >**

신대도서관 추진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개관은 늦으면 2022년 초가 될 듯하다. 위치는 해룡면 신대리 2040, 좌야초 옆 의료원 부지이다. 부지는 연향관의 3배이고 건축면적은 300평정도 크다. 사업비는 총 180억이고 국비가 72억, 시비가 108억이다.

(이하 문서 내 추진계획 설명)

안문수 >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되었다. 부지도 연향도서관의 3배로 확보했다. 이전에는 주차장, 어린이가 놀 공간이 확보 안돼서 이번에는 크게 잡았다. 지금 농작물을 심어놓은 공간과 주차장이 거의 다 도서관 부지라고 보면 된다. 처음 도서관 부지를 연향도서관의 3배로 잡은 것은 단순히 도서관만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주민 의견 때문에 차후 시에서 문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고려하여 부지를 확보했다. 현재는 도서관만 짓는 계획이 있다. 넓은 공간을 문화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여기에서 논의해주시면 대부분 반영할 것이다.

이은주 >

참여자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7월에 참여단을 모집했다. 20여 명

의 참여단으로 신청하셨다. 임기는 8월 29일부터 신대도서관 건립 후 6개월로 정해졌다. 정기모임, 운영방식 등은 임원 선출 후에 결정하겠다. 참여단 역할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새로운 도서관의 디자인, 시설, 운영프로그램,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신대 주민이 도서관 건립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인근 남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도서관 건립 기본 계획 용역이나 설계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서 중요하게 반영할 것이다.

참여단 자기 소개

김동운 >

조례동에 살고 있다.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참여하면서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했다.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도서관운영과에 박수를 보낸다. 건립 후 운영단계가 아니라 앞서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좋다. 죄송한 것이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감이 잡하지 않는다. 신대도서관이 순천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다음 세대까지 오래 멋진 도서관을 남을 수 있게 기여하고 싶다.

김영재 >

전부터 계속 의료부지에 도서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었다. 단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아니었으면 그 부지에 도서관이 들어서게 불가능했을 텐데 감사드린다. 이 도서관이 신대의 랜드마크가 되고 주민에게 행복을 줄 것 같다. 참여단이 함께 다른 더 좋은 도서관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최종훈 >

신대지구 1차에 거주중이고 신대 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다. 도서관 건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부지가 1차 가까운 곳에 건립되니까 도서관이 주민 쉼터 같은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했다.

박송이 >

9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 아이와 같이 도서관 이용하다보니 도서관에 관심이 생겼다. 도서관 건립에 도움이 되고자 참여를 신청했다.

이혜란 >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 저녁마다 매일 신대 도서관에 오고 있다. 아이, 아빠와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여러 의견을 모아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박연숙 >

기적의도서관 건립 때부터 봉사활동을 해왔다. 순천의 도서관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슷하다. 이번 신대도서관은 겉과 속이 아름답고 아이들과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관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해서 참여했다.

김형선 >

아이 둘 키우는 주부이다. 먼저 지어놓고 나서 참여한 도서관은 사용자 중심이 아닌데, 건립 전부터 일찍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 기대감을 갖고 참여했다.

김호 >

7년 전에 와서 신대에 살기 시작했다. 이 도서관 부지는 산삼도서관보다 훨씬 넓은 부지다.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단에 10~30대가 참여하지 않아서 아쉽다. 이왕이면 저녁에 모였으면 한다. 유현준의 <어디서 살 것인가> 책을 보고 공간, 건축에 대한 생각을 얻게 되었다. 시설이나 디자인에 관해 참고할 때 좋은 책이라 생각되어 추천한다.

이강범 >

뜻 깊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모두 감성 충만하신 분들 같다. 저는 디자인과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 “왜 공공기관은 건물 모양이 똑같은까? 도서관은 다 똑같은 외관, 디자인이 왜야하는가?” 항상 의문이었다. 건립 참여단을 신청하고 동영상으로 해외 도서관을 봤는데 디자인이 남달랐다. 신대도서관은 생김새부터 남다른 도서관이면 좋겠다. 아이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꿈이 자라나는 장소, 창의성과 감수성이 충만한 장소가 됐으면 한다.

이봉금 >

참여단에 참석하게 돼서 좋다. 도서관에 오면 설레고 마음이 편하다. 신대 도서관에서 장서 구성 봉사를 했었으니 함께 의견 나누며 배웠으면 한다.

이미영 >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다. 우연히 소식을 듣고 참여단에 신청했다. 이사 온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신대에 대한 큰 애착은 없이 지냈다. 문화나 교육에 관심이 많다보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가치지향적인 복합문화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지원했다.

주성효 >

저는 전문가이기보다는 주부로서 나왔다. 전에는 대학도서관 사서였다. 지금은 학교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있고 몇 년간 경로대학 강사로 참여했다. 어르신, 부모님, 아이들 모두 함께 인성과 감성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됐으면 한다. 경력이나 정치적 이용 없이 좋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참여단이 됐으면 한다. 기존의 도서관 이미지를 탈피해서 도서관에 들어가는 순간 애들이 “와!”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면 좋겠다.

양창렬 >

문제의식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 신대 도서관에 책이 없어서 다른 도서관에 가서 빌리는 등 불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건물 시공 관련 회사원이다. 예전에 사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기적의 도서관도 이용했었다. 주민들도 많이 만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좋은 도서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 참여하게 됐다.

임현정 >

저는 신이나 작은도서관 운영자이다. 신대지역은 문화혜택이 적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

강현미 >

도서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가볍게 참여했다.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도움이 될까 걱정이 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홍승기 >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다. 전에 여수에 살았고 남자 애들을 둘 키우다보니 도서관 이용을 못했다. 많이 읽지는 않지만 책을 소장하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 주로 읽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니 책에 관심을 갖게 돼서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했었다. 거기서 순천에서 왔다고 하면 순천이 도서관도 많고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보니 도서관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자가 한정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아이들, 어르신들, 장애인도 도서관 가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다. 생각보다 도서관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어 지원했다.

임원선출

(참여자간 논의를 통해 김동운 위원장을 선출함)

안문수 >

운영은 되도록 자율적으로 하시고, 의견을 모으는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면 섭외와 비용 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창렬 >

협의하려면 기본 정보가 필요하다. 설계 초안 나오는 일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주시면 좋겠다. 아무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원론적인 얘기가 될 듯하다.

안문수 >

오늘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하 책사회)에서 관계자가 참석했는데, 신대도서관 뿐만 아니라 순천시 도서관 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 계획에 신대도서관도 포함됐다. 자율적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책읽는사회에서 그걸 받아서 반영할 것이다. 그렇게 완성된 결과물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서동민 >

책사회는 기적의도서관 건립하고 북스타트 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단

체이다. 순천기적의도서관이 책읽는사회, MBC 느낌표, 지자체와 함께 2003년 건립한 1호 도서관이다. 2012년에 순천시에 전체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제안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묻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참여단 이외에도 학생, 아이들, 고령인구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책사회가 도울 부분이 있을 듯하다. 강사, 진행자를 섭외하거나 새로운 워크숍 기법을 알려드릴 수 있다. 해외 도서관 사례, 국내 도서관 동향 등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도시계획자가 보는 도서관에 대한 관점을 소개드릴 수도 있다.

회의 운영방식 논의

김동운 >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기모임을 하면 좋겠다. 유동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는 게 나올지, 시간은 오전이나 오후가 나올지 정하면 좋겠다.

이강범 >

날짜는 미리 못 박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은 저녁이면 좋겠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니까, 예를 들어 셋째 주 화요일이라든지 하시면 좋겠다.

김동운 회장 >

셋째주로. 요일은 언제가 좋을까?

김호 >

주부들이 많으니 격월로 오후 6시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어떨까?

양창렬 >

회사원이라 6시 이전은 참여가 어렵다. 가능하다면 토요일 일요일 야간 정도가 가능하다. 토요일이라면 오전 9시나 이른 시간에 가능하고, 평일이라면 야간이 좋다. 짧게 1시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

김동운 >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모두 주중에는 순천에 계시지만 금토일은 어려울 듯하다. 화수목 중에 선택하면 좋겠다. (화요일 저녁 의견.) 다른 의견 있으신지?

시간대는? (7시 의견) 식사는 각자 해결하시고? 장소는? (신대 도서관, 주민 센터) 가능하면 여기에서 모이셨으면. 정기모임은 이렇게 합시다. 매월 마지막째주 화요일 오후 7시 신대도서관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겠다. 정확한 날짜는 단톡방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통보하겠다. 안건이 생기면 그때그때 수시로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과반 이상 참여하도록 하자. 두번째 결정사항은 운영방향이 되겠다.

이강범 >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1, 2번을 섞으면 좋을 듯하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도움받아야 할 듯해서 1번과 2번을 섞었으면 한다.

김동운 >

회의할 때는 안건이나 방향 등을 사전에 생각해 오실 수 있는 주제를 던질 수 있도록 하겠다.

김영재 >

제가 개인적으로 문서나 자료를 한달 동안 모았는데 최근 트렌드는 이미 다른 도서관에도 반영이 돼있다. 단지 규모와 면적이 다르다. 우리는 200억 정도 규모인데, 다음 회의에는 모든 사항을 알고 난 후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 충분한 공감과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결정했으면 한다. 제가 온라인 공간 (밴드)에 올리겠다. 우리 생각보다는 트렌드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바로 가야할 것 같다.

김동운 >

가장 쉬운 방법은 벤치마킹이다. 자료나 추천도서를 주시면 서로 공유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보자.

김영재 >

밴드를 만들어서 초대하겠다. 단톡방도 만들겠다.

김호 >

도서관 관련해서 변하지 않는 사항과 변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알았으면 한다. 200억이란 돈이 감이 안 온다. 건물이 보기는 좋은데 활용도가 떨어지

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쪽에 유일하게 생기는 문화복합시설이 지금의 신대 도서관 부지인데, 이제 지어질 도서관 부지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김동운 >

지금은 부지만 결정된 사항이다.

신춘우 >

예산이 200억이 넘으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사실상 200억 넘을 것이다. 인테리어 등에는 시 재원이 들어갈 것이다. 200억이 넘으면 심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180억으로 잡아놓았다. 연향동에는 중규모로 200석 공연장을 지은 것이고, 지금 계획된 공연장 500석 규모도 큰 편이다. 지금 나온 사항들은 일단 제시된 것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공연장은 별도로 부지를 확보할 것이다. 일단 적당하게 짓고 문화예술 공연장이 따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 주차장도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다. 도 투융자 심사에서도 통과시에 의견이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의견이 나왔으니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김동운 >

오늘은 일단 기본 운영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 다른 의견 있으신지? 없으면 설문지 작성하겠다.

서동민 >

저희는 순천에 자주 올 예정이고 신대 지구는 사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실테니까 당장 도서관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는지 여쭙보기는 어렵고 생활 만족도, 도서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자 설문을 준비했다. 설문을 수집 분석하고 온라인으로 전체적으로 설문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 가능하시다면 링크를 드릴테니 주변 분들에게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안문수 >

아까 고정된 사항을 질문 주셨는데, 장소와 부지 위치와 크기는 정해져 있다. 건축비 180억도 마찬가지다. 인테리어, 집기, 도서구입비, 그외 사항은 추가로 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것만 결정된 사항이다. 예산이 180억이라 전국공모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설계 공모를 할 것 같은데 이 곳에서

나온 의견을 제안할 것이다. 설계업체가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는 도서관 운영방향 등을 집중논의 해주시길 바란다. 그 논의가 설계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업체가 지정돼서 설계가 들어가면 과정에 참여해서 미리 논의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설계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중 설계가 변경될 수 있는데 이 때 의견을 낼 수 있다. 설계가 완료되면 운영계획을 잡기 시작한다.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등의 도서관 내용을 채운다. 실제로 도서관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최종훈 >

지금 이곳 신대출장소 도서관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걸 알면 180억이 들어가는 도서관을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논의할지 감을 잡을 수 있겠다.

안문수 >

보통 도서관은 일반 사무용 건축비 대비 높다. 책 하중이 있기 때문에. 사무용 건물이 700만원이라면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한다. 예산 180억은 건물을 세우는 것, 전기 통신 등 뼈대를 세우는 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다. 지금 들으신 전반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회의해주시길 바란다. 단, 좋은 의견이라도 실현불가능한 것은 안된다고 말씀드릴 것이다. 건축사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건축비가 크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견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전문가와 의견 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행정은 절차만 진행을 하고 참여단이 신대도서관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장서 목록도 제시해주시면 좋다. 3~5만권 정도가 처음에는 들어가야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를 위한 독서공간이란 의견에 대해서는, 이전에 신대도서관은 가족이 이용하기 편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잡았다.

처음에 실수한 것이 이 도서관이다. 전남도에서 이 택지를 개발했고 운영권을 순천시에 준 것이다. 순천시에서 의견만 제출했을 뿐 건축을 주관할 수는 없었다. 연향택지개발은 순천시에서 했다. 금당지구는 도에서 개발했다. 이곳도 도에서 개발했다. 아마 시에서 개발했다면 도서관운영과가 관여해서 처음부터 이곳에 도서관을 지었을 것이다. 당시에 장소를 잡다보니 급조해서 이렇게 도서관이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도서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차후 신대 도서관 새로 지으면 이 도서관도 같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이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규모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정했으니 참여단은 이 도서관에 대한 용도 변경 논의는 삼가주시길 바란다. 분관 개념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새 도서관 건립에 대해 논의하실 때, 일단 운영방향을 세워주시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나 시설을 계획해주시고 주변에 함께 들어올 건물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모에 붙이면 디자인 전문가들이 우리가 논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

이제까지는 주로 모든 사항을 사서들이 고민하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 계신 주민 분들이 10년 후 신대 지구의 상황을 생각해서 도서관의 가변성을 고려해서 계획해주시기 바란다. 부지선정부터 주민들과 모여서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과드리고, 일단 최적의 장소로 선정했다고 본다. 앞으로는 도서관의 기능이 확장될 것이다. 도서관을 책 + 프로그램으로 한정 짓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달라. 이제는 도서관의 전체적인 운영방향이 ‘도시의 거실’로 바뀌었다.

김동운 >

또 하실 이야기 없으시면 1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다.(*).

<부록 2>

신대도서관 시민참여단 2차 회의 회의록

일시 : 2019년 9월 24일 오후 7시 ~ 9시

장소 : 순천시 해룡면 신대도서관

참석자 (가나다순) :

이은주 신대도서관 팀장

이지연 삼산도서관 직원

허재원 도서관정책 팀장

서동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간사

이하 참여단

강현미

김동운 회장

김영재 총무

김현선

김호

김환구

박송이

박연숙

안유순

양창렬

이강범

이미영

이봉금

이혜란

임현정

주성효

최종훈

홍승기

논의 안건

1. 도서관 콘셉트 선정

2. 기타 논의

김동운 회장 >

오늘 참여단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겠다. 그 전에 시에서 담당자가 새로 오셨다. 잠시 인사 듣고 시작하겠다.

허재원 작은도서관팀장 >

도서관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내년 예산 국비 20억 원, 시비 50억 원이 작은도서관과 신대도서관에 배정되었다. 신축되는 신대도서관 설계는 무조건 내년에 하기로 결정되었다.

김호 >

지금 보시는 자료는 거주민의 성향, 인구분포에 대한 것이다. 신대출장소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신대지구가 순천사람으로만 구성된 건 아니니 시야를 넓게 가져가자는 취지로 요청했다. 신대는 특히 30대가 많은데 향후 인구분포를 고려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요청한 자료다.

김동운 >

자료에 나와 있는 인물도서관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허재원 >

순천에서 태어나거나, 자라거나, 순천에서 일을 하면서 거주하는 문학가, 역사가같이 순천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작은 코너를 만들어서 현재 삼산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허형만관이 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신대도서관에 순천과 관계된 인물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다.

도서관 콘셉트 선정

김동운 >

콘셉트를 고민해봤는데 부지 건평은 연향도서관의 약 세 배 정도다. 기적의 놀이터를 연계하거나,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도 좋다. 순천시 시청사 건립에도 시민참여 디자인단이 꾸려졌고, 놀이터 건설의 경우도 어린이 디자인 스쿨, 감리단 등의 주민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강범 >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와 같이 생태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순천시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도서관이면 좋겠다. 참고로 세종시는 자연친화적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접근성을 높이고 개방적인 것이 핵심이다. 신대지구는 세종시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도서관에 가서 힐링하고, 쉬고 싶단 생각을 했는데 세종시 도서관 콘셉트가 이와 비슷했다.

김영재 >

콘셉트를 하나로만 확정할 수 없다. 아까 말씀하신 인물자료관은 여러 콘셉트 중 하나일 뿐이다. 다른 도서관들도 여러 콘셉트가 복합되어 있다. 잘 된 도서관을 적절히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김동운 >

적극적인 벤치마킹에 동의한다. 완전 새로운 걸 창조하기에는 힘들다.

최중훈 >

우리가 도서관 이름도 정할 수 있는가?

이은주 >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최중훈 >

도서관의 이름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인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름을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생태회랑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생태회랑은 책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운동을 하다가 들르는 등 여러 목적으로 방문하는 곳이다. 운영과장님 말씀으로는 숲속의 도서관으로 콘셉트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숲속의 도서관도 새로운 신대도서관 콘셉트로 활용하기 좋은 것 같다.

주성효 >

부천에 있는 역곡도서관은 숲 생태 특화 도서관이다. 도서관 바깥으로 나오면 공원과 바로 연결된다. 이처럼 숲이나 공원길로 해서 바로 연결되는 것도 좋다. 참고로 역곡도서관은 21,000권 정도 생태관련도서도 따로 소장되어 있다.

김동운 >

그건 작은도서관 얘기다. 신대도서관은 크게 보면 광양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의 대표 도서관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 접근방식은 조금 어렵지 않나.

주성효 >

도서관에서 책 자체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개념이면 좋겠다. 굳이 생태 도서관이라는 개념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허재원 >

생태 개념은 현재 호수도서관의 특성화 개념이다. 연향도서관은 청소년 중심의 특성화 개념을 갖고 있다. 삼산은 어르신과 가족 특성화 개념이다. 그런데 신대도서관은 직원회의에서 공연장은 필수로 두자고 정했다. 발표회나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중소 규모의 공연장이 신대에 없기 때문에, 공연자와 관객들이 삼산동까지 가야하는 실정이다. 또 서고, 열람실, 식당 같은 것은 필수로 되어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가족들이 최소한 반나절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계획 검토 중에 산을 깎아서 숲속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토목비가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현재 신대 도서관 부지는 주로 건축비만 든다. 숲속도서관은 옥려봉을 옆두에 두고 계획되었던 것이다.

김동운 >

도서관에 공연장이 꼭 필요한가?

허재원 >

독립적인 공연장을 만들기는 무리다. 다만 복합공간으로서의 공연장 개념을 추구했으면 한다. 신대에는 5~6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없다. 평생학습문화센터는 400석 규모, 순천문화예술회관은 1,000석이다. 도서관에 포함시켜 공연장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

김동운 >

공연장은 빼고 도서관만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허재원 >

물론 도서관도 비록 소규모라곤 하지만 공연장이 있다. 그런데 100석 규모의 공연장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부지에 더 큰 공연장을 지어서 도서관과 연계하면 어떤가?

김영재 >

신대도서관은 연면적 10,000㎡도 안 되는 중소 규모의 도서관이다. 이 정도 규모면 200석 정도 공연장이 맞다. 현재 예산을 보아도 그 정도 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허재원 >

부지 면적이 19,000㎡고 건물 면적은 정해진 것은 없다.

김영재 >

우리 도서관 면적에 큰 규모의 공연장은 힘들 것 같다.

김환구 >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첫 번째로 관에서 참여단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는지 궁금하다. 관이 주도하고 우리는 일부 의견만 제시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 것인지 명확하게 해 달라. 그래야 공연장 건립도 명확하게 될 것 같다. 두 번째로, 보통 쇼핑센터는 의류 판매 구역과 식당가가 따로 있는데, 용인 수지 롯데몰은 층마다 식당이 있는 형식이었다.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도서관 자체를 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도서관이 단순히 책 읽을 장소가 아니라 만나질 이상 머물 곳이 되려면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해 주신 자료 중에 사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사진을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연장 규모도 안건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미영 >

각자 원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다 들어보면 어떨까? 요즘 열린 복합문화공간이 트렌드다. 친환경 같은 콘셉트도 대부분의 공간에서 반영하고 있다. 지금 신대지구의 사람들은 집에만 있거나 갈 곳이 없다. 누구나 편히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마을공동체, 덜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 생태와 더불어 환경 쪽으로 생각해 보면 여수에 환경

도서관이 있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체험도 하고, 아이들에게 환경 관련 책을 추천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테마관 같이 기후 관련 코너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양창렬 >

오늘이 두 번째 모임인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 오늘 각자 생각해올 과제를 마련하고, 한 달 후에 의견을 취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면 어떨까? 오늘 받은 자료에는 전남도청사가 2022년 완공 예정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따로 공연장이 들어오는 건 아닌가?

허재원 >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두 군데 모두 500석 규모로 지을 순 없다. 도청사에 큰 공연장이 생기면 신대도서관은 소규모 영화상영이나 강연 등을 할 것이다. 그건 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김동운 >

(그 공간을) 꼭 공연장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지? 고민을 해야겠다. 규모가 큰 것도 아니라면 과연 필요한가? 순천만 정원 컨퍼런스룸처럼 영화 상영도 하고, 아이들이 뛰어 놀기도 하고, 행사도 할 수 있게 가변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허재원 >

저희가 도청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김동운 >

전체 도서관 부지에서 강당 비중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 호수공원의 강당은 1년에 며칠 쓰는지? 3분의1은 쓰는지? 그 정도는 못 쓸 것 같다.

허재원 >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쓴다고 보면 된다.

김호 >

개인적으로 순천문화예술회관보다 더 크고 앞뒤 간격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 공연장이 들어왔으면 한다.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500석 공연장을 짓는

나는 나중 문제다. 아이들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커 간다. “나는 농구를 안 하니까 신대지구에 농구골대는 하나면 돼!”와 같은 시선은 좋지 않다.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북카페를 가서 음식을 사 먹는 데에도 돈이 든다. 그런 만남을 도서관이라는 복합문화공간에서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 가족중심과, 청소년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이강범 >

지금 몇 분이 염려하는 것은 공연장 기능이 커지면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절히 배분하시면 될 것 같다. 다 있으면 좋지 않겠나?

허재원 >

설계를 공모로 할지 말지를 11~12월에 결정할 예정이다. 업무 추진 시에는 카톡이나 밴드에 공유하겠다.

김동운 >

공연장도 있지만 예를 들어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창작 공간, 음악 활동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말씀 안 하신 분들도 말씀해 달라.

최중훈 >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도서관을 생각하면 책을 떠올리지 않나? 그런데 어린이들에게는 동영상도 익숙하다. 요즘은 지식 습득의 방향이 다르다. 도서관의 틀을 깨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지식을 확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체험, 동영상을 활용하는 방향도 좋겠다.

김동운 >

도서관을 놀러오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추세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허재원 >

우리 때만 해도 도서관은 독서실과 같은 개념이었다. 지금은 가정집이라고 생각한다. 집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곳이지 않나? 누구나 편안하게 집처럼 생각하고 오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 내 집처럼 꾸미려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건축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건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다른 도시에 비해 순천 도서관이 건

물구조가 잘 되어 있다. 매년 투자도 많이 한다. 다른 도시보다는 도서관 건축이나 운영에 대해 의견 청취를 많이 할 것이다. 제안해 주신 것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시도록 설명 드리겠다.

김동운 >

1차적으로 얘기 듣고 차차 좁혀가는 걸로 하자.

임현정 >

2차신이나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임현정이다. 현재 참여단이 3~50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세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가 없었다. 신대지구에 5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작은도서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밴드에 다양한 도서관 자료를 올려주셔서 감사드린다. 배울 점도 있었고, 우리 도서관의 방향성도 고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원하는지와, 지금 신대도서관이 뭐가 불편한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먼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그 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자.

양창렬 >

여기에 작은도서관 운영자 두 분이 계시다. 그 분들이 1차적으로 주로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신대지구의 부족한 현실을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이 이 분들일 것이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계획안을 도출하면 좋겠다.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겠다.

임현정 >

지금의 신대도서관은 유아와 성인 공간이 나뉘어 있는데, 가장자리의 공부하는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거기서 공부하고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분들이 불편해 하기도 한다. 또 서로 방해될까봐 염려하게 된다. 각 아파트 단지마다 독서실이 있는데, 새로운 신대도서관은 독서실 개념은 아니었으면 한다. 요새 가족 단위로 ‘놀숲’을 많이 간다고 한다. 끼리끼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공간을 도서관에 만들었으면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회의를 통해 앞으로 자신들이 갈 도서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어른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우리가 몇 십 년 후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것인지, 그때 어떤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지, 그 아이들은 어떤 도서관을 원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김환구 >

굉장히 공감한다. 나는 유치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3~4개월 전까지 5단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이었다. 본업이 중고생을 만나는 일이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끼리 얘기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다음 달까지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 시 측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회의나 토의를 통해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 기적의 놀이터가 그런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코엑스 별마당도서관, 광양 LF의 서점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책 보시는 분들은 본다.

김동운 >

지금 순천에서 독서실 기능은 연향도서관만 있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그렇게 짓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이 특수한 케이스다.

홍승기 >

설문 대상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포함되었으면 한다. 이왕이면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나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도 대상으로 했으면 한다. 또한 새로 지어지는 신대도서관이 신대의 중심 도서관으로서 주위 도서관들과 연계해서 각 도서관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서로 협력하면 좋겠지만, 학교도서관이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는 형태가 되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듯하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신대도서관이 중심 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과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듯하다.

주성호 >

초중고생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솔직하게 말해서 도서관 담당 선생님이 매우 바쁘시다. 업무나 도서 추천목록 작성조차 학생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할 정도이다. 담당 선생님은 공적인 일을 하시고, 좀 더 현실적인 얘기는 봉사자 분에게 들어야 할 듯하다. 현재는 순천이 학교 도서관과 연계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관리중이다. 그러니 도서관 내에서 아이들에게 설문을 받는 게 어떨까?

김동윤 >

설문 관련해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다.

서동민 >

오늘 1시 반부터 신대지구 내 작은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각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만났다. 주로 청소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 현실적으로 신대지구의 가장 큰 현안은 청소년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도서관이든 어디든 청소년이 갈 곳이 없다. 지난 번 설문 결과 중에 신대에 녹지가 많아서 좋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도를 보면 공원이랄 만한 곳이 없다. 단지 내 조경이 있지만 아파트 안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청소년들이 편히 친구를 만나거나, 아무 것도 안 하고 비어있는 시간에 쉴 수 있는 공원이랄 만한 곳이 없는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들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견 수렴의 여러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다수의 인원에게 설문지를 뿌리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적은 인원과 깊이 소통하며 의견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기적의 놀이터는 후자의 경우다.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경우는 어느 학교에나 교사 중에 학교 도서관 담당자가 한 분은 계시다. 또 사서 자격증 소지자나 상근자, 봉사자가 있는데, 저희가 날을 잡아서 직접 찾아가서 이 분들과 다 같이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다. 학교에서는 어느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말이다. 학교 도서관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학습지원이나 수업지원에 한계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공간이나 자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각각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이러한 부분을 제안드릴 수 있을 듯 하다. 좌야초, 매안초 등의 관계자분들에게 연락하고 있다.

주성효 >

교육청에 소속되어 순회하는 사서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듯하다.

서동민 >

학교별로 방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다음에 공유하겠다.

김호 >

가족과 청소년 애기도 좋지만 솔직히 저는 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 계신 분들도 3~40대다. 초점은 당연히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늙었을 때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셨으면 한다.

안유순 >

그래도 1, 20년은 아이들을 키우셔야 할 분들이 많으시니 우선은 아이들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을 논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자료 올리신 것 중 울산의 경우가 마음에 들었다. 신대도서관도 가족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통로가 한쪽으로 트여 있으니까 아이들은 뛰고 싶은 만큼 뛰고 있다. 이런 아이들을 제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책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책만 읽으실 분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겠다. 기본적으로 가족도서관 콘셉트를 유지하더라도 책을 읽을 분에 대한 배려도 따로 있어야 할 것이다.

김동운 >

이 문제는 층을 나눠서 해결할 수 있겠다. 어린이가 1층이면 2층이 성인으로 한다면지. 아이들이 2층까지 가서 뛰지는 않으니 말이다. 층 분리로도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민감하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말이다.

안유순 >

광양에는 희망 도서관이라는 어린이 도서관이 새로 생겼다. 1~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유아용, 2층은 가족들이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주말에도 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그 공간은 아이들과 같이 하게끔 하는 것은 어떤가.

김동운 >

순천은 기적의 도서관이나 그림책 도서관 등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다른 의견 한번씩 다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듣고 압축을 하자.

김현선 >

저는 지난 시간에도 그랬듯이 숲에 관련된 도서관 생각을 많이 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정원처럼 만든 곳처럼 어디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옥상정원처럼 조성했으면 좋겠다. 숲이 조성된다면 그 곳에서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세종 도서관처럼 말이다. 테마 자체가 숲이 아니더라도 숲 관련 공간을 두는 걸 목적으로 하면 좋겠다. 순천은 생태도시답게 도서관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는 옥상의 절반만 정원처럼 되어 있다. 우리는 도서관 옥상 면적 전체를 옥상정원으로 하자. 다른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우니까 말이다. 독서실은 당연히 고려 대상이 아닐 것 같다. 인물도서관의 경우 자료실 형식은 순천만 갈대밭쪽에 있다. 그런데 인물을 추가할 때마다 공간을 차지하는 건 아닌가 싶어 굳이 이 도서관에 넣어야 할지 의문이다. 시에서 추진하신다고 하시니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료실을 굳이 넣어야 하는가 싶었다.

김동윤 >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곳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물도서관이 한 사람씩 방을 만드는 건 아니다. 수집자료실을 두는 것이다.

박연숙 >

앞의 허재원 팀장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공연장의 경우 500석 이야기도 하겠다. 어느 정도 시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텐데, 확대나 축소 정도의 의견을 내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시에서 정한 영역을 침범하며 논의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수준까지 논의 가능할지 정확히 정해주셨으면 한다. 총무님이 다른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벤치마킹도 좋지만 신대도서관은 좀 더 특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곳에 있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서 텅 빈 상태에서 만들어보자. 현재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견조율하는 인원이 많다면 그룹을 지어 논의하고 역할을 나누면 좀 더 논의 내용이 잘 압축되지 않을까 싶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 공간은 바로 청소년 공간이다. 청소년의 쌓여 있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음악도서관 형태는 어떤가. 책이 아닌 음악을 통한 쉼터가 되는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 어른들도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말이다. 지금 도서관은 어린이와 성인 공간이 모두 분리돼 있다. 아이와 함께 와서 각각 따로 책을 보는 부모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이들을 따로 찾으러 가야 한다. 넓은 공간, 큰 형태를 정해놓고 콘셉트를 잡으면 좋지 않을까 한다.

김동윤 >

아주 좋은, 현장의 생생한 말씀인 것 같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청소년 공간은 완전히 놀러온 공간 개념으로 많이 조성하더라. 창작공간이 청소년에게 정말 필요한 듯하다. 공원이랄 곳이 없으니까 말이다. 도서관이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박연숙 >

그런 공간 하나쯤은 만들어 주는 게 어른의 몫이 아닐까 한다.

강현미 >

요즘은 오디오 북도 있고 핸드폰을 연결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자유 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듯하다.

김호 >

서울대 자료를 보면, 세계도서관 주요 특징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다. 이용자 맞춤형 공간, 정보화 IT 등등. 그것만 보셔도 총무님이 올리신 자료를 다 이해하신 것과 마찬가지다. 세 분 말씀 아직 안하셨는데, 말씀 안하신 분들 해주셨으면 한다.

강현미 >

개인적인 사정으로 깊이 생각은 못했다. 기존에 신대도서관의 가족 통합 도서관 개념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다들 말씀하신 문화복합이란 것도 그런 의미와 통한다고 생각한다. 개념트는 가족통합으로 가되, 다른 분들 이야기처럼 청소년 공간, 아이들이 편히 뛰어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 안에서 뛰놀 공간은 많으니까 밖에서 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도서관 안에서 어른들은 책을 보고 아이들은 밖에서 놀다 들어오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더 깊이 생각해 오겠다.

박송이 >

아이들이 책을 잘 안 읽는다. 그런데 프로그램 때문에 아이들이 도서관에 자연스럽게 오게 되더라. 동아리 활동 하는 걸 봤더니 과자도 먹고 얘기도 한다. 도서관은 음식 반입이 안 되니 놀이숲 같은 곳을 아이들이 선호한다. 놀이숲처럼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 너무 넓으면 아이들이 싫어하더라. 본인들이 모여서 협소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나 가족 중심 개념으로 “꿈”이라는 테마를 생각해봤다. 생태나 환경

은 조례호수도서관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가족과 청소년이 함께 꿈꾸는 도서관”이라는 콘셉트를 생각해 왔다.

김호 >

어떻게 구현하는지?

박송이 >

여기서 이야기하는 “꿈”은 진로에 관련된 내용이다. 좋은 대학에 간다고 취업하는 게 아니다. 도서관에 진로관련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도서관을 가는데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 시니어를 위한 치유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가족 전체가 도서관에 오도록 말이다.

이봉금 >

올려주신 자료를 보니 상상외로 도서관이 많이 발전했음을 느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초중고생을 위한 콘셉트도 좋지 만 그들이 자라고 나서까지 생각해봐야 한다.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전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김동운 >

당분간은 아이들, 젊은 친구들이 이용하겠지만, 조만간 성인을 위한 도서관으로 바뀌게 될 듯하다. 특히 평일에는 성인 비중이 커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신대 도서관이 높지 않았으면 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층고는 높지만 2층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전동차 타고 책 보고, 동시에 방해받지 않는 도서관이었으면 한다. 장애인이나 노인도 편히 있을 수 있는 접근성 좋은 시스템이었으면 한다. 추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까지 나온 걸로 이야기해 보자.

김영재 >

시장님하고 면담해보니 신대 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느꼈다. 그렇게 되면 500억 정도로 800석 정도 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공연장과 도서관이 같이 들어서면 신대의 랜드마크가 될 듯하다. 시장님이 강력하게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여기도 공공용지니까 당연히 복합적으로 짓지 않을까 한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자. 문

화예술회관 옆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서 접근했으면 한다.

다른 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다. 비 올 때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라도 두었으면 한다. 그림책 도서관은 5000㎡이고 기적의 도서관은 4000㎡이다. 우리는 큰 규모인데 1층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부모와 어린이가 놀러와서 한쪽에서는 놀고 한쪽에서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말이다. 이 정도 규모면 어린이 도서관에 아까 말씀하신 구연동화실이나 그림책 도서관이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대의 특징상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도서관에 놀러와서 옆의 공연장에서 공연도 보면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2층은 주민이 모이는 공동체 문화공간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도서관의 문제는 카페가 없다는 것이다. 사랑방이 없고 책만 읽으라는 개념으로 존재한다. 1층은 어린이와 아이를 위한 가족도서관으로, 2층은 주민을 위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만들었으면 한다. 북카페, 문화센터 등도 들어가게. 3층은 우리 규모에 맞게 큰 열람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도서관이 아니고 열린 공간으로서 휴식도 하고 디지털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는, 근본적으로 열린 공간,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내가 늙어서 도서관에 놀러 간다는 개념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김호 >

북카페가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 도서관에서는 음료를 먹으면 안될까? 흘러면 그 사람이 변상하면 되는데. 일부는 몰래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외국에는 책보다가 옆에 스타벅스 있고 기념품, 와인, 작은 음료를 파는 곳이 한 층에 있다.

김현선 >

감시카메라를 제대로 돌리면 된다.

박연숙 >

책이라는 매개체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면 음료를 마셔야 하는지 아닌지 하는 기준이 생길 듯하다. 그래서 카페가 있는 것이다.

김호 >

보통 따로 입구에 내려놓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다르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혜란 >

신대도서관도 원래 못 갖고 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몰래 다 가져와서 마시다 보니 가능하게 해놨는데, 남편은 좋아하기도 한다. 저는 반대라 고민이다.

김호 >

사고를 닫지 않겠다는 게 제 말의 포인트였다.

김현선 >

듣다가 든 생각인데, 북카페로 해서 큰 문제가 없는 방법이, 북카페 공간에 책을 대출해서 갖고 나오도록 하면 어떨까? 잠깐이라도 읽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생겨도 본인 책임지도록 할 수 있으니까. 방법은 찾으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호 >

알라딘 같은 공간을 공공도서관에 넣으면 안될까 의문이 들었다. 다들 책을 팔 생각만 하는데, 좀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북카페나 레스토랑에 그 공간을 줘서 세련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제가 신대 처음 와서 놀랐던 게 빛보라교회를 처음 갔다. 성당 냉담자인데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갔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특성이 정말 달랐다. 그렇게 신대 도서관이 지어졌으면 한다.

박연숙 >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은 콘셉트는 나왔으면 한다. 회장님이 말씀 하시겠지만 다음에 생각해야 할 과제를 정하자. 깊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한다. 오늘 하나는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회장님이 정리해주시면 좋겠다.

김호 >

제가 저번에 특에서 얘기했던, 시에서 요구하는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해줘야, 그래야 제안이 나와야 회의 주제가 나오는 건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심의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모르겠다)

허재원 >

그런 문제 때문에 참여단 회의에 책사회에도 오셨는데, 이런 의견을 수용해서 용역 중간보고를 하면 어느 정도 콘셉트가 나올 것이다. 저희가 미리 콘셉트를 정하고 추진하면 바뀔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도서관에 오면 가족이 최소 만나질은 머물 수 있는 콘셉트로 내부회의를 했다. 예를 들어 북카페를 하면 스타벅스 정도는 들어오면 좋지 않겠느냐, 직원들과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만큼 정해진 것은 없다.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보고서 중간보고는 10월 중순으로 할 예정이다.

김동운 >

설문, 인터뷰, 다른 자료를 종합해서 책사회가 콘셉트를 제안해주실텐데, 저희가 말하는 숲속의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의견들도 고민하시는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뭔가 정해서 줄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여기서 했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나 정해서 밀까요? 그런 게 아니라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중간보고를 해주셨으면 한다.

기타 논의

양창렬 >

제안을 하나 하겠다. 처음 참여단 모집할 때 장서구성, 건축, 디자인 등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그걸로 소그룹화해서 5명 정도 모여서 4그룹 정도 구성해서 다음에는 한 시간 정도 소그룹으로 논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체로 모여 의견을 취합하면 어떨까 제안한다.

김동운 >

일단 소그룹을 정해야 할 것 같다. 시설, 프로그램, 디자인, 장서구성 등이 있는데 지금 다 나눠야 할까, 아니면 우선 시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니 다른 종목은 나중에 할 것인지 정하자.

김호 >

프로그램과 시설이 떨어질 수 없을 것 같다.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매칭이 되니까.

이은주 >

처음에 그룹별로 나눠서 명단도 짰는데, 그러다 보면 의견이 치우칠 위험이 있고 같이 조율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검토 단계에서 명단을 통합했다. 그래도 만드시려면 그렇게 하시라.

양창렬 >

각자 삶과 전문영역이 다르다. 서로 좋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각자의 다른 의견을 모으면 좋을 듯하다. 30분만 소그룹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중지를 모으는 건 어떨지.

박연숙 >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처음 모집 때 관심분야에 체크했는데,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까, 그 관심분야에 대해 좀 더 깊이 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 번 정도는 소그룹 형태로 가도 좋을 듯하다.

김환구 >

시기적으로 좀 더 진척한 다음에 나누면 좋을 듯하다.

김영재 >

질문이 있다. 의견이 모아지면 디자인 공모를 할텐데, 그 때 설계상에 다양한 방향과 설계 의도를 나타내서 할 텐데?

허재원 >

시공사에 그런 부분들을 넣는다. 예를 들어 공연장 100석,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넣어달라고 할 것이다.

김영재 >

그렇다면 지금은 깊이 나가기보다는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허재원 >

분야별로 나눈다면 지금 말고 방향이나 콘셉트가 어느 정도 잡히고나서, 장서, 시설, 프로그램 세 분야 정도로 나눠서 하면 건립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설계나 운영 방향이 나오고 나서 장서구성, 프로그램 운영, 시설 이렇게 나누면 좋을 듯하다. 자원봉사나 디자인 부분은, 180억 안에는 도서구입비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넣을지 고민중이라 최소한 10억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된다. 도서구입비는 보통 3~5억 정도 책정하는데 1000만원 정도 구입하면 7~800권 정도 된다. 1억에도 10,000권이다. 책값이 5억은 돼야 신대 규모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책장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순수 건축비가 180억이라고 보시면 된다.

김동운 >

180억은 건축비로 쓰고, 나머지는 추경 받아서. (웃음)

이강범 >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직 시기가 이르긴 하지만,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드리면 설계업자나 디자인 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칠때 심사위원이 있을텐데, 가능하면 총무님이나 참여단 대표를...

허재원 >

저희가 구성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뽑아 놓은 리스트가 있다. 도서관은 장서 구성 몇 명 시설 몇 명 이런 식으로 8명 정도 구성이 된다. 저희가 위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조달청에서 따로 위원을 모아서 심사한다. 제일 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정이 된다. 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대신 도서관 운영 방향이나 콘셉트를 전달하면 조달청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한다.

이강범 >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전달할 수 있는 대표가 전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김환구 >

절차 관련해서, 우리가 콘셉트를 정하고 진행하는데, 한번 정하면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니까 충분한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오고 가더라도 두세번 정도는 우리끼리 공청회 개념으로, 더 이야기를 하고 모아지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김동운 >

우리가 콘셉트를 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중간 발표회,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안을 제시할텐데 10월 중순이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와 의견이 전혀 다르면 그때 의견을 제시해서 논의할 수 있다.

허재원 >

설계가 완성되고 공사가 들어가도 변경이 가능하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 차액분으로 1~2회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으니 이 때 의견수렴이 가능하다.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생기고, 건축사에서도 힘들다고 하는 부분도 반영이 되니까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김동운 >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다음 모임보다 중간발표가 먼저 있는지?

허재원 >

의회가 있어서, 2020년 업무보고 때문에, 그 부분의 진행에 따라 책사회와 날짜를 조정중이다. 날짜가 잡히면 공지하겠다. 자유로이 참석해주시면 된다. 사정상 낮시간에 진행될 듯하다. 보고회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공유하겠다.

김동운 >

보고는 보고대로, 정기모임은 모임대로 일정을 잡으면 되겠다.

김호 >

다음 회의까지 뭘 해오면 될까?

김동운 >

아마도, 중간보고서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하지 않을까? 총무님과 논의해서 과제가 있다면 밴드 카톡으로 공유하겠다.

김호 >

총무님 오래 봐왔는데 저런 열정이 있는 줄 몰랐는데, 온라인에 자료를 올려

주시면 조금이나마 반응도 해주시고 최소한 반 정도는 읽어주시는 게 참여단의 매너가 아닐까 싶다. (박수)

이강범 >

단톡방을 가능하면 실명으로 해주시기를.

허재원 >

지금 용역하시는 책사회가 오셨는데, 워낙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구로도서관도 개관하고, 개관이나 설립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용역하면 대부분 교수님에게 우리가 자료를 주고 만드는데, 책사회는 직접 내려와서 공청회도 참여하고 설문도 하신다. 다른 곳에서는 배 이상 줘야하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얼마 드리지도 못했다. 수고하시니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김동운 >

다른 말씀 없으시면, 두 시간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했는데, 아프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3>

신대도서관 시민참여단 3차 회의 회의록

일시 :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 9시

장소 : 순천시 해룡면 신대도서관

참석자 (가나다순) :

강현미

김동운

김영재

김환구

민병환

박연숙

서동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간사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이미영

이혜란

주성효

허재원 도서관정책 팀장

논의 안건

1. 중간보고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 공유
2. 도서관 콘셉트 수립
3. 선진지 견학 일정 수립

중간보고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 공유

김동운>

지난 한 달간 용역 중간보고회 이야기 등이 카톡에서 공유되었다. 오늘은 선진지 견학지에 대한 자문 안건과 지난번 회의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도 책사회에서 의견을 들으러 오셨다.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먼저 다시 한 번 간략하게라도 책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고 회의하는 건 어떨까?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자. 제가 들어보니 지난 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었다.

서동민>

지난 10월 8일에 용역 중간보고를 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신대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포함한 순천시 전체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것이다. 중간보고에는 일부 신대도서관 내용이 포함되었다. 신대도서관 관련해서는 시민참여단 회의 때 나왔던 내용들을 반영했다.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복합문화공간, 개방되어 있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중점적으로 언급했고 현 신대도서관이 유지하고 있는 가족도서관 콘셉트를 확대 보완하자는 내용 등을 정리해서 보고했다.

지난주 매안초등학교에서 학생들 20명 정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이들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자유시간이 있는지, 방과 후 학원가기 전이나 학원과 학원 사이에 남는 시간 등을 물었다. 대체로 어느 정도는 시간이 남는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이 남으면 친구 집에 가거나 놀이터에 간다고 했다. 고학년의 경우 남학생은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공놀이 등을 한다고 답했다. 놀이터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 고학년은 할 게 없다고 한다. 여학생들은 만화카페, 일반 카페 등 상업시설을 이용한다고 했다. 또 광양 LF에 간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초등 고학년부터는 주로 돈이 드는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가 청소년하면 중고생을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3~4학년 정도만 돼도 부모에게서 독립하려는 시기라서 여가시간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런데 신대지구에서 시간을 보낼 공간이나 요소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신대도서관을 자주 가는지, 마음에 드는지 물었다. 대체로 마음에 든다고 답했다. 너무 좁지 않은지, 책 위주의 공간이라 재미가 없지 않은지 유

도질문을 했지만 깔끔하고 책읽기 좋다, 누워서 책을 읽을 수도 있어 좋다고 답했다. 초등학생이 조용한 곳을 싫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신대도서관이 시끄러운 게 단점이라고 했다. 연령별로 공간이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공부나 책읽기 등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 아주 조용한 곳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 소음이 허용되는 공간을 원하는지 물었다. 적어도 소리 지르며 뛰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과 작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신대도서관이 어떤 곳이면 많이 가겠느냐고 물었다. 대부분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을 원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도서관에서 조사해야 하는 숙제가 많아진다고 한다. 학교도서관에서는 자료가 충분치 않고 사서의 참고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숙제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필요할 때만 사서가 접근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물론 모두의 의견은 아니다. 이 외에도 만화, 웹툰, 게임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비디오게임이나 보드게임에 대해서는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갈렸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어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도서관 갈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고 했다.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동네 자체를 즐길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 콘셉트 수립

김동운>

지금 필요한 사항은 콘셉트를 잡는 것이다. 각자 한 달 동안 공부하신 것 중에서 말씀해 달라.

이혜란>

질문이 있다. 최근에 전주에 12~16세까지 이용 가능한 ‘우주로 1216’ 도서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동민>

면적은 600m² 정도이다. 전주시립도서관을 새로 짓는데, 그 중 한 층을 트윈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 청소년들과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 50명 대상으로 심층설문을 한 후 400명 대상으로 일반 설문을 진행하여 아이들의 성향을 정리했다. 7가지 정도로 나뉘었다. 그 중 비슷한 유형 등을 합쳐 4개의 유형으로 정리하고, 각 유형에 맞는 공간을 배치했다. 만나서 어울리는 공간, 창작하는 공간, 혼자 깊이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배치를 실이나 방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트인 공간에서 영역만 구분했다.

안찬수>

‘우주로 1216’ 같은 공간은 한국에 없었다. 누구도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모른다. 실험적인 프로젝트이다. 아이들이 자기 공간으로 느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그런 비슷한 공간이 있다. 10~13세까지 이용한다. 개관한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쪽에서도 계속 실험 중이라고 얘기한다. ‘우주로 1216’은 12월에 개관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직접 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에서 그 나이 대에 갈 수 있는 곳이 예전에는 빵집이었고 지금은 카페다. 하지만 자기 공간이 아니라서 불편해한다. ‘우주로 1216’에서는 “이건 너희들 공간이야”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란다.

현재 신대도서관을 구상하는 단계인데, 시민참여단이 만들어진 것도 대단한 발전이다. 우리가 설계자도 아니고, 그냥 마음껏 꿈꾸시면 된다. 신대에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하시고, 도서관에 다 담을 수 없더라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보는 것이다. 작년 연말에 이런 사업을 도전적으로 해볼 지자체를 구했는데 전주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보통 실험이 아니지만 한 번 해보자고 했다. 도서관을 새로 짓는데 민간이 들어가서 한 층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병환>

지난 회의에서 나온 콘셉트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콘셉트 하나하나가 주옥같고 이상적이었다. 신대지구 특성을 고려해서 특화된 테마를 설정하면 좋겠다. 신대지구의 가장 큰 특징은 평균연령이 낮다는 것이다. 앞으로 신대지구에 거주하는 유소년 교육에 관해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 도서관이 유소년과 젊은 부모를 위한 문화교육활동의 거점 역

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동운>

신대지구 평균연령이 31세하고 한다.

민병환>

건강문화센터를 자주 가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다양한 교양 강좌가 많아서 들으러 가는데, 이러한 평생교육시설이 신대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도서관은 유소년과 젊은 부모에 초점을 두고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김동운>

도서관에서 제일 안 보이는 사람이 아빠다. 엄마와 아이, 실버세대가 대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이미영>

지난번 중간보고에서 핀란드 오디(Oodi)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공통점이 1층 공간을 시민들에게 내주는 것이었다. 신대지구에 광장도 없고 모일 공간도 없는데, 1층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주면 좋겠다.

안찬수>

무사시노 플레이스는 1층에 정기간행물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고, 그 옆에 레스토랑도 있다. 무사시노의 특징 중 하나가 NPO지원센터다.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여러 단체들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고 단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도 한다. 청소년이 만든 환경단체도 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고등학생들이 모여 해양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디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 선정한 ‘올해의 도서관’이다.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도서관이다. 건축에 10년 걸렸다. 도서관 건너편이 의회이다. 기존의 도서관과는 다른 개념이다. 1층 광장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차를 마시거나 식사도 가능하다. 핀란드는 EU를 중요시하는데, EU 관련 코너도 있고 영화관과 다목적실도 있다. 올해가 우리나라 3.1운동 100주년인데 우리는 뭐 했나 싶었다.

김동운>

개인적으로 도서관에 지상주차장은 안 만들면 좋겠다. 외국도 그렇지 않은가? 주차를 꼭 도서관 바로 옆에 해야 하는지, 멀리 주차해 놓고 걸어오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된다.

안찬수>

어제 뉴스 중 파리 세느강에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강에 빠뜨린 공유자전거나 공유킥보드를 건지는 것이다. 우리는 교통체계가 자동차 위주이지만, 유럽은 녹색교통이다. 신대지구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차를 끌고 도서관에 오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이다. 그런 교통체계를 갖추면 좋을 것이다. 신대도서관 부지가 매우 좋은데, 시민들과 그런 실험 할 수 있지 않을까? 도로가 자전거 타기에 불편하게 되어있다. 신대 아파트마다 공용 자전거를 두면 좋겠다.

주성효>

도서관 버스나 도서관 자전거, 신대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도서관 버스,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등 시와 협력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민병환>

신대도서관을 신대 주민만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타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순천 건강센터도 지상주차장만 만들어 놔서 문제가 심각하다. 건물을 지을 때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니 시간이 지나 지상 주차장을 늘려도 감당이 안 됐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도 주차장이 지하 위주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주성효>

시장님이 신대지구에 순천의 예술의 전당 같은 곳을 설립하겠다고 하던데 그 장소가 어디인가? 도서관과 연계된 것인가?

김영재>

최초에 부지를 잡을 때는 그것까지 계획하고 잡았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의료부지 쪽에서 도서관으로 연계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다. 되도록 고려해달라고 시에 공문

을 보낸 상태다.

김동운>

공공건물이 가까이 있다면 스카이웨이처럼 연계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강현미>

이번에 생태문화교육원을 가보니 규모가 꽤 큰데, 신대 신축 도서관도 그 정도 규모인가?

허재원>

거긴 컨벤션센터이기 때문에 규모는 큰데 많은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다. 도 교육청에서 200억, 시에서 100억 정도 들였다. 신대도서관은 연향도서관의 두 배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 연향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을 보더라도 주차장은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부족하다. 연향도서관은 밤에 가도 짝 차 있다. 계획상으로는 주차장이 200대 수용 규모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부지가 필요하고, 지하에 설치하면 공사비가 매우 많이 든다.

신대 청소년 얘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청소년 위주로 구성하면 10~20년 뒤에는 그들은 이용할 수 없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족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서 10~20년 뒤에도 리모델링 필요 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우리 계획이다. 토의와 의논을 거쳐 나온 결과물을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릴 것이다.

김동운>

각 기관마다 주차장이 있을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서 통로를 연결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야 공원 등을 둘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서관 안에 아트리움이 있으면 좋겠다. 조형물도 들어가면 좋겠고 미술품도 탈부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시공간만이 아니라 주변에 테이블을 놓고 책도 보는 공간이면 좋겠다.

선진지 견학 일정 수립

허재원>

밴드나 카톡에 다른 도서관 사례를 계속 올리시던데, 하루 정도 가보고 싶은 도서관을 다녀올 수 있다. 가고 싶은 장소와 날짜를 알려주시면 준비하겠다.

(자유 논의, 투표)

김동운>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11월 7일 목요일 수원 광고 푸른숲도서관으로 잠정 결정하고, 추가 방문 도서관은 카톡과 밴드로 더 논의하자.

이미영>

궁금한 것이 있다. 순천도서관은 대부분 특성화를 하고 있는데 신대도서관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허재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도서관이 될 것이다. 전문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의 기본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어떤 주제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개념이다.

안찬수>

신대도서관 시민참여단을 만든 이야기를 듣고 반가웠다.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든 생각이 있다. 시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다 수용하실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는 마음껏 꿈꾸면 된다. 저녁 먹고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도서관이면 좋겠다, 청년들이 창업 구상을 하는 곳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펼쳐놓으시라. 그걸 바탕으로 순천시에서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는 보고 듣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이야기 하면 된다. 우리가 공직자처럼 설계 문건을 만들기 위해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다. 원하시는 것을 꿈꾸듯이 얘기로 펼쳐놓으시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격려가 되고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이제 단답형 지식은 의미가 없다. 외국 도서관에 가보니 손으로 하는 만들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미국 같은 곳은 메이커 공간, 컴퓨터 수리, 재봉

틀, 뜨개질 등을 도서관에서 한다. 도서관에서 재봉틀 하는 게 첨단인 것이다. 배움이 달라졌다. 손으로 하는 것, 협동하는 것,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골방에서 고시공부 하듯이 공부하던 내용은 다 스마트폰에 있다. 의사, 변호사는 퇴조하는 직업군이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이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만들고,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학교는 변화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그런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순천시에서 설계, 건축, 예산의 한계 속에서 애를 쓸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꿈꾸는 것이다. 좋은 곳에 탐방도 가고, 검색도 하고, 토론하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강현미>

이용자의 시간, 대상, 특성화 콘셉트 등에 대해 든 생각이 있었다. 여기는 연령대마다 오는 시간대가 다르다. 한 공간을 누구나 같이 쓰면서 공작 등의 활동을 세대가 연결되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찬수>

스웨덴의 어느 도서관은 직원이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직원이 없는 시간에도 주민들끼리 모여서 독서토론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직원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사회에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다. 우리 같으면 분실 등을 걱정하는데, 그곳은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 주민들이 회원증을 대면 문이 열려 들어갈 수 있다. 신대지구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민병환>

테마를 가족 중심으로 설정하였는데, 포괄적으로 잘 설정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신대지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청소년과 젊은 부모를 위한 서비스이다. 시설은 나중에 필요할 때 리모델링하더라도 현재는 젊은 부모와 아동에 초점을 둔 가족 중심이 되면 좋겠다.

김동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자. 11월 7일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

<부록 4>

안문수 과장 인터뷰

일시 : 2019년 10월 29일 오후 3시 ~ 5시
 장소 : 삼산도서관
 질문자 :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응답자 : 안문수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과장
 기록 : 서동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간사

인터뷰 순서

1. 순천시 공공도서관이 걸어온 길
2. 순천시 작은도서관의 역할
3. 인구감소 시대의 순천시 도서관
4. 향후 과제 : 정책 방향 정립
5. 향후 과제 : 인력 충원
6. 향후 과제 : 사서 역량 강화
7. 향후 과제 : 주제전문사서
8. 향후 과제 : 추가 제안

안찬수 >

이제 정년이 가까워졌는데, 몇 년부터 근무하셨나?

안문수 >

91년부터다. 내년이 만 30년이다. 공공도서관 사서 1세대일 것이다. 그 전에는 일반직이 사서 교육을 받아서 사서가 됐다.

순천시 공공도서관 발전 과정

안찬수 >

그리고 보면 순천시엔 교육청도서관이 없고 시립도서관의 역사가 길다.

안문수 >

처음 시작이 68년이다. 본격적으로 건물이 들어선 것은 1980년이다. 지자체 사서 1세대들이 전국적으로 도서관 보강을 많이 했다. 이어령 문화부 장관 때 처음으로 도서관에서 문화강좌를 시작했다. 당시 500만원씩인가 강사비를 내려줬다. 이동도서관도 만들었다. 도서관 하드웨어가 너무 뒤떨어져 있으니 우선 이동도서관으로 서비스를 하자는 것이었다.

안찬수 >

95년 민선 단체장이 처음 당선되고 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지만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적었다.

안문수 >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처음에 공무원이 됐을 때 순천시에 사업소가 도서관 하나, 문화예술회관 하나, 체육관 하나가 있었다. 도서관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업소에 비하면 더디다. 체육시설이나 문화예술, 환경, 도로 이런 것과 비교하면 발전 폭이나 양 모두 도서관이 떨어진다.

안찬수 >

여전히 지자체 정책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인력도 적다.

안문수 >

순천은 더 열악하다. 순천시 공공도서관이 8개라고 하지만 사실상 5개다. 인구 30만 명의 도농복합도시에 5개면 적은 것이다. 소규모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12개는 있어야 한다. 도시 규모로 봤을 때 앞으로 5개는 더 지어야 한다. 내년에 신대와 오천에 도서관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든 노숙하는 사람에게든 같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자체나 국가의 역할이다. 노인이나 생활 때문에 도서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갖춰져야 한다.

안찬수 >

30년 근무하면서 자랑이나 성과, 보람 등을 얘기해 달라.

안문수 >

순천은 여수보다 하드웨어가 떨어진다. 전남에서 여수, 순천, 광양, 목포를 4대 도시라고 한다. 하드웨어, 사서 수, 인프라 측면에서는 광양이나 여수가 순천보다 더 낫다. 목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순천이 도서관 도시라고 불리는 이유는 첫째, 기적의도서관 역할이 컸다. 당시에 많은 것을 따지지 않고 기적의도서관을 유치한 것이 큰 성과였다. 또 초창기 도서관 중 산으로 가지 않고 도심에 지은 도서관은 순천 밖에 없다. 중앙도서관이 그랬다. 여기에 도서관 직원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다. 이후 연향도서관, 조례호수도서관도 주거지에 지었다. 신대나 오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순천이 도서관 정책을 잘 했다고 본다.

또 하나는 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정책을 세웠다는 점이다. 또한 도시가 변함에 따라 도서관이 변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타 도시보다 잘 돼있다. 사업소로는 전 시민 대상 사업을 할 수 없다. 도서관운영과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 시민 대상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안찬수 >

도서관 정책부서가 있는 지자체가 아직도 거의 없다. 대표도서관 중 그래도 대표라는 말에 걸맞은 곳은 서울도서관밖에 없다. 정책 관련 예산을 받아다가 분배하거나 통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다른 곳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전남도립도서관도 전남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순천은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다.

안문수 >

그것도 장단점이 있다. 도서관운영과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개별 도서관의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거점도서관을 생각했다. 정책부서의 기능과 권한을 각 거점도서관에 내려주려고 했다. 정책부서에서는 정책만 하고 실행은 개별 도서관, 작은도서관, 독서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당 영역을 정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역할

안찬수 >

지금은 작은도서관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큰 정책의 틀에서 볼 때 도서관이 확충되고 서비스가 조밀해진다면 작은도서관은 존립 자체가 고민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도 특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그 와중에 아파트는 계속 생겨난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보완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공공도서관이 발전해야 하는데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에너지가 모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작은도서관 정책을 활발하게 펴 온 순천은 그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안문수 >

대학도서관은 공공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 구성원 대상 서비스가 먼저다. 공공도서관은 공공서비스를 하는 곳이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서 하기 어려운 소규모 그룹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 역할분담이 정확해야 한다. 총괄은 공공도서관이 해야 한다. 순천은 정책부서가 총괄하고 있다. 총괄부서도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공공도서관과 밀접하게 연관시켜야 한다. 신대지구가 그 예다. 신대지역은 공공도서관이 서비스할 수 없는 소규모 인원, 개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이 담당하고 있다. 매달 작은도서관 관계자와 회의하고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 대량의 도서 대출은 신대도서관이 담당한다.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뉴얼화해서 내려주면 작은도서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역할만 해서는 안 되고 마을회관 역할을 해야 한

다. 마을회관이 작은도서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합쳐져야 한다. 마을 회의나 대소사 논의, 마을의 자치가 거기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하나, 도서관은 책만 빌려주는 공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종합적 기능을 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의 발전으로 굳이 미술자료를 찾으러 미술관에 갈 필요는 없는 시대이다. 이제는 도서관 안에도 미술관을 뒀야 한다. 전문 미술관도 필요하지만, 20~30만 명 인구의 도시에서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도서관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도서관

안찬수 >

앞으로 사회변화의 상수로 생각해야 할 게 인구감소이다. 더 이상 팽창하지 않는다. 우리 때는 대입 지원자가 100만 명이었지만 이제 태어나는 아이가 30만 명이다. 대학진학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방이 갖고 있는 어려운 측면 중 하나가, 도시계획 자체는 팽창적으로 인구추계를 하고 인프라나 예산을 책정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인구가 줄 것이다. 일종의 수축사회다. 우리 사회는 그런 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안문수 >

순천 기적의도서관이 그렇다. 예전에는 그 주변에 젊은 부부가 많이 살았다. 지금은 그들이 신대 쪽으로 많이 간다. 그래서 이용자가 대폭 감소했다.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래서 신대도서관을 새로 짓기 위해 지역 인구 구성을 파악하고 있다. 처음 순천은 적절한 장소에 도서관을 짓는 데 급급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짓고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것이 특성화, 지역에 맞는 서비스였다.

도서관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먼저, 건물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건물 자체가 도시를 건강하게 한다.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도서관에 들어오면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은 잘 지어야 하고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도시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설령 물 마시는 일이라도 도서관 내에서 경험하는 서비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도서관은 이

러한 두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서관은 적정 규모로 곳곳에 위치하면서 잘 지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도 그 지역에 맞게 해야 한다. 문화강좌가 프로그램이 아니다. 책을 어떻게 빌려주는가에 따라 그것도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향후 과제 : 정책 방향 정립

안찬수 >

아까 질문을 반대로 해보겠다. 30년간 일하면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안문수 >

딱히 아쉬운 것은 없다. 할 만큼 했다. 목표를 세워도 100% 달성하지 못하기는 했다. 그래도 10개 중 8개 정도는 달성했다. 시에서 수용을 많이 해줬다. 특히 단체장이나 시의원들이 도서관을 많이 지원해줬다. 시민들도 이해하고 응원해줬다. 다른 지역 단체장은 대부분 전임자의 일을 지워버린다. 도서관 사업도 그렇다. 그런데 순천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활성화시켰다. 순천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안찬수 >

이번 보고서는 앞으로 5년의 과제를 설정하고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한 설계도인데, 지난 중간보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날 다 못한 얘기가 있을 것 같다.

안문수 >

이번 용역에서 도서관의 방향에 대해 먼저 나오면 좋겠다. 민주가치를 시민과 직접 연결시키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든가, 도서관이 운영에 급급했는데 앞으로는 건물 밖으로 나가자든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현재 짓고 있는 도서관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기존 도서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담아 달라. 시 전체의 도서관정책을 보면 2012년에 제안해준 내용은 거의 다 실행했는데, 제일 안 된 것은 학교도서관과의 연계였다. 학교 교사연수, 작가파견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안찬수 >

조금 더 큰 방향이 필요하겠다.

안문수 >

그렇다. 지금까지는 주로 도서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었다. 외부로 향하는 것은 고작해야 학교지원사업이다.

안찬수 >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 국내의 지적저작물 접근이 어렵다. 국내외 저작물에 대해 시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다.

안문수 >

순천대와 협의해서 순천대 논문을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시립도서관 도서관구입비 예산이 현재 6억인데, 여기에 순천대와 협의해서 서비스를 하려면 3~4억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그만큼 투자효용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천대와 협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제작년에 협약을 맺었다.

그보다 더 급한 게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갈 것인가의 문제다. 4차 산업은 나중 문제다. 지금은 정보의 발달로 공연을 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보는 경우는 없다. 서울에라도 가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공연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도서관에 이 기능을 넣어야 한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도서관이 할 일이다.

향후 과제 : 인력 충원

안찬수 >

그러자면 걸리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사서 인터뷰를 해보니 도서관 수는 늘어났지만 인원이 충원되지 않았다고 한다.

안문수 >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다. 인원과 예산은 연결되어 있다. 나도 인력 부족, 예산 부족, 기반시설 부족을 느낀다. 시에 인력을 요구할 때 정확한 방향이나 근거가 없으면 설득하기 어렵다. 순천이 도서관정책을 잘하고 있고 인원이

적게나마 충원이 되는 이유는 명확한 목표와 필요인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안찬수 >

지자체의 도서관이 확충되고 그에 따라 인력도 제대로 충원했다는 지역은 없는 것 같다. 새로운 도서관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어야 하겠다는 미래형 조직표가 필요하겠다.

서동민 >

순천시도 각 도서관별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서 인터뷰를 하며 들어보니 순환보직으로 업무가 바뀌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완전히 새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스템 상 전임자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나 노하우를 전달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문수 >

한국은 시스템 부재가 문제다. 개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외국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존한다. 융통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서비스의 공정성과 연속성이 보장된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불만이 없다. 한국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매뉴얼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 과제 : 사서 역량 강화

안찬수 >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도서관 내부로 보면 직원들 훈련과 연수이다. 도서관 전체가 발전하려면 내부 구성원들, 특히 사서의 역량 발전은 큰 과제로 보인다.

안문수 >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첫째, 직무교육 포함 상근직 역량 강화다. 둘째, 행정 교육에 관련된 것이다. 셋째, 연수와 훈련에 관련된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교육에서는 직무교육을 시킨다. 행정교육은 공무원 연수원에서 담당한다. 직무교육이 아니라 행정교육 위주다. 세부 교육이나 마인드 교육은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내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뤄주

면 좋겠다.

안찬수 >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교육에 대한 통계를 내고 발표했다. ‘그림책 이해’와 같은 강좌는 많은데 정작 도서관 철학이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디서 교육 받을 곳이 없다. 순천시 도서관 발전과 앞으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학교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올해 북유럽 도서관에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 다른 게 보인다. 직무교육을 해외 연수로 해볼 수도 있다.

안문수 >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작은도서관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이 중요하다. 내년부터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학교를 만들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만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3년을 기점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운영자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3년에 한 번은 자료, 운영, 행정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하나는 주제전문교육이다.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가 힘든 문제다. 현재 사서가 27명인데, 이 인원이면 주제전문 사서를 시도할 수 있다.

향후 과제 : 주제전문사서

안찬수 >

예전에 미국의 장애인 기관을 둘러봤다. 워싱턴은 인구 55만 명에 도서관 분관이 스무여 개다. 분관을 갔는데, 분담수서를 하고 주제전문 사서가 있었다. 관장은 만화 전문가였다.

안문수 >

주제전문사서는 도서관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만 개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다. 내가 그걸 먼저 알았더라면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한 분야에 대해 30년간 연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정년 이후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을 향한 서비스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찬수 >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최종보고서에 잘 반영해 보겠다.(*)

<부록 5>

순천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자문회의

일시 : 2019년 11월 14일 오후 4시 ~ 6시

장소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회의실

참석자(가나다순) :

박소희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서동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간사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윤의식 순천향대학교 겸임교수

이용남 전 한성대학교 총장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논의 사항

1. 2012년 중장기 계획 평가와 제안
2. 도서관 확충
3. 전문인력 확충
4. 사서의 전문성 강화
5. 작은도서관
6. 도서관 특성화
7. 신대도서관 건립

2012년 ‘순천시 도서관 중장기 계획’ 평가와 제안

서동민 >

간단하게 오늘 회의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 도서관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책사회에 용역을 맡겼다. 2012년에도 ‘순천시 책읽기 혁명 프로젝트’라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었다. 오늘은 최종보고 마무리 점검차원에서 의견을 구하고자 자리를 만들었다.

안찬수 >

연구의 출발점은 신대도서관이었다. 광양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자 광양, 여수, 순천의 한복판에 신대지구가 있다. 택지개발 초반이어서 도서관이 필요했다. 현재는 자치센터 안에 신대도서관이 운영 중이고 활용도가 높는데, 그 옆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새로운 도서관이 추진 중이다. 현재의 신대도서관을 이전 확대해서 신규 도서관을 만들려는 것이다. 여기에 2012년 계획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제안을 의뢰받았다. 당초에는 신대도서관 건립이 중점이었는데 이제는 정책 제안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2012년 당시 독서문화 진흥, 교육, 복지, 산업, 생태를 묶어서 정책 패키지로 “책 읽는 도시”를 제안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시장이 바뀐 뒤에도 지속적으로 도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적의도서관, 그림책도서관 등 순천이 가진 도서관 문화가 정착 중이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기업과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사서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 공공도서관과 대학의 연계, 학교도서관 사업은 미진하다. 학교도서관 사업의 경우 학교 교육청과 지자체의 행정체제의 차이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한다.

향후 과제를 도출해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이용자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단순히 디지털로의 매체 환경의 변화로만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변화를 만드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데 사서 관련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순천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 인구는 감소하고 도시 인구는 증가하는 인구 사회학적 변화가 급격하다.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 노령화와 유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중요한 변화인데, 어린이와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제안사항을 만들어 보았다. 먼저, 도서관 예산을 최소 1%이상 확보해야 한다. 현재 순천은 서비스 확대기인데,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장서와 인력을 확충하며 소외계층 대상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야한다고 제안할 것이다. 현재 순천의 도서관 정책 예산은 전체 예산의 0.8%로 매우 소액이다. 순천의 재정규모가 곧 1조가 넘었는데 현재 82억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도서관 건립 때마다 별도의 재정이 투입되기는 한다.

이용남 >

그러면 0.8%는 건립비가 포함된 것인가?

서동민 >

그렇다. 2019년 예산 82억 중 20억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다. 2014년은 중앙도서관을 그림책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금액이 증가한 것이다.

안찬수 >

저 수치에서 건립비를 구분해서 수치를 재산정해 달라.

도서관 확충

안찬수 >

현재 순천 도심지역에 신대도서관과 오천도서관을 추진 중인데, 분석해 보니 추가로 3개 도서관이 더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2개관을 포함하면 총 7개 도서관이 있는 것인데, 총 10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제안사항이다.

서동민 >

반경 1km로 산정하여 지정한 3개 지역의 인구는 각 1만 명가량이다.

이용훈 >

최근 정부가 생활SOC 정책을 재수립하면서 반경 1km와 같은 개념을 쓰지 않는다. 기초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예전에는 인구수로 정했는데, 지금은 접근점으로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차로 10분 거리, 마을시설인 소형 도서관이나 사립 도서관은 걸어서 10~15분으로 재편 중이다. 이에 따라 규모를 맞춰서 지으라는 지침이다.

윤의식 >

시골은 공간적으로 동네가 구분이 되는데, 도시는 밀도가 높아서 인구가 모여 있다 보니 동네 구분 기준이 걸어서 10분, 차로 10분 이내이다. 그러다 보니, 기차길이나 하천이 흘러 구분이 되면 거리가 맞아도 다른 동네가 된다. 그러한 인문학적 개념을 감안해야 한다.

이용훈 >

생활SOC추진단이 현재 시설들을 새로운 기준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과다지역, 과소지역을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워도, 최종보고에서 언급은 해 주어야 할 것 같다.

서동민 >

삼산도서관 위쪽은 거주지가 호리병처럼 좁아졌다가 넓어진다. 선평리 쪽은 강 서쪽과 동쪽으로 각각 마을이 하나씩 형성되어 있다. 사실상 각각 다른 동네인 것이다.

안찬수 >

그렇다면 하천 양안에 모두 도서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더 정교하게 제안해야 하겠다.

이용훈 >

이제는 층위로 보자. 저 지역에는 삼산도서관 같이 큰 도서관을 하나 두고, 소형 도서관과 어떻게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하자. 기본적인 서비스만 하는 도서관을 두는 식으로 제안하자. 층위를 더 상세하고 정교하게 다듬자.

안찬수 >

그렇다면 저 지역에 삼산도서관 급의 도서관을 넣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좀 더 충위를 넣어서 참고하도록 하자. 보고서에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전문인력 확충

안찬수 >

두 번째 큰 문제로, 공무원 사서직 인원의 증가는 2012년에 비해서 별로 없다. 그나마 육아휴직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근무 인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상당한 고민이다. 도서관은 늘어나는데 그만큼 전문인력 충원은 더디다. 비사서나 공무직, 계약직만 늘고 있다.

보고서 안에 보면 사서 인력 기준이 도서관법, 한국 도서관 기준, 문체부 매뉴얼 기준끼리 격차가 큰데, 이 데이터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순천시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용훈 >

도서관법은 단위 도서관으로 계산하고, 한국 도서관 기준과 문체부 매뉴얼은 지역 단위로 인구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사서 인력 확보를 제안할 때 충위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도서관이 장서를 늘릴 필요는 없다. 장서를 일정 규모로 정해 놓고 새 책만 받고, 나머지 오래된 책은 큰 도서관으로 보내면 된다. 그런데 현재 법 제도는 모든 도서관을 똑같이 놓고 시설과 장서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충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안찬수 >

보고서에서 사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할 수는 있겠다. 공무원 중 사서 인력을 기준으로 사서 인력을 비교하는 게 좋을 듯하다. 1관 당 6명은 갖춰야 한다고 심플하게 제안하자.

박소희 >

실제로 교육청 도서관은 저 정도의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는 확보하지 못한다.

이용훈 >

인력 기준에 있어서 장서 수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장서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용남 >

전국 평균을 내서 적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운영이 잘되는 도서관 평균을 낸다든가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용훈 >

법이 있는데 법 이외의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박소희 >

지자체는 한 해에 사서 1~2명 증원을 갖고도 씌름하는 상황이니 비약적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사서의 전문성 강화

안찬수 >

다음으로 현장의 요구다. 사서가 전문성을 키울 기회가 없다. 당연히 순환보직이고, 교육기회에 대한 요구는 많다.

이용남 >

인력이 있어야 교육을 받을 것 아닌가?

안찬수 >

작은도서관 활동가보다 적은 상황이다.

박소희 >

사서가 적으면 이용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전문사서의 역할과 역량 강화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

이용훈 >

순환보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순환보직 하에서 전문성 강화

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사서를 뽑거나 중간부터라도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안찬수 >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나름 탄탄하게 이끌어온 순천이다. 도서관 개수도 2012년과 비교해서 증가했다. 그러다보니 시비 지원과 1개소당 지원금도 늘었다.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도 2배로 증가됐다. 장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소희 >

어떻게 2016년에 저렇게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나?

서동민 >

2017년에 신대지구 작은도서관 5개관이 개관했다. 현 신대도서관이 작아 작은도서관에도 사람이 몰렸다. 그래서 신대지구의 작은도서관은 타 지역 작은도서관보다 이용자수, 대출도서 수가 공공도서관 수준으로 높다. 프로그램 수도 크게 늘었다.

이용훈 >

공립 도서관과 사립 도서관은 여러모로 다르다. 공립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사립은 하면 좋은 일이다. 재원도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다르다. 공공도서관을 작은도서관 큰 도서관으로 나누지 말고, 작은도서관을 공립의 분관 정도로 표현하자. 그래야 사립 도서관의 역할도 명확해진다. 이번 기회에 그런 구분 방식을 제안하자.

박소희 >

작은도서관은 동네의 중심인데, 원도심화되는 지역에서는 유명무실한 작은도서관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용자 조사를 해야 한다. 그 지역에 과연 작은도서관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지를 봐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폐관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파주도 도농복합지역인데, 신도시 작은도서관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원도심 도서관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파주시는 생활SOC를

하면서 작은도서관을 통폐합하고 인근 지역끼리 묶어서 공공도서관으로 정리해주는 시스템을 갖췄다. 순천의 1개소 당 지원금 1,500만원은 바람직한 시스템인데 이것이 실제로 이용자에게 적절하게 투입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자.

이용남 >

작은도서관이 법률적으로는 사립 도서관이지만 순천시의 작은도서관은 시 의존형인 것이다.

박소희 >

그것을 ‘공립형 사립’이라고 표현한다. 익산, 김해, 순천 상황이 그러하다. 작은도서관이 관료화되는 측면이 있다. 지역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판단과 이에 대한 자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김해도 10년 이상 지나니 관장과 실무 사서 간의 차이가 생기고 노무관계까지 생겼다.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처리 문제 같은 것이다. 순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까 순천시가 꼼꼼한 통계를 바탕으로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이용자가 생각하는 데이터는 없을 것이다.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작은도서관에 이만큼의 재정을 지원해야 이유, 상근자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중요하다. 운영자가 사서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활동가 역할을 할 만큼의 안정성을 부여한 건데, 그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지, 운영자에 대한 보상, 주민과 결합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봐야 한다.

서울시의 2018년 조사 데이터를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자 입장에서는 생각해볼만한 점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있어서는 운영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조사했다. 작은도서관이 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들여다볼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용훈 >

덧붙여서, 이용자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감소가 아니라 쾌적한 이용단계로 가는 것이다. 더 중요한 데이터는 총량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느냐이다. 지역주민 대비 도서관 이용자와 횡수가 중요하다. 10%가 열 번 오는 것보다 50%가 두 번 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지역주민 100

명 중 도서관에 한 번이라도 온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는 꾸준한 이용자의 이용 횟수에 따라 전체 이용자 수가 달라진다. 한 번이라도 이용하는 사람의 수를 늘려서 이용 층을 넓히려면 데이터 수집 방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면적에 따라 적절한 이용 인원수도 알아야 한다. 보통 처음 대출증을 만들어도 꾸준히 대출하는 사람은 10~15% 정도다. 그러니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없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과제로 제안해야 한다.

박소희 >

쾌적한 환경의 차원에서 모두의 도서관을 얘기하는데, 시각장애인만 아니라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도서관도 제안하자.

이용훈 >

요즘은 도서관보다 좋은 다른 공간이 많으니 도서관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도서관도 쾌적해져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로만 얘기하는 면이 있다.

윤의식 >

요즘은 독서실이 스터디 카페로 바뀌었다. 내가 생각하는 도서관은 카멜레온식이다. 시험 기간에는 독서실로 변신할 수 있어야 한다. 스터디 카페처럼 변형시킬 방법은 1인 점유 공간을 넓히는 것이다. 이에 맞춰 제안해야 한다.

이용훈 >

데이터 수집은 지금 상황에서 어렵지 않다. 서울시는 회원증을 핸드폰이나 잘 쓰는 카드에 넣어 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출입 게이트를 만들자. 자동으로 출입 상황이 측정되도록 하자. 이에 대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홍보해야 한다. 또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 원한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제는 데이터가 없이 설명이 되지 않는데, 도서관계는 가진 데이터가 너무 없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서관 건립할 때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나아가서 운영주체를 미리 정해야 한다. 관장과 직원을 먼저 뽑고 적어도 건립 과정부터 1~2년은 관여하면서 공간 계획과 운영 계획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서관 특성화

서동민 >

순천시는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력이 적고 담당자도 자주 바뀌어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인구 문제도 있다. 신대지구가 생기면서 연향도서관과 기적의도서관 주변의 어린이·청소년 인구가 절반이나 줄었다. 그래서 지금의 특성화 주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고민이 있다.

이용훈 >

지역 내에서의 특성화는, 연령별 계층별 특성화는 말이 되지 않는다. 특성화의 전제는 해당 지역에서만 서비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서비스의 방식에서 순천시 전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주제 특성화이다. 특별한 이슈나 매체에 대한 특성화는 전문화를 의미할 텐데, 그 내용을 다른 지역의 도서관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방안이 맞물려가며 특성화를 해야 한다.

신대도서관 건립

안찬수 >

이 연구는 원래 신축 신대도서관 의제 때문에 시작되었다. 처음 도서관운영과장의 제안은 기적의도서관처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도서관을 같이 짓자는 것이었다.

윤의식 >

전체 건립 예산이 200억 원이면 공모로 가야할 듯하다.

박소희 >

200억이나 들어가는, 단순히 트렌디한 도서관이나 앞으로 몇 십년간 변하지 않을 도서관을 짓기에는 인구가 3만 명은 너무 적다. 3만 명이 입주했다가 결국 감소할 텐데 과도한 투자가 아닐까?

윤의식 >

수치로만 보면 2014년부터 5년간 신대지구 인구가 줄지 않고 늘었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면 계속해서 택지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지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가 수평구조에서 수직구조로 바뀐다. 원도심은 비고 있다는 이야기다. 도시가 한 쪽으로 편중될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도시 전체를 놓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네트워크를 짜줘야 한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교육 평준화라는, 원래 도서관이 갖고 있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기본적인 고민도 생긴다.

박소희 >

인천 연수구 인구가 25만 명이었는데 여기에 송도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50만 명이 되었다. 연수구가 대표도서관을 지은 지 7년이 됐는데 송도 신도시에서는 더 큰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도심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송도는 과밀해져 지역 간 문화격차도 벌어진다. 신대지구도 과밀화 현상에 호응해서 지으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용훈 >

신대지구를 순천의 중심으로 삼을 계획이라면 신대도서관을 짓는 것이 맞다.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도서관을 확충하고 균형을 꾀할 생각이라면 저렇게 원도시가 비는 현상은 좋지 않다. 인구 30만이면 서울시의 구 단위도 안 된다. 순천 같이 넓은 도시에 인구 30만을 두고 저렇게 큰 도서관 짓는 건 무리다. 지금 인원 현황을 보면 현재 있는 도서관 운영도 어려울 것이다.

안찬수 >

실제 출발은 주민의 요구가 컸다. 도서관운영과의 고민은, 설계를 공모로 진행하면 설계과정에서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박소희 >

앞서 전문사서 충원을 언급했으니 신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도 공간의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얼마의 인원이 충원돼야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가능한지 언급해야 한다.

이용훈 >

이왕 만든다면, 신축 신대도서관을 순천의 중앙도서관 개념으로 하고, 나머

지 도서관을 소외지역 이동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가 가능한 공간의 개념으로 만들자. 순천에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씨앗도서관 개념으로 농촌지역의 종자를 보존하는 일도 하자. 디지털 서비스도 제시가 가능하다. 신대도서관의 역할을 순천 지역 전체의 서비스 거점 도서관으로 설정하자. 규모와 인력 충원, 전문화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하자.

윤의식 >

순천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망을 거점화해서 접근편의를 보장하거나 주차장이나 셔틀버스를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안찬수 >

초기에 도서관운영과장의 생각은 책사회의 기적의도서관 2.0을 신대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 예산 프로세스는 불가능하다. 또 현재는 건립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설계자가 선정되고 나면 설계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다.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을 방법이 필요하다.

이용훈 >

설계지침을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 헬싱키의 오디처럼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이 참여한 회의를 여러 번 해야 한다. 주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남겨서 설계지침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설계자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의식 >

주민참여 회의에서 안을 발전시켜 지침까지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다음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현상 설계를 1차와 2차로 나누는 것이다. 아니면 지명설계 방식이 있다. 5명 정도에게 지명 설계를 맡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려면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명망 있는 건축가가 해당 지역에 들어가서 공모 진행하고 설계지침도 만든다. 대신 설계는 못 한다. 다만 가이드와 감독과 공사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길 수 있다.

보통 현상설계 심사에 건축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그것을 의무화하고

그 건축가가 건립에까지 관여할 수 있게 해주면 비전문가를 대신하는 건축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초기 기적의도서관 건립시 책사회가 했던 역할이 시민을 대신하는 건축주였다.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을 세우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

이용훈 >

여기에 더해서 주민과 사전작업을 충분히 해서 그것을 근거로 쌓아두고 설계자에게 미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의식 >

원래는 운영계획이 먼저 나오고 설계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잔을 만들 때 어떤 잔을 만들지 먼저 정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좋은 잔을 골라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용훈 >

전체 비전이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도서관”이다. 그런데 시민의 힘이 무엇인지 물으면 답이 잘 안 된다. 이를 규정하고 활용하는 것도 과제다. 도서관으로 인한 변화의 지표가 필요하다. 각 도서관이 도서관에 관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자. 도서관에서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그 후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 시민의 요구를 담으려고 하니 의견을 달라고 하는 식의 과정이 필요하다.

안찬수 >

좋은 의견 감사하다. 검토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것으로 마치겠다.(*).

순천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2019년 11월 27일

비매품

연구편집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서울 종로구 동숭3길 40 일석기념관 2층)

발행 | 순천시청